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8
2012 August Vol.248



ACROS String Ensemble



비엔그룹 · 대선주조와 함께하는

제5회 대한민국 기업사랑 음악회

2012. 9. 1(토) | pm 3:30, pm 7:30 | 1일 2회 공연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바이올린 클라라 주미 강
Clara Ju-Mi Kang

| 주최 | 부산광역시 대표방송 KNN Bⁿ 비엔그룹 | 후원 | NBSGV 넥센월석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부산상공회의소 Bⁿ 대선주조

BSO Members 악장 임병원 제1바이올린 이정미(부악장) 홍기정(수석) 황지원(수석) 김희진(부수석) 서영희(부수석) 이은실 손소영 지희원 임나리 박완서 정다혜 정운봉 김상희 강수정 이정림 김푸름 이희진 문현정 제2바이올린 김정은(부악장) 김언정(수석) 조영숙(부수석) 배연주 손주연 김신실 정희경 진선미 전지원 동경화 채지원 이예나 김설화 이리경 비올라 박주연(수석) 정지윤(부수석) 김상철 권윤희 손주연 한동민 이승연 이영화 배소현 이현원 성정인 이화영 김혜린 손민정 첼로 김판수(수석) 하유나(부수석) 최지양 박준현 김혜은 정유나 김유미 강진희 고정임 이연주 조선일 손미리 현리사 베이스 박희철(수석) 이지영(부수석) 박경호(부수석) 박지선 김선경 김덕경 황보배 이현정 황예원 플루트 김동욱(수석) 채성경 정수진 황미리 오보에 노영훈(수석) 박지연(부수석) 클라리넷 손기영(수석) 홍병희(부수석) 이효주 바수운 윤태준(수석) 김동주 호오른 강덕만(수석) 문동주(수석) 이민정 이유경 트럼펫 주 현(수석) 전상윤 최수용 이준환 트럼본 이웅희(수석) 주성혁 튜바 김기울 팀파니 김정우(수석) 타악기 이유희(부수석) 김보배 이찬욱 피아노 박진희(부수석) 하프 이은희(객원수석) 총무 이웅희 사무실장 문지은 악보 이효주 손미리 악기 주성혁 이찬욱 무대 전상윤 최수용



마에스트로 오 & 클라라 주미강 환상의 만남!

파가니니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작품6
N. Paganini Concerto for Violin and Orchestra No. 1 in D major, Op.6

스트라우스 교향시 돈주앙 작품20
R. Strauss Symphonic Poem 'Don Juan' Op.20 外 수곡

지휘 오충근 Choong-Keun Oh
연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BSO

| 문의 | KNN 1577-7600 www.knn.co.kr | 예매처 | Shopper's Heaven INTERPARK 1544-1555 | 티켓 | VIP석 10만원 / R석 7만원 / S석 5만원

Bⁿ
BIP
비아이피(주)

Bⁿ
STEELA
비엔스틸라(주)

Bⁿ
COSMO
(주)코스모

Bⁿ
SNB
에스앤비(주)

Bⁿ
BIPEX
(주)바이펙스

Bⁿ
FURNITURE
비엔가구(주)

Bⁿ
BISCO
(주)비스코
(주)비스코 정공

Bⁿ
AISCO
아이스코(주)
아이스코 정공(주)

Bⁿ
STEEL
비엔철강(주)

Bⁿ
BIP-WEIHAI
부일방화판재
유한공사(중국)

Bⁿ
BIP-USA
BIP International Inc.

Bⁿ
CHEMICAL
비엔케미칼(주)

Bⁿ
DAESUN
대선주조(주)

Bⁿ
BAUM
바움크리에이티브(주)

BK
INVESTMENT
비케이 인베스트먼트(주)



지휘_김철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김범룡과 함께 시원한 관현악 콘서트

사회_김지현
(TBN 부산교통방송 아나운서)



피아노_양우석



노래_신영미



소리_정선희



소리_박성희



가수_김범룡



민요_최윤영



민요_김세윤



민요_이은혜

Program

1. 국악관현악 [거울나라] / 작곡_이경섭
2. 시원한 여름노래와 관현악 / 피아노, 노래_양우석 / 노래_신영미
3. 창작판소리 [흥부가 중 박타령] / 작곡_이경섭 / 소리_정선희
4. 성악창작곡 [시연가] / 작곡_이지영, 편곡_이지영 / 소리_박성희
5. 대중가요와 국악관현악 / 편곡_백규진 / 노래_김범룡
6. 흥겨운 민요 / 민요_최윤영, 김세윤, 이은혜

2012년 8월 23일(목)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티켓 정보 _ A석 20,000원 / B석 1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주최 _ 부산광역시 | 주관 _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후원 _ BBS 불교부산방송

예매 _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전화예매는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만 가능)

공연문의 _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051)607-3121~4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051)607-3100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 대연역 5번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 월~금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

- 06 커버스토리 | 아크로스 스트링 앙상블 초청공연
- 08 프리뷰
- 14 반갑습니다 | 부산시립극단 신임 예술감독 문석봉
- 16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
교토X요코하마 프로젝트 2012 '기노시타 가부키' _ 이흥이
- 20 클래식, 문학을 만나다 ⑧ | 셰익스피어와 베르디의 <맥베스 1부> _ 이동신
- 22 불멸의 거장-로시니 ⑥ | 낭만주의 시대에 한발을 들여놓은 작곡가 로시니 _ 김종천
- 24 그림, 풍류를 만나다 ⑧ | 청량한 물소리 들으며 시원하게 발 담그면 _ 변광석
- 26 문화가화제 | 부산시립교향악단 2012 중국순회연주회 '동행 20년, 100년 화음콘서트'
제7회 부산국제 차 어울림문화제
- 28 그곳에 가면 | 뮤지컬 전문공연장 소향아트센터
- 30 우리는 문화가족 | 각박한 세상에 아름다움 전하는 '시의 전령사' 풀잎시낭송회
- 32 리뷰 | 제29회 부산음악콩쿠르 수상자 축하연주회 _ 박진홍
런던올림픽과 스포츠 중계방송 해설의 내실화 _ 남인용
- 34 테마가 있는 여행 | 청도
- 37 CULTURE LIFE
- 57 나의 애청음반 | 비오는 날의 아다지오 - 알비노니 '현과 오르간을 위한 아다지오' _ 조영석
- 58 부산문화회관 소식
- 60 100자 토크
- 61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2년 8월호 통권 248호

발행처 |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대연동 848-4)
Tel. 051-120(주간), 051-607-6222(야간) / Fax. 051-607-3109
발행인 | 최동환 편집인 | 박원철 편집장 | 백경옥 발행일 | 2012년 7월 25일
인쇄처 | 디자인글꼴 Tel. 051)636-1210 www.ggad.co.kr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아크로스후쿠오카

ACROS String Ensemble 초청공연



2009년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연주회를 시작으로 일본 아크로스후쿠오카와의 문화교류 사업을 진행해온 부산문화회관이 일본 아크로스후쿠오카가 자랑하는 '아크로스 스트링 앙상블'을 초청, 부산 음악애호가들에게 화려한 현의 향연을 선사한다.

친밀하면서도 정교한 스트링 앙상블을 구사하는 아크로스 스트링 앙상블은 2004년 도쿄음악대학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카게야마 세이지를 중심으로 창단된 스트링앙상블이다. 앙상블 단원들은 NHK 교향악단, 큐슈심포니 등에서 단원으로 활동하며 일본내에서 각광받고 있는 솔로리스트들이다.

1981년 비에나프스키콩쿠르, 1984년 롱티보콩쿠르 최고상에 입상한 리더 카게야마 세이지는 1989년 베를린 리사이틀을 비롯해 독일 8개 도시 오케스트라와의 순회 공연, 1995년 중남미 리사이틀, 베네수엘라 국립시몬보리발오케스트라와 공연을 갖는 등 솔리스트, 실내악주자로 세계 무대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카게야마 세이지 외에 도쿄도교향악단 악장 야마모토 토모시게(바이올린), 신일본필하모니교향악단 수석 시노자키 토모미(비올라), 큐슈심포니 단원 사토 히토미(바이올린), 야마시타 노리미치(비올라), 타나베 모토카즈(비올라), 사루와타리 유미에(비올라), 도쿄도교향악단 수석 타나카 마사히로(첼로), 일본필하모니교향악단 솔리스트 키쿠치토모야(첼로), NHK교향악단 단원 이치 히로야(첼로), NHK교향악단 수석 요시다 슈(콘트라베이스), 뮌헨음악대학교 교수 우라베 유미코(첼로) 등 일본의 유명 연주자와 재능 있는 젊은 현악주자들이 화려한 스트링 앙상블의 매력을 전해왔다. 아크로스 스트링 앙상블에는 특히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서 활동중인 콘트라베이스 주자 최진영이 정규 단원으로 한국과 일본의 화합의 선율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번 부산공연에서는 서울대학교와 뮌헨음악대학교를 졸업하고 폭 넓은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문주연이 협연 및 객원단원으로 출연, 양국의 우호 증진과 자매도시간의 문화 교류의 장을 펼친다.

2007년 후쿠오카 심포니홀에서 제1회 정기연주회를 시작으로 의욕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아크로스 스트링 앙상블은 고전에서부터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지금까지 현(縣) 내외 16개 홀에서 공연을 가지며 일본 내에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아크로스 스트링 앙상블은 이번 무대에서 로시니 '현을 위한 6개의 소나타 6번', 바흐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비발디 '4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그리그 '두개의 슬픈 멜로디', 수크 '현을 위한 세레나데', 모차르트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로 부산시민들의 감성을 울린다.

부산문화회관은 2009년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2010년 부산시립교향악단 '레이디스 필 앙상블', 2011년 부산시립교향악단 '신년음악회', 2012년 부산시립합창단이 아크로스후쿠오카 심포니홀에서 연주를 가진 바 있다.

일 시 : 8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장 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 S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학생 5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607-6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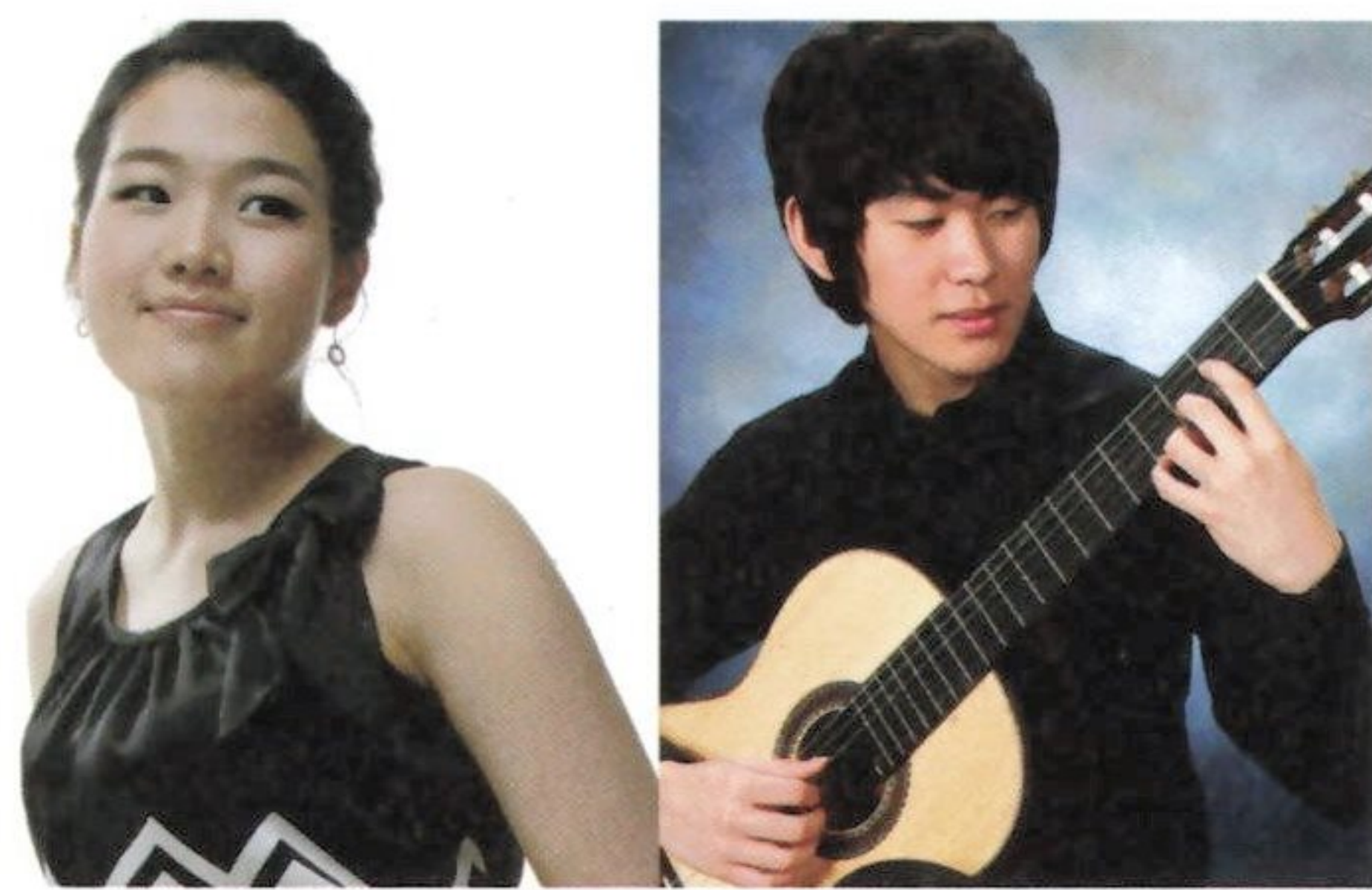
리더 카게야마 세이지

Preview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 8월 17일 금요일 오전 11:00, 오후 4:0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객원지휘 금난새
마림바 황세미
클래식기타 조정태

● ● ● 방학을 맞은 청소년과 학부모들을 위한 특별한 음악 선물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금난새와 함께 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2012년 무대가 8월 17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대표적인 간판 프로그램인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는 음악계의 스타 지휘자 금난새를 초청, 특유의 재치 있고 해박한 해설로 청소년들이 클래식 음악을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한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지휘자 금난새 지휘, 마림비스트 황세미와 촉망받는 클래식 기타리스트 조정태의 협연으로 교과서에서만 만나던 클래식 명곡을 흥미롭게 들려준다.

'클래식은 내친구'를 위해 부산을 찾는 마림비스트 황세미는 2000년

음악저널 전국 학생음악콩쿠르, 2002년 한미콩쿠르 대상, 전국 관악콩쿠르 1등, 학생음협콩쿠르 1등 등 국내 유수의 콩쿠르에서 수상하고 독일로 유학, 현재 독일 Staatliche Hochschule für Musik Und Darstellende Kunst Stuttgart에서 Orchester Schlagzeug(Percussion), Solo Schlagzeug 석사과정에 재학중이다. 지난 2월 International Percussion Competition Luxembourg Trio 3등상을 수상하기도 한 황세미는 슬로베니아 MusMa Concert(European Broadcasting Festival) 초청 연주, Ritter Sport Museum 초청 연주, 슈투트가르트 필하모닉과 협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황세미는 이번 무대에서 비발디가 살았던 베네치아의 계절별 풍경을 묘사한 비발디의 '사계' 중 '겨울'을 마림바로 들려준다. 비발디의 '여름'이 자연의 난폭함만을 나타낸 곡이라면 겨울은 추운 날씨와 아늑한 집안 풍경, 다가올 봄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다.

차세대 클래식기타리스트 조정태는 지중해와 집시의 생활 모습 등이 아름답게 표현된 로드리고 '아랑훼즈 협주곡'으로 부산 청소년들과 만난다. 2009년 한국기타협회콩쿠르에서 중등부 1위 수상에 이어 2010년 16세의 어린 나이로 한국기타협회콩쿠르 일반부에 참가하여 1위를 수상하며 주목을 받은 조정태는 2010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영재교육원에 합격하여 영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서울예고 3학년에 재학중이다.

황세미, 조정태의 협연곡 외 헝가리의 시골을 무대로 경기병의 씩씩한 모습을 그린 주페의 '경기병 서곡', 로시니 최후의 오페라 '빌헬름 텔' 서곡으로 청소년들에게 경쾌하고 웅장한 클래식 음악의 묘미를 전한다.

입장권 : 균일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부산시립무용단 2012 한여름 밤의 춤 작품전

마음을 이야기하다

| 8월 21일 화요일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김진영

안주희

● ● ● 부산시립무용단 단원들이 자신만의 춤언어와 몸짓으로 개성 넘치는 창작무대를 선보이는 2012 한여름밤의 춤 작품전 '마음을 이야기하다'가 8월 21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올해는 부산시립무용단 상임단원 김진영, 안주희가 정기공연, 특별공연에서 선보이지 못한 자신만의 춤 언어로 부산무용애호가들과 소통한다.

첫번째 무대에서 김진영은 파란만장한 우리네 삶의 희로애락 속에서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가장 소외된 각설이를 통해 음지에 사는 사람들의 한과 울분의 장타령을 현대적이면서도 풍자적으로 각색한 창작춤 '춤방귀'를 선보인다. '춤방귀'는 인간들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속악한 현실을 입으로 쫓는 장타령 '입방귀'가 아닌, 몸으로 쫓는 '춤방귀'로,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정진희, 김경미, 김도은, 김시현, 황동하, 장영진, 박미나 외에도 부산시립극단 상임단원 정행심, 타악퍼포먼스 공연집단 'the'가 특별출연, 개성넘치는 무대를 선사한다.

한양대학교 무용학과와 경성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진영은 그동안 부산시립무용단 제58회 정기공연 '이쁜이 시집가는 날', 야외마당춤판 주역으로 무대에 섰으며, 창작춤 '모래위의 편지' '겨울想' '한송이꽃' 등을 선보인 바 있다.

안주희는 타인의 시선속에서 불행해하고 원망하면서도 그 속에서 행복해하는 '나'의 모습을 춤언어로 표현한 창작춤 'Black Dress'를 선보인다. 'Black Dress'는 검정드레스를 좋아하지만 하얀드레스를 입어야하는 나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상징한 작품으로, 부산시립무용단 상임단원 김주연, 강모세, 이상민이 특별출연한다.

부산대학교 무용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전수자로 활동하고 있는 안주희는 부산시립무용단 제63회 정기공연 '형사', 제65회 정기공연 '소도'에서 주역을 맡았으며 야외마당춤판, 우리춤산책에서도 관객과 만나왔다.

춤방귀

대본, 안무/김진영 · 연출/이성원 · 출연/정진희, 김경미, 김도은, 김시현, 황동하, 장영진, 박미나 · 특별출연/부산시립극단 단원 정행심 · 연주/타악 퍼포먼스 공연집단 the

Black Dress

대본, 안무/안주희 · 연출/김미란 · 출연/안주희 · 특별출연/김주연, 강모세, 이상민

· 예술감독/홍기태(수석안무자)

입장권 : 균일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Preview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 8월 23일 목요일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지휘 김철호



노래 양우석



노래 신영미



가수 김범룡

‘여행을 떠나요’ ‘해변으로 가요’ ‘One Summer Night’ ‘Surfin U.S.A’ 등으로 흥겨운 무대를 열어준다.

가요와 팝 선율에 이어 소리꾼 정선희의 소리로 이경섭 곡 창작판소리 ‘흥부가’ 중 ‘박타령’, 박성희의 소리로 이지영 곡 성악창작곡 ‘시연가’가 이어진다. 창작 판소리 ‘흥부가’ 중 ‘박타령’은 판소리

● ● ● 매년 여름, 한 여름 밤의 무더위를 흥겨운 국악선율로 씻어주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2012년 무대가 8월 23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국악의 한계를 벗어나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즐거움을 선사하는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는 전 세계와 현대 대중을 넘나들며 젊은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오늘날의 생활음악, 세계음악을 표방하는 무대이다.

올해는 수석지휘자 김철호 지휘, TBN 교통방송 아나운서 김지현의 사회로 창작국악관현악 ‘거울나라’, 시원한 여름노래와 관현악, 창작 판소리 ‘흥부가’ 중 ‘박타령’, 대중가요와 국악관현악, 흥겨운 민요 등으로 특별한 여름을 선사한다. 이번 무대를 위해 가수 김범룡과 동아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양우석, 일본 극단 SHIKI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영미, 국립부산국악원 단원 최윤영, 김세운, 이은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박성희, 정선희 등이 다양한 성악곡의 매력을 전한다. 첫 무대는 이경섭 곡 국악관현악 ‘거울나라’로 연다. 국악관현악 ‘거울나라’는 무한한 상상과 축제가 있는 그 동화 속 거울나라를 아름다운 국악관현악 선율로 그려낸 곡이다. 이어지는 무대는 가요와 팝을 국악 선율로 편곡한 ‘시원한 여름노래와 관현악’. 양우석, 신영미의 노래로

에 국악관현악 편곡으로 옷을 입혀 화합과 행복의 세계관을 담은 흥보의 박을 통하여 청중들한테 대리만족과 보상심리를 느끼게 한다. ‘시연가’는 흔히 ‘고엽’ 또는 ‘Autumn Leaves’ 라고 알려진 원곡의 주제선율을 국악적인 느낌을 가미하여 변형시킨 곡으로 보사노바, 샹바 등의 다양한 리듬을 활용해 신선한 느낌을 전해준다.

판소리, 창작 성악곡 무대에 이어 대중가요와 국악의 특별한 만남을 위해 가수 김범룡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바람 바람 바람’, ‘현아 친구야’ 등 그의 히트곡을 들려준다. 1985년 ‘바람 바람 바람’으로 데뷔한 김범룡은 KBS신인가수상을 시작으로 MBC 10대 가수상, KBS 10대 가수상 등을 차지하며 198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마지막 무대는 경기민요의 맥을 잇고 있는 국립부산국악원 단원 최윤영, 김세운, 이은혜가 들려주는 흥겨운 우리 민요 한마당이 펼쳐진다. 한강수 타령을 시작으로 몽금포 타령, 천안삼거리, 강원도아리랑,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너영나영, 뱃노래, 자진뱃노래까지 신나는 팔도 민요 여행으로 음악회의 대미를 장식한다.

입장권 : A석 2만원 · B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4)

부산시립극단 제44회 정기공연 고도를 기다리며

| 8월 23일-25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00 |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



● 고도를 기다리며

● ● ● 8월 1일 예술감독 체제로 새롭게 출발한 부산시립극단이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S.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로 새로운 레퍼토리에 도전한다.

부두연극단, 액터스 소극장 대표로 있는 연출가 이성규가 1998년 '늪은 창녀의 귀환' 이후 오랜만에 부산시립극단의 연출을 맡아 연극애호가들의 관심이 높다. 특히 이번 무대는 S. 베케트 극 전문연출가 이성규가 '고도를 기다리며' 네번째 연출에 도전, 새로운 느낌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S. 베케트에게 노벨문학상을 안겨준 '고도를 기다리며'는 '현대의 고전'으로 세계 연극사에 큰 영향을 준 작품이다. 100개국 이상에서 번역되고 8만 편 이상의 박사학위 논문이 헌정되었을 만큼 심오한 주제와 내용, 연극성을 갖추고 있는 이 작품은 1953년 발표당시 비평가들로부터 다양한 반응을 얻었다. S. 베케트의 열렬한 추종자인 한 평론가는 "세계 연극사가 S. 베케트를 기다려 왔다면 이제 S. 베케트가 연

극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으며, 수잔 손탁은 '전통적인 연극의 모든 법칙과 내용을 일시에 깨트려 버린 전위적이고 혁신적인 부조리극'으로 이 작품을 포스터 모더니즘 연극의 시조로 재평가 하기도 했다. 베케트 자신도 "이 작품은 그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뜻한다"라며 해석을 돕는 것을 거부하면서 고의적으로 불분명하게 비치게 하였다. '고도를 기다리며'는 '고도'라고 불리는 인물을 기다리는 두 부랑자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의 대화로 이루어진 희곡이다. 특별한 사건은 전혀 일어나지 않으면서 인간의 부조리(不條理)를 파헤친다. 연극은 배우가 무대 위에 던져져 무언가 시도하지만 해결을 하지 못하고 끝나고 마는 실패한 연극처럼 보인다.

그동안 부조리극, 퍼포먼스극, 마임극, 서사극 등 부산에서 잘 공연되지 않는 공연 양식들을 선보여온 이성규 연출가는 작가의 의도를 충실히 살리며 현대성과 실험성을 갖춘 '고도를 기다리며'를 선보이기 위해 연출에 색깔을 입혔다. '고도를 기다리며'의 등장인물들은 시간과 환경 밖에 있는 인물, 사회적 운명과 개인의 구별을 떠나 지상에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무대에 놓여진 인물이다. 광대들의 우스꽝스런 몸짓, 곡예에 가까운 묘기, 재기 있는 CROSS TALK 등 연극성이 풍부한 실험적이고도 재미있는 작품을 위해 이혁우(에스트라공), 황창기(블라디미르), 윤준기(보쵸), 김정원(럭키), 전지은(소년)이 열연한다.

입장권 : 균일 1만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30% 할인,
A·E석 현장, 전화예매시 50% 할인, 중복할인 불가)

문의 : 부산시립극단(607-3151~2)

Preview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부·울·경 3개 시·도 교류음악회

한여름 밤에 듣는 꿈의 남성합창

| 8월 21일 화요일 오후 8:00 |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 8월 22일 수요일 오후 7:30 | 마산 3·15아트센터 대극장 |

| 8월 24일 목요일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지휘 구천
일렉첼로 주린

● ● ● 부산·울산·경남의 문화 예술 교류를 위해 2001년부터 매년 여름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해온 3개 시·도 교류음악회 '한여름 밤에 듣는 꿈의 남성합창' 2012년 무대가 8월 21일 울산공연을 시작으로 8월 22일 마산, 8월 24일 부산에서 펼쳐진다.

올해는 2012년 울산시립합창단 지휘봉을 잡은 신임 상임지휘자 구천의 지휘로 부산, 경남의 음악애호가들에게 중후한 남성합창의 매력을 전해준다. 특히 올해는 2012년 새로운 지휘자를 영입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부산, 울산시립합창단과 통합이후 새로운 변화를 가진 창원시립합창단이 음악으로 하나되는 뜻 깊은 무대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 3개 시도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3개 시·도 남성연합합창단이 들려줄 첫 번째 무대는 남성합창의 중후한 음색으로 J.브람스의 'Gaudemus Igitur', L.V.베토벤의 'Ich liebe dich' 등 고전합창과 김희갑의 '향수', 우덕상의 '눈 내리는 정자바다', '그대 눈 속의 바다' 등이 무대에 오른다.

두 번째 무대에서는 중후한 남성합창으로 듣는 창작합창곡 무대. 정덕기의 '북어', 김준범의 '산 낙지를 위하여', 이선택의 '희망은 아름답다', 정덕기의 '와인과 매너' 등 제목만 들어도 웃음이 절로 나는 재미있고 경쾌한, 때론 코믹하고도 아름다운 우리 창작곡들을 선곡, 새로운 합창의 재미를 선사한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아련함과 감동의 무대로 이수인의 '유리창' 이, 선택의 '목련꽃', POP합창 'Yesterday Once more'이 무대에 오른다. 한여름 밤의 낭만을 전해줄 남성합창 외에 유럽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일렉 첼리스트 주린, 울산시립합창단의 여성합창단이 특별게스트로 무대에 오른다. 서울예고와 베를린 음대를 졸업한 일렉 첼리스트 주린은 현재 경남팝스오케스트라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입장권 : 균일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청소년 3천원)
문의 :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BN그룹 · 대선주조와 함께하는

제5회 대한민국 기업사랑 음악회

| 9월 1일 토요일 오후 3:30,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지휘 오충근

● ● ●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음악으로 보답해온 BN그룹·대선주조의 대한민국 기업사랑 음악회가 9월 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제1회 대한민국 기업사랑 음악회부터 음악회를 이끌고 있는 오충근 지휘자와 부산을 대표하는 민간 오케스트라인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올해 무대에서도 관객과 만난다. 특히 이번 무대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이 부산음악애호가들과 첫 만남을 갖는다.

타고난 천재성과 끝없는 노력으로 불운의 사고를 극복하고 이 시대 새로운 음악 퀸으로 성장한 클라라 주미 강은 1987년 독일 만하임에서 태어나 네 살에 최연소 나이로 만하임 국립음대 예비학교에 입학해 발레리 그라도프를 사사했다. 다섯 살에는 함부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데뷔연주를 가졌고 일곱 살에는 줄리어드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해 이착 펄만과 나이젤 케네디, 사라 장을 길러낸 도로시 딜레이를 사사하였다.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국립음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

원을 거쳐 현재 뮌헨 음대에서 최고연주자 과정을 밟고 있는 클라라 주미 강은 2010년 9월, 세계 3대 바이올린 콩쿠르로 불리는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우승을 시작으로 일본 센다이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우승, 2009년 제 5회 서울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우승 등 참가하는 콩쿠르마다 1위 자리를 놓치지 않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었다.

8살에 처음 예술의 전당에서 코리아 챔버 앙상블과 모차르트 협주곡 5번으로 데뷔 무대를 가진 클라라 주미 강은 클라라의 연주를 듣고 매료된 거장 다니엘 바렌보임이 협연 약속까지 했지만 1998년 봄 12살 생일 직전, 불의의 손가락 부상으로 모든 일정이 취소되는 불운을 겪기도 했다. 불운을 딛고 일어난 클라라 주미 강은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니스 필, 애틀란트 심포니, 드레스덴 카펠줄리стен, 서울시향, 부천시향, 경기 필, 광주시향, 강남 심포니 등 국내외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세계 무대에서 폭 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클라라 주미 강은 이번 부산 첫 무대에서 최고 난이도의 파가니니 바이올린 협주곡을 선보인다.



바이올린 클라라 주미 강

입장권 : VIP석 10만원 · R석 7만원 · S석 5만원
문의 : KNN(1577-7600)

반갑습니다



부산시립극단 신임 예술감독

문석봉

8월 1일 부산시립극단 예술감독으로 부산활동을 시작한 신임 예술감독 문석봉. 그는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성장기를 보낸 부산 토박이다. 1972년 동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에 진학하면서 서울에 입성한 문석봉 감독은 경기도립극단 예술감독, 서울시 뮤지컬단 제작감독, (사)한국연극협회 부이사장 등으로 활동하며 서울, 경기 지역에서 수많은 작품을 선보여왔다. 40년 만에 고향 부산에서 활동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는 그는 한편으로 예술감독 체제로 새롭게 출발하는 부산시립극단 활성화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

“부산이 해양문화도시, 문화수도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선부르게 중앙의 흥내를 내지 않고 이런 역동적인 해양성을 부각시키고 개발한다면 다양한 부산만의 문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석봉 예술감독은 대학 졸업 후 연극영화학과 조교로 근무하던 중 당시 지도 교수였던 故 이진순 선생이 창단한 극단 광장을 승계 받아 극단 광장 대표를 맡으면서 본격적인 서울활동을 시작했다. ‘연인과 타인’으로 백상예술상 신인 연출상을 수상하며 우리 연극계에서 주목 받기 시작한 문석봉 예술감독은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라’ ‘무덤 없는 주검’으로 동아연극상 대상을 2회 수상하기도 했다.

극단 광장 대표로 한국연극협회 부이사장을 맡아 연극 행정에도 관심을 가졌던 그는 지난 40년간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연출, 예술감독으로 활동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다. 그동안 ‘갈매기’, ‘무녀도’, ‘세자매’, ‘햄릿’ 등 전통 연극을 비롯해 뮤지컬 ‘아가씨와 건달들’, ‘레미제라블’, ‘로미오 줄리엣’, ‘십계’ 등 굵직한 작품을 연출, 우리 연극사에 큰 획을 그었다.

몸은 떠나있어도 고향 부산에 대한 정서를 잊지 않았던 그는 부산 연극인들과 교류해왔던 터라 부산연극계가 낯설지 않다. 부산시립극단을 태동부터 관심 있게 지켜봐온 문석봉 예술감독은 제3회 정기공연으로 선보였던 이운택 연출의 ‘리어왕’과 제18회 정기공연으로 선보인 손기룡 연출의 ‘영원지애’를 관람하기도 했다. ‘리어왕’은 당시 부산시립극단을 전국적으로 알린 수작으로 극단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고 ‘영원지애’에서는 지역 시립극단에서 뮤지컬을 시도한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

“부산시립극단은 부산지역 연극인들의 열망으로 탄생된 만큼 수준 높은 작품으로 지역 문화를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문석봉 예술감독은 부산시립극단이 다른 지역과 달리 5명의 예술감독 위원회로 출발했던 당시를 기억하고 있다. 예술감독위원회나 기존 수석, 상임연출 체제는 정책적, 방향성 제고에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는 문석봉 예술감독은 예술감독제로 새롭게 출발하는 부산시립극단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고 정책과 방향을 잘 잡으면 시립극단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기 위해 극단 단원들에게는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 가치를 높여달라는 당부를 빠뜨리지 않는다.

시립극단 단원은 직업예술인이 된 만큼 과학적 전문성을 가진 직업 예술인으로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는 단원들이 예술인으로 꼭 하고 싶은 작품은 물론 관객, 시민들이 좋아하고 민낯할 수 있는 작품을 통해 관객과 어우러질 수 있는 마음가짐이 가장 필요함을 강조한다.

“같은 예술가로 단원들을 존중하면서 이해하고 함께 어우러져 시민이나 여타 지역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 좋은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시립극단은 단기, 중기, 장기 공연 계획이 필요하다는 문석봉 예술감독은 부산시립극단만의 단기, 중기, 장기 공연 계획을 세우고 시립극단의 역할에 충실하며 전 세대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작품으로 부산시민들과 만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가족, 청소년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연과 문화적인 소양이 높아진 실버세대들을 위한 공연, 해외 우수한 번역극을 선별해 새로운 연극의 재미를 선사하고 아울러 예술성을 보여 줄 수 있는 명작 시리즈를 준비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시립극단의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창작극 작업도 함께 병행하면서 지역 극장이동이 용이한 가족, 청소년극과 실버극을 제작해 지역순회 공연도 가져나갈 계획이다.

“부산은 해양도시, 해양문화의 중심지입니다. 부산의 기질에 걸 맞는 공연, 잘 만든 공연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가 문화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부산과 부산시립극단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고향 부산에서 새로운 연극인생을 시작하는 문석봉 예술감독. 그와 함께 만들어가는 부산시립극단의 새로운 작품들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 부산시립극단은 8월 23일-25일 제44회 정기공연 '고도를 기다리며'로 연애애호가들을 만난다.



타다 준노스케와 가부키?!
교토 × 요코하마 프로젝트 2012
‘기노시타 가부키’

이흥이_오차노미즈 여자대학 박사과정, 희곡번역가

일본의 대표적인 전통극 중 하나인 가부키는 과장된 분장과 '가타(型)'라고 하는 독자적인 연기법으로, 일본인들조차 낯설어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다른 전통예능과 달리 가부키가 근대화 이전에 이미 현대적인 극장문화를 형성해 관객을 모으기 위한 마케팅 및 스타시스템을 갖췄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시선이 억울할 법 하다.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도 이미 얼굴을 알린 가부키 스타가 있다. 할리우드 영화 <라스트 사무라이> (2003)에서 일왕 역을 맡았던 나카무라 시치노스케(2대^①), 일본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 (2004)의 남자주인공 나카무라 시도(2대)가 그 예다. 그밖에 여배우, 모델과의 화려한 스캔들로 유명한 '가부키계의 프린스' 이치카와 에비조(11대), 남녀 어느 역할도 매력적인 차기 인간국보 오노에 기쿠노스케(5대), 가부키·현대연극·TV드라마 어디든 카리스마로 분위기를 압도하는 이치카와 엔노스케(4대) 등 일본 내에서 젊은 가부키 스타들은 활동영역을 이미 넓혀 놓았다. 그리고 이들의 대중적인 인기는 그들이 특별한 존재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가부키의 경우, 국립극장의 연수원을 통해 일반인도 훈련과 시험을 거쳐 가부키 배우가 될 수는 있지만, 연수원 출신 배우 중 주요 역할로 캐스팅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경우 스타 배우 가문의 자식으로 태어나 태어나자마자 무용과 연기, 음악 교육을 철저하게 받는다. 소수 가문의 아들이 스타의 지위를 누리고, 그 외의 배우들은 평생 단역과 심부름을 해야 하는 구조다. 또한 최근에는 노다 히테키, 구도 간쿠로 등 현대연극계에서 인정받는 연출가가 가부키 신작을 쓰고 연출하는 기획도 생겼지만, 고전작품인 경우 기본적으로 가부키는 연출가 없이 주연배우가 연출을 담당한다. 가부키 스타는 장르의 벽을 넘나들지만, 현대연극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부키 무대는 좀처럼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것이다.



● 연출가 타다 준노스케



① 가부키 배우들은 선대 배우의 이름을 물려받으며, 나이가 들고 연기의 예술성이 성숙됨에 따라 이름을 바꾸게 된다. 예를 들어, 11대 에비조가 더 훌륭한 배우로 순조롭게 성장한다면, 현재 그의 아버지인 12대 이치카와 단주로의 이름을 물려받아 13대 단주로가 될 것이다. 이후 만약 자신의 밑으로 제자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 그 이름의 생명은 끝이 나는데, 11대 에비조와 12대 단주로는 약 300년에 걸쳐 혈연으로 이름을 이어온 가부키 명문가문의 배우들이다. 나카무라 시치노스케의 집안도 명문가이지만 그는 차남이기 때문에 2대 시치노스케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경우라 할 수 있다.



● <산바소> 공연사진 © Ryuichiro Suzuki

그런데, 올해 7월 7일(교토예술극장 순주자)과 7월 20~21일(요코하마 니기와이자 예능홀) 하는 공연마다 관객들의 호불호가 갈릴 정도로 실험적인 연극을 하는 타다 준노스케(多田淳之介)가 느닷없이 가부키를 무대에 올렸다. 고전작품의 일부를 빌려오는 정도가 아니라, 4시간 반짜리 본격적인 가부키 공연을 한 것이다. 작품명은 <요시즈네센본자쿠라>로, 일본의 실존 무사였던 요시즈네의 일대기 중에 사랑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대표적인 고전작품이다.

일반적으로 가부키 공연의 러닝타임이 4시간 반이라는 점, 그리고 여러 작가의 합작으로 쓰이곤 했다는 점에서 이 공연은 실제 가부키와 닮았는데, 이 공연에는 'KUNIO'의 대표이자 연출가 스기하라 구니오(杉原邦生), 그리고 독특한 발상의 댄스 컴퍼니 '모몽가 콤플렉스' 대표 시라가 모모코(白神ももこ)도 참여해, 장면을 나누어 옴니버스 식으로 연출

했다.

이 공연은 '기노시타 가부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전통예능에 폭 빠졌던 연출가 기노시타 유이치(木ノ下祐一)가 2006년부터 유명한 가부키 고전작품들을 현대식으로 공연하면서 시작한 것이다. 이 기획공연은 점점 성장해 2010년에 교토와 요코하마, 두 도시의 협력으로 규모를 키운 프로젝트로 거듭났다. 이 프로젝트의 첫 공연으로는 스기하라 구니오가 가부키 십팔번[●]중 한 작품인 <간진쵸>를, 그 다음 해에는 시라가 모모코가 대사 없이 진행되는 클라이맥스가 인상적인 <나츠마츠리나니와가가미>를 무대에 올렸다. 그리고 올해 3년간의 프로젝트를 집대성하기 위해 총괄 연출가로 타다 준노스케가 합류한 것이다.

이번 작품은 '비운의 무사'로 일본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요시즈네의 이



● <산바소> 공연사진 © Ryuichiro Suzuki

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세 명의 연출가들은 매우 현대적인 관점에서 당시 패배자의 시선으로 영웅이야기를 보며 반전의 메시지를 담았다. 이런 식으로 기본 틀은 가부키를 그대로 따르되 내용과 형식면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 '기노시타 가부키'의 의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바로 연극이 행해지는 공간에 대한 것으로, 일본의 '전통'을 상징하는 도시 교토와 근대 서구문물 유입의 장소로 '모던'을 상징하는 도시 요코하마를 연결함으로써,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의의를 한층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도쿄데쓰라이라는 극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쿄에서 연극하기를 일시적으로 거부, 일본의 여러 지방을 찾아다니며 '공연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그곳의 사람들을 새롭게 되돌아본 타다 준노스케의 등장이 너무나 어울려 보인다. 그리고 이것은, 서민을 위한 대중예

술이었던 가부키가 전통극이 되면서 발생하고 만 내부적인 모순, 즉 '철저하게 세습되는 스타 자리에 계속 권위를 부여해야하는가' 하는 문제점을 떠올리게 한다.

② 1976년 일본 치바현 출생. 히라타 오리자가 대표로 있는 극단 세이넨단(青年團) 연출부 출신으로 극단 도쿄데쓰라의 대표이며, 2010년부터 일본의 국립극장 최연소 예술감독이 되어 현재 사이타마현의 후지미☆키라리를 거점으로 활동 중이다. 특히 그는 한국과의 인연이 남다른데, 2008년 <로미오와 줄리엣>이 큰 호평을 받아, 2009년에 <로미오와 줄리엣> 재연, 2010년 <LOVE 2010>, 2011년 <LOVE>(부산버전)와 <재/생> 등을 통해 계속해서 한국배우들과 한국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타다 준노스케가 연출하고 한국 배우들이 출현하는 <세 사람 있어!>가 10월 11일부터 21일까지 대학로에서 공연될 예정이다.

③ 앞서 언급한 이치카와 단주로의 가문, 나리타야(成田屋)의 열여덟 개 대표작을 가리키는 말로, 흔히 우리가 '십팔번 곡'이라고 할 때의 십팔번이 여기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셰익스피어와 베르디의 맥베스 1부

이동신_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 셰익스피어 생가

오페라는 극장에서 공연하는 극이라는 면에서 연극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희곡은 오페라의 커다란 원천이다. 하지만 희곡을 오페라로 재구성하는 데는 여러 문제가 있다. 첫째, 같은 길이의 대사라도 읽는 것보다 노래로 할 때 상대적으로 더 긴 시간을 요하므로 연극보다 분량을 축소하여야 한다. 같은 상연시간을 요하는 경우 연극의 대본길이가 오페라에 비해 훨씬 긴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오페라는 소수의 등장인물에 집중한다. 아무리 대본가가 원작에 충실하고자 하더라도 분량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극적 부분의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등장인물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극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오페라는 논리적 비약이 이루어지거나 원작을 왜곡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는 소설을 영화화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하지만 원작이 되었던 연극은 잊힌 반면 지금도 인기를 누리며 상연되는 오페라는 상당수이다.

오페라는 연극에 비해 긴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줄거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학적 풍성함을 제공하는 결가지들은 과감히 생략하고 굵은 가지만을 남긴다. 따라서 희극 자체의 맛이 가져다주는 깊이는 상실되겠지만 의미는 더욱 명료해진다. 애매한 인물의 성격도 오페라에서는 결코 미덕이 될 수 없다. 악당과 희생자의 구별이 뚜렷하고, 인물들은 마음먹은 바를 즉시 실행에 옮기는 단호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이렇게 오페라가 분명한 상황과 인물을 선호하는 이유는 오페라는 대사를 노래로 하기 때문에 의미전달이 용이하지 않은 데 있다. 따라서 내용에서의 애매모호한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인물들을 극단적으로 전형화하고 선악구도의 대립을 명확히 한다.

줄거리나 분량이 줄어들면서 등장인물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등장인물이 줄어드는 또 다른 이유는 음악적인 요구이다. 오페라의 주요 인물들은 -비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리아 하나 정도는 부르는데 등장인물이 많아지면 아리아도 동시에 많아지므로 당연히 오페라가 길어진다. 또한 아리아에 매달리다보면 중창이나 합창, 무용 등 다른 음악적 요소를 쓸 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이유는 가수들의 음역과 음색에 관한 고려와 배려에 있다. 성악가는 통상적으로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콘트라알토, 테너, 바리톤, 베이스 등 여섯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등장인물의 수가 많아지면 같은 성역이 중복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음악적 다양성과 인물의 차별성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연극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겠지만 오페라에서는 비슷한 성역의 성악가들이 동시에 노래하면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어렵다. 그래서 같은 음역의 배역은 보통 두 명 정도로 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오페라 구성의 관습도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작곡가는 하나의 작품에 가능하면 다양한 음악적 요소를 사용하고자 노력한다. 첫 장면을 합창으로 시작하는 것은 오랜 전통이며, 주요 인물들에게 아리아를 배정

하고 사이사이에 여러 종류의 중창을 배치하여 음악적 다양성과 흥미를 유발한다. 어느 장르가 한 곳에 집중되면 음악적인 재미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요구를 충족시켜 각 장르를 골고루 배열하다보면 원작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변형이나 왜곡은 어찌 보면 불가피하다. 게다가 발레나 무도회 장면, 행진하는 장면도 빠질 수 없는 요소이다 보니 이를 삽입하여 볼거리를 화려하게 만들고자하는 욕구가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극의 흐름이 음악을 방해하기도 하고 음악의 흐름이 극을 방해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무리한 진행마저도 오페라의 관습으로 이해되어야 하겠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런 다양성이 오페라의 생명력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하다.

이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이자 가장 짧으면서 급속한 극의 전개로 박진감 넘치는 <맥베스>의 줄거리를 살펴보자. 스코틀랜드의 장군 맥베스는 반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동료 벵코와 개선하는 도중 황야에서 세 마녀를 만난다. 마녀들은 그에게 클래미스의 영주, 코오더의 영주, 그리고 장차 왕이 된다는 예언을 하고, 이를 들은 맥베스는 왕이 되고자하는 야심에 사로잡힌다. 그는 이 일을 아내에게 알리고 선정을 베풀고 있는 덩컨 왕을 살해할 계획을 세운다. 양심 때문에 맥베스는 암살을 망설이지만 야심가인 아내의 호된 호통에 못이겨 덩컨 왕을 살해하고 왕위에 오른다. 그러나 왕이 된 후에 맥베스는 죄책감과 불안감 때문에 고통스런 생활을 하게 되고 이는 폭정으로 이어져 민심의 이반을 야기한다.

맥베스는 마녀들을 만났을 때 함께 있었던 벵코의 후손이 맥베스의 왕위를 이을 것이라는 예언을 기억하고는 자객을 보내 벵코와 그의 아들 플리언스를 죽이려 한다. 하지만 자객들은 벵코만 죽이고 플리언스는 놓치고 만다. 맥베스는 죽은 벵코의 환영을 보는 등 극도의 불안에 시달린다. 결국 맥베스는 다시 마녀를 찾아가게 되고 세 가지 예언을 듣는다. 첫 번째 예언은 맥더프를 조심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예언은 여자가 낳은 자는 결코 맥베스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이며 세 번째 예언은 버남 숲이 던시내인 언덕을 향해 진격하지 않는 한 맥베스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위안을 얻은 맥베스는 맥더프를 죽이려하나 이미 맥더프는 영국으로 도망간 덩컨왕의 아들 맬컴을 찾아가 힘을 합친 후였다. 이를 알게 된 맥베스는 맥더프의 처자를 살해하고, 영국군의 도움을 받아 맥베스를 치러 오는 맬컴과 맥더프를 맞아 결전을 준비한다.

그 와중에 맥베스부인도 양심의 가책으로 인하여 몽유병자가 되었다가 끝내 자살한다. 아내의 죽음 앞에 맥베스는 인생을 걸어 다니는 그림자에 비유하면서 망연자실하지만 마녀의 예언을 상기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맬컴과 영국군이 버남 숲의 나뭇가지를 꺾어 들고 던시내인 언덕을 넘어오자 마녀들의 세 번째 예언은 여지없이 무너진다. 그리고 최후의 일전에서 맥더프가 자신은 어머니가 자신을 낳지 않고, 자신이 어머니의 배를 가르고 나왔다고 말하면서 두 번째 예언도 무너진다. 맥베스는 마녀들을 저주하지만 비굴하게 항복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과 끝까지 맞서 싸우다 맥더프의 칼에 쓰러진다. (2부에서 계속)

● 맥베스와 세마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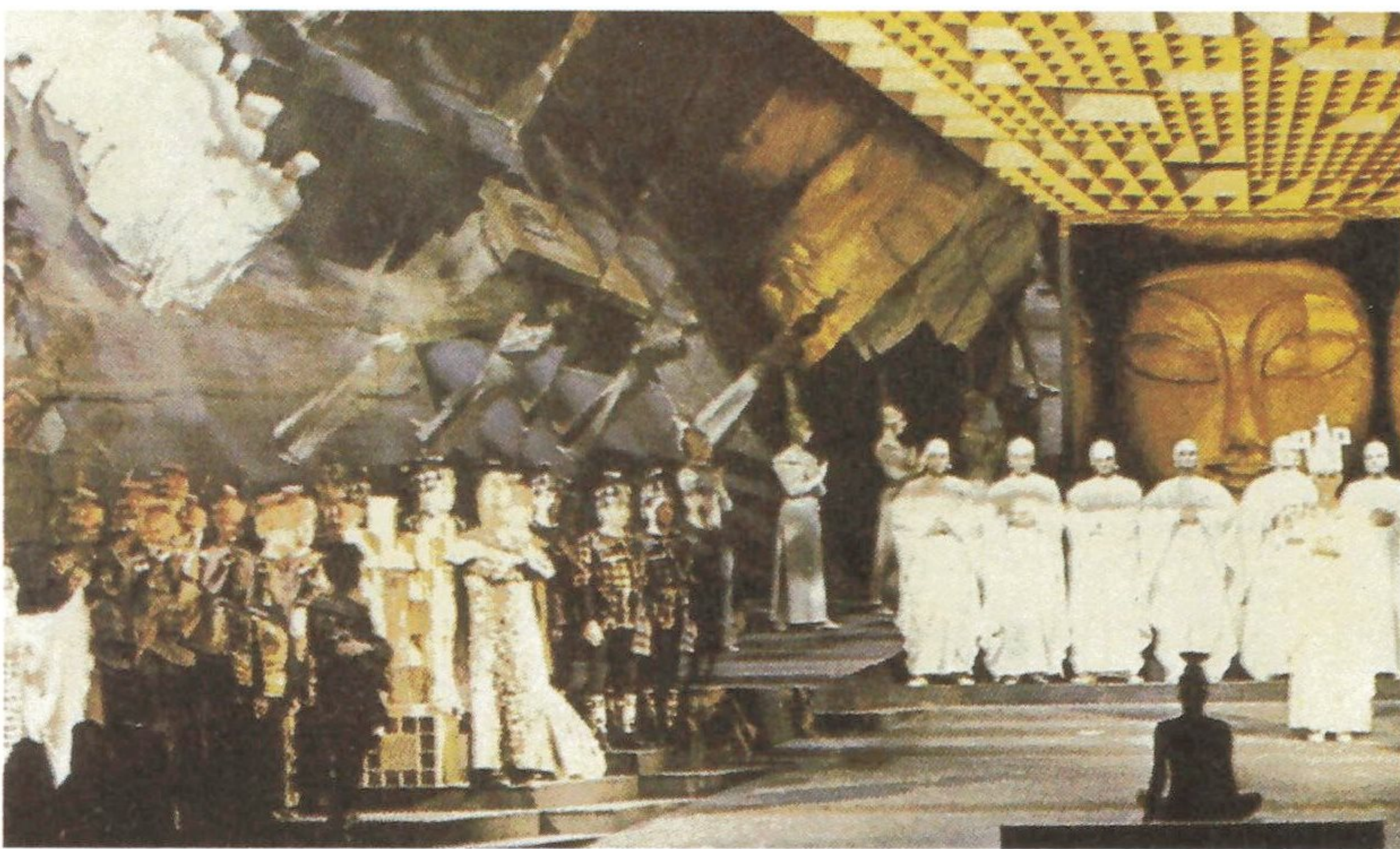


● 벵코의 망령을 보는 맥베스



낭만주의 시대에 한 발을 들여놓은 작곡가 로시니

김종천_한국오페라부파협회 회장



● 1965년 스키타극장에서의 상연된 오페라 '모세' 3막 중 한 장면

1823년 스탕달이 집필한 전기 '로시니의 인생'이 출판되면서 로시니의 작품은 유럽에서 가장 많이 상연되고 로시니는 가장 지명도 있는 작곡가로 명성을 떨치게 된다. 전 유럽에 번역되어진 이 전기는 영감에 직면하고 있는 로시니의 모든 변천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파리로 가기 전 그는 '이탈리아의 왕 우고'라는 오페라를 작곡하기 위해 왕립극장 지휘자의 초대를 받고 런던으로 갔으나 흥행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로시니는 1824년 말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 이탈리아극장과 오페라극장에서의 오페라 준비와 새로운 작품의 작곡을 예견하는 호화스런 계약으로 거의 5년을 머무르게 된다. 그 도시는 그를 명예롭게 환대했다. 파리에서의 첫 작품 오페라 '랑스로 가는 여행'은 무척 관심을 끄는 이야기를 지니고 있다. 오페라 '랑스로 가는 여행'은 샤를르 10세의 대관식을 위해 쓰여진 희극으로 극적인 칸타타형식으로 상연되었으며 무려 15명에 달하는 모든 배역은 당대의 최고의 성악가들로 구성되어 훌륭한

재능을 발휘하였다. 이 작품의 몇몇 소절들은 프랑스 전래민화에서 소재로 한 희극 오페라 '오리백작'에 사용되어졌다.

1825년 대관식을 위해 쓰여진 이 작품은 대관식이 열리는 랑스로 가기 위해 모여든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러시아의 남녀 귀족들이 자기나라의 관습에 따라 각자 그 자리에서 축제를 벌다가 결국 마차를 구하지 못해 아무도 랑스에 가지 못한다는 기상천외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로시니의 천재성이 아니라면 감당할 수 없는 전개로 많은 주역급 가수가 동원되는 초대형 오페라여서 초연 후 159년이 지난 1984년에서야 아바도에 의해 리바이벌 되었다. 아바도는 당대 최고의 로시니 가수들을 모조리 끌어들여 두 차례나 녹음을 하기도 했다. 아이러니하고 섬세하고 날카로운 아리

아들은 도니제티와 벨리니를 싹트게 하였음을 느끼게 한다.

다음해에는 오페라 '마호메트 2세'의 개작으로 파리의 정복이 이루어진다. 1826~7년 겨울을 할애한 오페라 '모세와 파라오' (혹은 '홍해의 항해')는 1818년 '이집트의 모세'라는 작품으로 나폴리에서 초연되었다가 로시니가 프랑스로 옮겨 파리의 이탈리아 극장 음악감독으로 있으면서 '모세와 파라오'로 개작, 1827년 초연했다. 이 작품은 많은 다른 로시니의 작품들처럼 현재 사장되어서 무대에 자주 올려지지 않는 작품이다. 이전작인 '이집트의 모세'와의 차이를 보면 우선 가사가 프랑스어로 바뀌고, 3막에서 4막으로 규모가 확대되었다. 내용은 잘 알려진 구약의 출애굽의 일부를 다루고 있으나, 모세의 조카 아나리와 파라오의 아들 아메노피스와의 사랑과 같은 가공의 에피소드들도 덧붙여있다. 합창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화려한 발레가 삽입되는 등 그랜드 오페라의 전형을 보여준다. 특히 4막에 등장하는 유태인들의 기도합창은 파가니니의 유

로시니의 오페라 목록

- 1806 Demetrio e Polibio / 데메트리오와 폴리비오
- 1810 La Cambiale di matrimonio / 결혼 어음
- 1811 L'Equivoco stravagante / 터무니없는 오해
- 1812 L'Inganno felice / 행복한 착각
Ciro in Babilonia / 바빌로니아의 치료
La Scala di seta / 비단 사다리
La Pietra del paragone / 시금석
L'Occasione fa il ladro / 도둑의 기회
- 1813 Il signor Bruschino / 브루스키노 씨
Tancredi / 탄크레디
L'Italiana in Algeri /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
Aureliano in Palmira / 팔미라의 아우렐리노
- 1814 Il Turco in Italia / 이탈리아의 터키인
Sigismondo / 시지스문도
- 1815 Elisabetta, regina d'Inghilterra / 영국여왕 엘리자베타
Torvaldo e Dorliska / 토르발도와 도를리스카
- 1816 Il Barbiere di Siviglia / 세빌리아의 이발사
La Gazetta / 신문1816Otello / 오텔로
- 1817 La Cenerentola / 라 체네렌톨라
La Gazza ladra / 도둑까치
Armida / 아르미다
Adelaide di Borgogna / 보르고냐의 아델라이데
- 1818 Mose in Egitto / 이집트의 모세
Adina / 아디나
Ricciardo e Zoraide / 리치아르도와 조라이데
- 1819 Ermione / 에르미오네
La Donna del lago / 호수의 여인
Bianca e Falliero / 비앙카와 팔리에로
- 1820 Maometto II / 마호메트 2세
- 1821 Matilde di Shabran / 샤브란의 마틸데
- 1822 Zelmira / 젤미라
- 1823 Semiramide / 세미라미데
- 1824 Ugo, re d'Italia / 이탈리아의 왕 우고
- 1825 Il Viaggio a Reims / 랑스 여행
- 1826 Le siège de Corinthe / 코린트의 포위
- 1827 Moïse et Pharaon / 모세와 파라오
- 1828 Edouardo e Cristina / 에두아르도와 크리스티나
Robert Bruce / 로베르 브뤼스
Le Comte Ory / 오리 백작
- 1829 Guillaume Tell / 굴리엘모 텔

명한 '모세 변주곡'의 기초가 되었던 귀에 익은 선율이다. 모세가 시네 산에서 십계를 받고 백성을 이끌어 홍해를 건넌다는 '엑소더스' 스토리만으로는 오페라 대본을 만들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 오페라에는 성경에는 없는 이집트 왕자의 사랑 이야기가 첨가되었다.

로시니는 이전 이탈리아 버전 이집트의 모세에 비해 프랑스 버전에서는 보다 역사적 근거와 아내와 아메노피 사이의 사적 러브스토리를 더 보강하고 전형적인 프랑스 그랜드 오페라 스타일에 맞춰 발레 등을 추가했으며 인물의 비중에 맞춰 몇몇 아리아를 삭제했다. 하지만 다른 대부분의 로시니 작품이 그러하듯이 이 작품 역시 로시니 시대 이후로는 상영 규모와 필요한 가수 조건 등 여러 문제로 좀처럼 무대에서 보기 힘들다. 일부분의 주제 모티브를 따서 파가니니가 바이올린 변주곡 형태의 소품으로 작곡하여 오늘날에는 원래의 오페라보다도 바이올린, 첼로 소품으로 더 친숙한 작품이다.

로시니는 76세의 생애의 반에 해당되는 37세가 되는 1829년까지 약 20년 동안 40곡에 가까운 오페라를 작곡했지만 그 후의 약 40년간은 약간의 종교음악과 소품을 썼을 뿐, 거의 작곡활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보냈다. 그의 마지막 오페라가 바로 중세 스위스의 전설적인 영웅 빌헬름 텔을 소재로 삼아 독일의 문호 실러가 완성시킨 5막 14장의 희곡을 소재로 주이가 대본을 쓴 오페라 '굴리엘모 텔'이다. ('빌헬름 텔' '기욤르 텔' '윌리엄 텔' 등으로 불리우나 이하 '굴리엘모 텔'이라는 이태리 발음으로 통일한다.) 1823년, 베네치아의 라 페니체 극장에서 초연된 오페라 세리아 '세미라미데'를 마지막으로 이탈리아를 떠나 파리에 거처하면서 프랑스 그랑 오페라의 특징을 습득해서 이탈리아적인 것과 잘 융합시킨 독자적인 오페라를 만들어 냈고 그 마지막 작품이 오페라 '굴리엘모 텔'이다.

로시니는 이 작품에서 음색·중후함·음악적·극적 구성력 등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꾀했고 합창과 오케스트라의 뛰어난 취급으로 이루어진 교묘한 자연묘사 등은 다분히 표제음악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낭만주의 시대에 한 발을 들여놓은 작곡가로서 음악역사에 남긴 공적이 매우 크다. 그러나 오늘날 이 오페라는 거의 6시간에 육박하는 공연 시간과 배역의 난이도로 거의 상연되지 않으나 서곡은 자주 연주된다.

● 스위스 알트도르프에 있는 굴리엘모 텔의 조각상



● 오페라 '랑스로 가는 여행' 중 한 장면



청량한 물소리 들으며 시원하게 발 담그면

변광석_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관폭도

우리 선조들이 즐기던 풍류중에 무더운 여름 녹음우거진 곳에서 물소리를 들으며 발담그고(濯足) 노는 재미를 빼놓을 수 없을 게다. 예부터 학문하던 선비들은 자신의 마음공부를 놓지 않았다. 마음공부는 곧 수양이다. 요새 사람들이 마음을 비운다는 말을 흔히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생각은 비우고 마음은 씻는 것이라 했다. 마음을 씻기(洗心)위해선 뭐니 해도 산수풍광 뛰어난 심산계곡을 찾는 것이 최고다. 옛사람들이 산이야 자주 올랐지만 저멀리 변방의 바닷가에 찾아가는 일은 없었다. 그럴진대 금강산·지리산 같은 천하명산은 더할나위 없지만 가긴 무척 어렵고, 대신에 고을 인근에 쉽게 오를 수 있는 계곡도 그 아니 좋을손가. 입산하여 계곡을 타고 올라가 눈앞에 펼쳐진 폭포를 마주하면 누구나 오장육부가 다 시원한 느낌을 받는다. 정약용(丁若鏞;1762~1836)의 <다산시문집>(3권, 시)에 보면 자효사(資孝寺)에 유람가서 폭포수를 보고 읊은 시가운데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옛사람이 무슨 뜻으로 폭포 구경한 줄 알지 / 古人觀瀑知何意
오장 속에 쌓인 번뇌 씻지 못해서라네 / 蓄積未洩五內煩

그렇다. 쿵쿵 쏟아져 내리는 폭포를 보노라면 가슴속까지 파고드는 시원함과 함께 마음속의 괴로움을 일거에 날려버리고 싶은 욕심이 누구에게나 있다. 이 시구는 다산이 절에 가서 쓴 것이라 불가(佛家)의 향이 약간 베어있다. 시·서·화 삼절(三絶)로 뛰어난 조선전기 문인화가 강희안(姜希顔;1417~1464)의 유명한 작품 <물을 바라보는 선비(高士觀水圖)>를 보면 바위에 기대서 흘러내리는 물을 조용히 바라보며 명상에 잠긴 선비가 등장한다. 이는 조선전기 사인화풍(士人畫風)의 취향으로서 마음을 씻기위해 자연과 동화된 군자의 마음을 읽게 한다. 이처럼 근경 위주로 그리는 화풍은 조선중기에 이르러 이경운(李慶胤;1545~1611)·김명국(金明國;1600~?) 등의 절파(浙派)계통 산수인물화에 영향을 주었다.

오늘 들여다볼 작품은 두가지다. 첫째는 <관폭도(觀瀑圖)>, 종이담채, 29×42cm, 개인소장이다. 말그대로 폭포를 구경하는 그림이다. 산중턱에 앉은 3명의 선비가 멀리 가을 하늘을 응시하고 있다. 옆엔 동자가 읊(揖)한 자세로 서서 시중들 채비다. 폭포가 쏟아지는 높은 산 주변과 앞쪽의 낮은 중턱에는 모두 노란 단풍잎이 달린 잡목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다. 때는 가을이라 떨어지는 폭포수의 우렁찬 소리를 들으면서 멀리 창공을 쳐다보고 있다. 아마 시가를 읊고 있는 모습 같다. 화면 오른쪽의 은은한 담청색 하늘로 선비들의 운치가 퍼져나가고 있다. 전체적으로 수묵 중심의 필선이면서도 담청(淡靑)과 담갈(淡褐)을 군데군데 베풀어 채색의 조화를 놓치지 않았다. 화면 왼쪽 아래에 흰색의 김홍도인(金弘道印)이 새겨진 사각도장이 있다.

둘째는 <관산탁족(觀山濯足), 종이담채, 29.3×34.5cm, 간송미술관 소장>이다. 처사가 산을 바라보며 바위 위에 앉아있는 그림이다. 제화시에 의하면 맑은 물에 발을 씻었다고 했는데, 얼핏보면 개울에 발을 담근 모습같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유심히 보면 처사가 앉은 바위와 앞쪽의 높은 바위언덕 사이에 판상모양의 돌다리가 놓여있는 걸로 보아 우거진 수목앞으로 필경 물이 흐르고 있음이 짐작된다. 다만 가파른 바위 위에서 탁족을 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스릴 만점이다. 단원은 나이가 들면서 관직에서 물러나 은거하려는 심사로 이런 심산계곡을 좋아했던 모양이다. 특히 51세 때 연풍현감직에 있던 자신에 대한 호서위유사 홍대협(洪大協)의 탄핵과 56세 되던 해 정조의 급작스런 사망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중국 서진(西晉)의 유명한 시인 좌사(左思; 자는 太沖)의 영사시(詠史詩) 8수 중에서 제5수의 끝구절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무성한 나무 숲속에 종일토록 앉아 / 坐茂樹而終日

맑은 물에 발씻으니 절로 깨끗하구나 / 濯清泉而自潔

권세를 버리고 물러나는 미덕의 뜻을 시로 표현한 원조격이다. 허유(許由)는 요(堯)임금 시대 고매한 선비로 요임금이 자신에게 천하를 주려고 했으나 거절하고 산으로 들어가 은거했다는 사람이다.

다시 그림을 보자. 붓의 운필은 다소 성글고 거칠게 지나갔다. 다만 사람과 바위·수목의 경물만 포인트를 주고 화면 아래쪽 배경은 생략했다. 탁족의 맛과 고고한 멋에 묘미를 더해주는 효과를 유도해내기 위함이었다. 화면 왼쪽 아래의 제화시는 이렇다.

시원한 물속에 발 담그고 새소리 들으며
눈길 가는대로 경관을 감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저절로 흥이 유유히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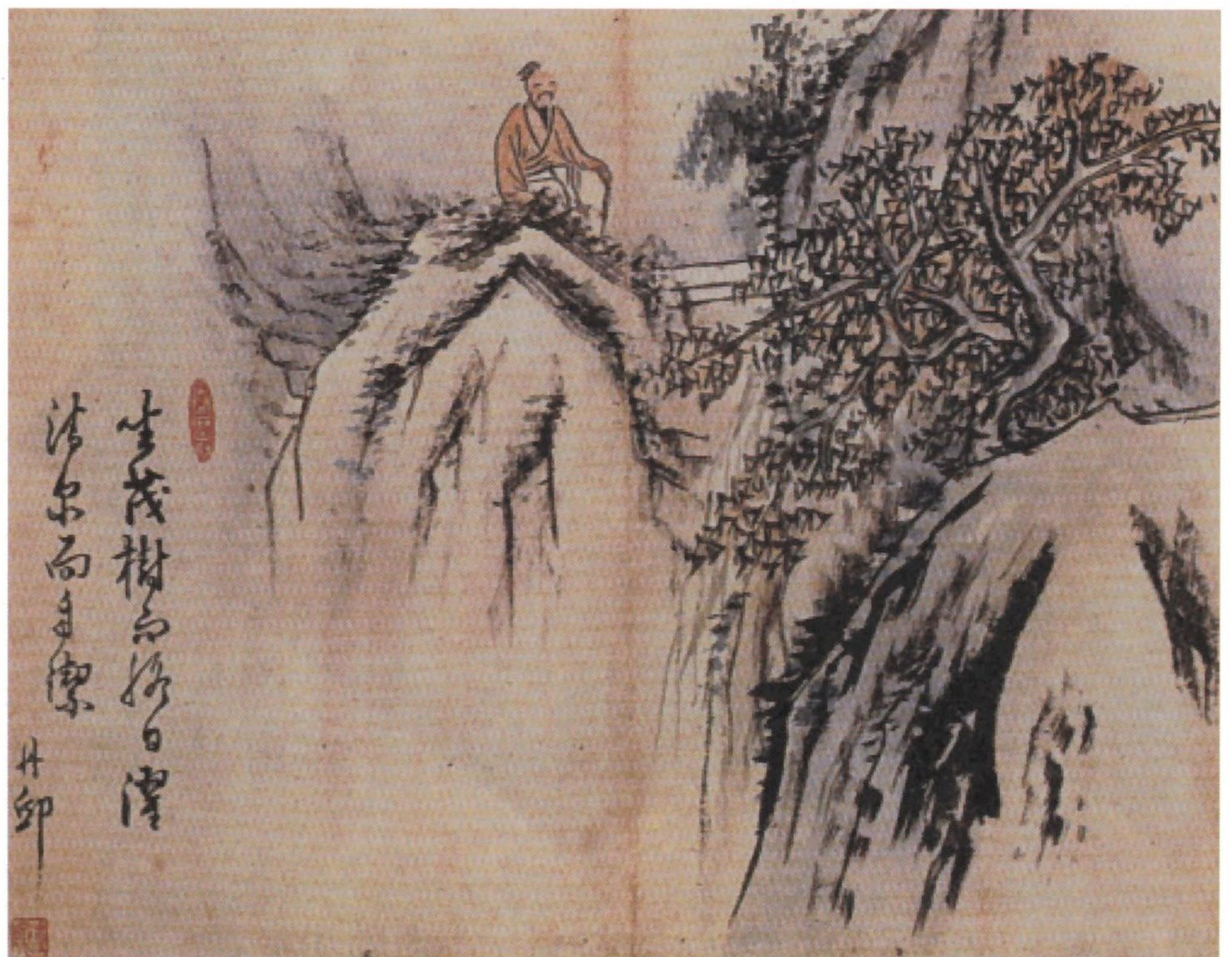
위 구절은 당나라 문인 한유(韓愈)가 쓴 <반곡으로 돌아가는 이원을 보내며(送李愿歸盤谷序)>라는 글 속에 있다.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은거하러 가던 이원을 기리며 쓴 것이다. 시문체의 표준이었던 당시(唐詩)를 다 배워온 터라 조선시대 문사들은 이 구절을 많이 애용했다. 김홍도보다 한세대 앞서 살았던 문신 남유용(南有容; 1698~1773)의 <뇌연집(雷淵集)>(권14, 記)에 보면 옥순봉(玉筍峯)·

도담(島潭)·사인암(舍人巖) 등 충청도 단양일대 절경을 읊은 기록에도 나온다. 물론 김홍도도 인근 연풍에서 현감시절에 이들 절경을 그린 바 있다. 만년에 사용하던 단구(丹邱)의 호를 관서하였고, 사능(士能)의 자가 붉은 사각도장으로 찍혀있다.

선현들이 수려한 산수경계를 찾아 폭포를 보고 발도 담그며 시를 짓던 풍류가 근대 이후에 와서는 하나의 관광과 수학여행 사업이 되었다. 유명한 삼방폭포 얘기다. 일제강점기 삼방사진사조합 주최, 삼방분국 후원으로 삼방관폭대회가 개최되었다는 보도가 있다(동아일보 1931.8.31). 폭포의 장엄함을 보기위해 새벽 기차를 타고 백여명 회원이 모여 예상 이상의 대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당시 이런 관폭대회가 자주 열렸다. 장엄한 폭포소리에다가 안개처럼 날리는듯한 신비경을 보고 마치 신선의 경지에 빠진듯한 기분이었을 게다. 폭포의 위치는 함경남도 안변군 신고산면 삼방리다. 국민애창곡 신고산타령의 무대가 바로 여기다. “신고산이 우루루- 함흥차 떠나는 소리에 잠못드는 큰애기는 반봇짐만 싣다네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데야 내사랑아...” 애간장 녹이는 타령을 한번 들으면 속이 후련해진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울여름 피서를 어디에 가실 것인가. “도시의 소음 수많은 사람 빌딩숲속을 벗어나봐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속의 흐르는 물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계곡에 발담그고 복잡한 생각은 비우고 미혹한 마음은 씻어보는 것 또한 유익하리라.

● 관산탁족



1. 부산시립교향악단
2. 지휘 리 신차오
3. 바이올린 김봄소리



한·중 수교 20주년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 50주년 기념
부산시립교향악단
2012 중국순회연주회
동행 20년,
100년 화음 콘서트

2012년 창단 50주년을 맞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창단 50주년과 한·중 수교 20주년을 기념해 8월 2일 7박 8일의 일정으로 북경, 상해, 광주 중국 3개 도시 순회 연주길에 오른다.

2002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의 홍보를 위해 중국 3개 도시 순회연주회를 가진 바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중국국립교향악단(CNSO) 상임지휘자, 중국국립음악원 교수로 중국음악계를 주도하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와 함께 10년 만에 중국 무대에 재도전한다. 이번 무대는 2011년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차이나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해 중국 음악계의 주목을 받은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가 협연자로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춘다. 2010 센다이 국제 콩쿠르에서 최연소로 4위 입상과 청중상을 거머쥐며 세계 무대에 첫 발을 디딘 김봄소리는 2010 시벨리우스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연주자로는 유일하게 입상해 음악계를 놀라게 했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8월 3일 북경 '국가대극원 음악청'에서의 첫 공연을 시작으로 8월 5일 상해 '동방예술중심 음악청', 8월 8일 광주 '광주대극원 가극청' 무대에서 루 치밍 '홍기송',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제10번'을 선사할 예정이다.

중국 순회연주회에 앞서 부산시립교향악단은 7월 31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중국순회연주회 성공기원 음악회를 열고 부산시민들에게 동북아시아의 해양 수도 부산의 위상을 드높이게 될 중국 순회연주회의 취지를 알린다.

제7회 부산국제 茶 어울림문화제

| 8월 31일-9월 2일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소극장, 대·중전시실 |



현대인의 생활 속에 깊숙하게 자리잡은 '차'를 재조명해보는 부산국제 茶 어울림문화제 2012년 축제가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부산문화회관 전역에서 펼쳐진다.

다른 어느 지역보다 차 문화를 즐기는 차인들이 많은 부산은 차의 소비, 차와 관련한 도자기, 차 관련 문화와 주변 물품 등이 다른 지역보다 수준이 앞선 우리나라 차 문화의 중심도시이다.

그런 자부심으로 올바른 차 문화를 전파하고 여유로운 삶의 재발견을 모토로 매년 펼쳐지는 부산국제차어울림문화제는 스트레스에 찌든 현대인들에게 '차'로 정신적 정화작용을 해주며 지역 축제로 자리잡아왔다.

올해는 '생활 속의 차 문화'를 주제로 다양한 전시, 행사들이 진행된다.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이뤄지는 '생활차'로 정착시키기 위해 차 문화가 가진 역사성을 조명해보는 이번 축제는 부산만의 독특한 차 문화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부산국제차어울림문화제는 전시행사와 강연, 행다 시연, 공연 행사 등으로 구성된다. 가장 많은 관심을 모으는 것은 한, 중, 일의 차문화를 비교할 수 있는 '동양유물전'과 '대만차' '일본차 (만복사, 대덕사중심으로)' '한일 양국의 차실꾸미기'. 그 외 올해는 특별히 우리나라 차의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우리나라 차의 시배지 하동과 하동차에 대한 면면을 조명해보는 코너가 새롭게 진행된다.

선고차인에 대한 조명도 빼놓지 않았다. 선고차인은 부산 뿐만 아니라 전국을 통해서도 차의 일상화에 지대한 공로가 있기에 부산 차인들의 숭앙을 받고 있으므로 매년 펼치고 있다.

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유명 차인의 강연도 펼쳐진다. 올해는 한국 효당본가 반야로 차도문화원 채원화 원장의 효당 최범술 선생의 생활 차살림에 대한 강연(9월 1일 13:00, 중극장)과 박근형 전남대 교수의 '차잎 및 차의 성분 그리고 차의 종류와 효능'(9월 2일 11:00, 중극장)이 펼쳐진다. 박근형 교수는 한국 차학회 초대 편집위원장, 한국차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전남 녹차특화작목산학협력단 단장으로 활동하면서 차 문화를 널리 보급하고 있다.

그 외 차시 백일장을 통해 입상한 작품들을 그림과 만나는 '차시시화전', '차실에 어울리는 회화전', 향로전, 동양유물 이미지전, 초대전 황산요, 일본 만복사, 대덕사의 조명, 대만차문화의 현실, 다식, 통과례상차림, 다화, 천연염색, 허경혜작품전, 두리차회, 차명상, 금당차문화시연, 차&춘앵전, 차 명상의 美, 차와 오케스트라, 숙우회 시연, 차&학춤 등 다양한 행사를 만날 수 있다.

입장료_ 대·중전시실 균일 1만원, 중·소극장 무료
문의_ (사)부산차문화진흥원(809-1551, www.busantea.kr)

청동의식용죽절함대



최첨단 시설을 자랑하는 뮤지컬 전문 공연장 소향아트센터

최적의 뮤지컬 공연관람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뮤지컬 전문공연장 소향아트센터가 지난 7월 20일 개관했다. 센텀시티 영화의전당 맞은편에 자리한 소향아트센터는 1,100여석의 좌석을 갖춘 2층 규모의 뮤지컬 전문공연장으로, 최첨단 시설로 개관전부터 화제가 되었다.

소향아트센터가 자랑하는 최첨단 시스템이 바로 잔향가변시스템과 공기정화 가습분무시스템. 잔향을 1~6초까지 조절해 장르에 맞는 최적의 음향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잔향가변시스템은 실내악과 관현악, 뮤지컬, 오페라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공연을 한 무대에 올릴 수 있어 진정한 의미의 다목적 공연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소리전달의 중요한 요소인 습도를 조절하는 공기정화 가습분무시스템은 건조한 겨울철에도 일정한 습도유지가 가능해 배우들에게는 쾌적한 무대를, 관객들에게는 고품격 음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최첨단 시설을 갖춘 곳은 국내에서도 서울두산아트센터나 디큐브 등 몇 곳이 되지 않는다.

또한 장방형 형태의 1층 객석 전체는 사각지대가 없는 우수한 객석환경을 자랑한다. 무엇보다 무대 전면에서부터 2층 객석 후면까지 거리가 28.5m로 무대거리가 가까워 더욱 생동감 넘치는 무대를 관람할 수 있다. 이밖에 Fly Batten, Stage Deck System 등 설비장치는 조명과 무대디자이너들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최첨단 시설 외에도 뮤지컬 전문 공연장으로 출발하는 만큼 기획과 운영에서도 전문가들이 나섰다. 국내 최초로 뮤지컬 학과를 설립한 동서대학교와 인터파크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인터파크가 기획과 마케팅을 담당한다. 극장장은 차순례 동서대학교 뮤지컬학과 교수가, 서울 예술의전당, LG아트센터에서 음향디자이너로 활약했던 송대영 씨가 총감독을 맡고 조명, 음향, 기계 등 각 분야의 스태프들도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전문가들이 맡았다.

뮤지컬 전문공연장인 소향아트센터가 개관함에 따라 앞으로 부산시민들은 지역무대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수준높은 뮤지컬 공연을 만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지역 투어 공연이 주말 2~3일만 공연하고 올라가던 관행에서 벗어나 장기공연으로 더 많은 관객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1. 소향아트센터 객석
2. 소향아트센터 무대
3. 개관기념 공연으로 관객과 만나고 있는 창작뮤지컬 '광화문 연가'
4. 소향아트센터 전경





그 첫 번째 작품이 바로 개관기념 공연으로 관객과 만나고 있는 창작뮤지컬 '광화문 연가'. '옛사랑' '깊은 밤을 날아서' '붉은 노을' '광화문 연가' 등 故 이영훈 작곡가의 히트곡으로 만든 뮤지컬 '광화문 연가'는 1980년대 광화문 거리의 라이브 카페를 배경으로 유명 작곡가 상훈과 그를 따르는 현우, 우연히 라이브 카페에서 만난 여주의 사랑이야기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펼쳐진다. 2011년 세종문화회관 초연에 이어 2012년 2차례에 걸친 앙코르 공연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으로, 외국 라이선스 뮤지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높은 흥행율을 보이는 국내 창작뮤지컬이라는 점에서 이번 개관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개관기념 공연에서는 윤도현, 조성모, 리사, 박호산, 김무열, 임병근과 함께 초연 멤버였던 송창의도 합류하면서 더욱 화려한 출연진으로 관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MR(녹음된 반주) 대신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함으로써 관객이 직접 소향아트센터의 최첨단 시설을 경험해 볼 수 있다.

이번 개관기념 공연은 8월 5일까지 계속되며,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3시, 7시 30분, 일요일 오후 2시, 6시 30분에 열린다.



각박한 세상에 아름다움 전하는 '시의 전령사' 풀잎시낭송회

“ 고색이 창연한 우리집에도
어느덧 물결과 바람이
신선한 기운을 가지고 쏟아져 들어왔다... ”

풀잎시낭송회 월례회가 열린 지난 7월 16일,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송도의 한 카페에 들어서자 유정숙 회원이 낭송하는 김수영 시 '나의 가족'이 울려 퍼진다. 스무명이 넘는 회원들로 가득한 카페는 어느새 청아한 목소리로 빛어내는 아름다운 시구로 가득 차오른다. 지난 2002년 영도구 영선2동 주민센터가 마련한 풀잎시낭송반에서 출발한 풀잎시낭송회는 지금은 시를 좋아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낭송 모임으로, 그동안 시낭송을 통해 '시의 전령사'로 각박한 세상에 아름다움을 전해왔다.



풀잎시낭송반 회원들은 해를 거듭하면서 각종 시낭송대회를 휩쓰는가 하면 시낭송 외에도 시극무대로까지 활동영역을 넓히며 '풀잎'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2007년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동아리부문 대상, 2008년 부산평생학습축제 동아리부문 대상을 수상하면서 그간의 활동을 인정받은 풀잎시낭송반은 수상을 계기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시낭송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전국풀잎시낭송대회'이다. 2008년 11월, 영선2동 자치센터의 지원을 받아 개최한 '전국풀잎시낭송대회'는 전국 최초로 열린 주민센터 주최의 시낭송대회로 당시 많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올해로 벌써 5회째를 맞는 '전국풀잎시낭송대회'는 풀잎시낭송회가 가장 신경을 쓰는 행사이다. 회를 거듭하면서 참가자 수도 점차 늘어나 지난해 제4회 대회에서는 전국에서 40여명이 지원해 예선을 거친 15명이 본선에 진출해 실력을 겨루었다. 올해 시낭송대회는 11월 16일 영도어울림문화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국풀잎시낭송대회'의 성공에 힘입어 다음해인 2009년 1월 드디어 풀잎시낭송회가 정식으로 발족했다. 매월 셋째주 월요일 영선2동 자치센터에서 열리는 월례회에 참석하는 회원은 모두 20여명. 40대 중반에서부터 70대까지 나이도, 하는 일도 다르지만 시를 사랑하는 마음과 시낭송에 대한 열정만큼은 모두 똑같다.

풀잎시낭송회는 한달에 한번 열리는 월례회 외에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고 있다. 올해는 7월 27일 신선중학교에서 열리는 돛자리콘서트에서 시극무대를 가지며, 9월 7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부산영도다리축제에서는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체험부스는 시낭송의 즐거움을 일반인들에게 직접 알릴 수 있어 지난해부터 부산영도다리축제 기간을 이용해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복지관과 점자도서관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도 꾸준히 가져오고 있다. 2007년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대상 수상을 기념해 시낭송 CD를 출판하기도 한 풀잎시낭송회는 지난 2010년 두 번째 시낭송 CD를 출판하기도 했다.

풀잎시낭송회는 청옥문학회, 시우문학회, 밀양 물푸레시낭송회 등 부산, 경남지역 문학회와도 활발한 교류활동을 가져오고 있다. 모처럼 자치센터를 벗어나 외부에서 모임을 가진 7월 월례회에서도 청옥문학회, 밀양 물푸레시낭송회, 재능시낭송회 회원들과 시인 문길, 정광일, 엄경덕, 이주영 씨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시와 가까이 하면서 회원들 중에는 시인으로 등단하는 경우도 있다. 회장인 권귀하 씨를 비롯해 권순자, 설현숙 씨가 지난 2008년 '낙동강문학'을 통해, 고사순 씨가 2011년 '부산문예시대'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다.

"아름다운 시어들이 마음을 정화시켜 내면의 깊이를 이끌어낸다"며 시낭송의 매력에 푹 빠져있는 권귀하 회장. 내년부터는 회원 뿐만 아니라 누구나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낭송회를 통해 시낭송의 즐거움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왔지만 권귀하 씨는 경주교도소 봉사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재소자라는 편견 때문에 처음에는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지만 점차 시를 통해 재소자들과 교감을 나눌 수 있었다는 그는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계속 가져나갈 계획이다.

시낭송반의 지도를 맡고있던 시낭송가 서랑하 씨의 적극 추천으로 풀잎시낭송회에 가입했다는 양은주 부회장. '시는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양은주 씨는 다른 회원과 차별화되는 허스키한 목소리 때문에 시극 무대에 자주 선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던 일본어강좌를 수강하던 중 시낭송가였던 당시 일본어강좌 선생과 의기투합해 시낭송반 개설을 요청했던 조숙희 회원은 풀잎시낭송반을 탄생시킨 숨은 주인공이다. "눈으로 읽는 것보다 소리내어 반복해서 읽다보면 감동과 깊이가 배가 된다"는 그는 일상 대화 속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시구절을 언급할 만큼 시 사랑에 흠뻑 빠져있다.

문의_ 풀잎시낭송회 회장 권귀하(010-9341-3403, cafe.daum.net/yspulip)



Review

제29회 부산음악콩쿠르 수상자 축하연주회

박진홍_음악평론가



● ● ● 7월 10일 화요일 저녁 7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는 제29회 부산음악콩쿠르 수상자들의 시상식과 축하연주회가 열렸다. 사실 수상자들이 연주하는 무대이기 때문에 축하연주회라는 타이틀 보다는 수상기념 연주회 정도가 맞지 않을까 생각하며 연주회장을 들어섰다. 이날 연주 팸플렛에는 반주를 맡은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연주 프로그램, 수상자와 수상자들의 본선 심사표 등이 친절하게 수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정작 대한민국 3대 음악콩쿠르에 속한다고 평가받는 부산음악콩쿠르의 의미나 역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올해로 29회째를 맞이하는 만큼 발전된 모습이나 그 동안 부산음악콩쿠르를 통해 배출된 우수한 연주자들도 많을 것인데 콩쿠르의 족적을 알리는 일도 의미 있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첫 번째 순서로 첼로 부문 1등 수상자인 배해인이 하이든 첼로 협주곡 2번의 1악장을 연주했다. 연주자는 하이든의 작품을 낭만주의적 시각에서 해석한 듯 원작보다는 더욱 다양한 감정 표현을 시도하였는데, 정확한 음정과 흐트러지지 않고 일관된 리듬의 표현을 보여주었으나, 작품이 가진 여러가지 표정을 만끽하기에는 다소 힘이 부족했다.

두 번째로는 클라리넷 부문 1등 수상자인 김상훈이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1악장을 연주했다. 객석까지 전달되는 소리를 고려하여 몸

과 악기의 움직임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는데 신인답지 않은 과감함과 테크닉으로 시향을 이끄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 모차르트 호른 협주곡 4번의 1악장이 김형주에 의해 연주되었다. 연주 초반 음정이 다소 불안정하였으나 곧 궤도를 찾아 무리 없는 연주를 선보였고 작품에 내재된 음악적 요구들은 효과적으로 잘 표현되었다. 반면, 곡의 세부적인 해석에서는 다소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자신의 음악에 대한 자신감과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부분이었다. 다음으로는 박규민이 연주한 생상스 바이올린 협주곡 3번의 3악장이었다. 이 작품은 웅장함과 서정, 느림과 빠름이 극명하게 대립되고, 그 안에서 매우 복잡한 감정의 변화를 가진다. 박규민은 각각의 감정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수시로 연주의 색채를 바꾸는 등 기교와 내면의 두 가지 면에서 매우 훌륭한 기량을 선보였다. 강한 자신감으로 간결함과 강렬함을 동시에 가진 활의 사용, 흔들림 없이 작품을 해석해 내는 모습이 기억에 남는 연주였다.

이어서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1악장과 3악장을 조현찬이 연주했다. 특히 빠른 패시지에서의 리듬 구사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연주였다. 트럼펫 연주에서는 다른 악기에 비해 특히 부드럽게 또는 강하게 이루어지는 고음의 처리가 원활한지가 좋은 연주의 관건이 되기도 하는데, 이날 연주에서는 비교적 이 두 가지가 잘 충족된 연주를 보여주었다.

마지막 순서는 김다예가 연주하는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의 제1악장이었다. 쇼팽의 작품이 어려운 이유는 비르투오조적인 테크닉의 완성과 쇼팽의 삶과 작품 속에 내재된 감정의 깊이에 대한 이해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테크닉적으로 매우 훌륭한 연주였고, 살아 있는 리듬과 함께 감정 표현의 중요한 테크닉인 루바토 역시 잘 표현되었다.

여섯 명의 1등 수상자들은 옛된 모습보다는 훨씬 깊이 있고 감동적인 음악을 선사해 주었다. 모든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전하며, 이날 객석을 메운 많은 사람들의 바람처럼 훌륭한 연주자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

런던올림픽과 스포츠 중계방송 해설의 내실화

남인용_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 ● 런던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매년 올림픽 때마다 그렇듯이, 한국 사람이라면 전세계 어디서나 우리나라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관전한다. 올림픽이 시작할 때까지도 무관심하던 우리 국민이 어느 순간 하나가 되는 희열을 느끼게 된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열망을 불태우는 일이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국가대항전 형식의 스포츠 행사 이외에 얼마나 더 있을까?

우리가 하나가 되는 마음을 갖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바로 스포츠 중계방송의 해설이다. 같은 화면을 보면서도 어떤 해설을 듣는가에 따라 시청자의 마음은 달라진다. 2006년 독일 월드컵 당시 독일 드레스덴에서 학회에 참석 중이던 필자는 독일 현지의 중계방송을 보게 되었다. 한국과 스위스의 경기에 대해 국내에서는 심판의 편파판정에 대한 비판이 화산처럼 끓어올랐지만, 이러한 국내의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독일어 중계방송을 알아듣기 어려운 것도 이유였지만, 제3자의 무미건조한 중계방송 또는 혹시 편을 들더라도 같은 유럽 국가이자 독일어 사용국가인 스위스를 편드는 중계방송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편파 판정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렇듯, 스포츠 현장의 영상을 그대로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설자

의 해설에 이끌려 스포츠 중계방송을 시청하게 되는 것이 스포츠 경기에 대한 보편적인 시청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스포츠 중계방송에서 해설은 취약하기만 하다. 올림픽과 같이 수많은 종목의 경기가 동시에 열리는 경우, 비인기 종목의 중계방송은 해설자를 구하는 것만으로도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인기 종목은 좋은 여건이라고 볼 수 있을까? 지난 동계올림픽 때의 제갈성렬 해설위원 파문에서 볼 수 있듯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고 해서 누구나 뛰어난 해설 능력과 방송 적응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수한 선수가 우수한 지도자 또는 우수한 해설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기반이 필요하다. 그러한 지원 없이 방송 해설에서의 실수를 빌미로 개인을 비난하기만 한다면 우리 스포츠 중계방송의 품격은 제고될 수 없다.

우수한 해설자를 갖기 위해서 단순히 해설자 양성 학교를 만든다고 될 일은 아니다. 스포츠 전반의 지적 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최근 논란이 된 김연아 선수와 황상민 연세대 교수 사이의 명예훼손 고소사건의 핵심은 우리나라 스포츠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뉴욕 닉스에서의 대활약으로 NBA 각 구단의 이적 제의를 받고 있는 대만계 농구선수 제레미 린은 하버드 대학 출신의 엘리트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우리가 스포츠 중계방송에서 듣게 되는 대부분의 해설은 정신력을 강조하며 객관적 전력 차이를 호도하거나, 승부에만 집착하여 스포츠맨십을 고려하지 않거나, 스포츠에 국운상승이나 지도자의 결단과 같은 정치적인 수사를 들먹이는 해설인 경우가 많았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피로한 방송이 되지 않고 유익하고 유쾌한 방송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스포츠 중계방송의 기반인 해설자 양성 교육을 활성화해야 하며 더 근본적으로는 학업과 경기를 정상적으로 병행하는 스포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통과 문화가
살아숨쉬는 맑은 도시 **청포**



1. 대비사 뒷편 산기슭에 조성된 부도전
2. 동창천이 흐르는 아름다운 절경속에 자리한 선암서원
3.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김달의, 김정하 씨와 함께한 미니 콘서트



새벽까지 무섭게 퍼붓던 장마비가 거짓말처럼 잦아든 지난 7월 13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76번째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7월의 테마여행지는 전통과 문화가 살아숨쉬는 '맑은 도시(淸道)' 청도. 이번 테마여행에는 부산시립합창단 김달의, 김정하 씨가 동행했다.

아침까지 오락가락 하던 비도 다행히 그치면서 정기회원 가족들은 한결 가쁜해진 마음으로 테마 여행지인 청도 여행길에 올랐다. 청도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문화유산해설사 김선희 씨가 정기회원들을 반갑게 맞는다. 문화유산해설사를 따라 처음 도착한 곳은 소요대 높은 바위 아래로 동창천이 유유히 흐르는 아름다운 절경 속에 자리한 선암서원.

선암서원은 조선 중기 문인이었던 소요당 박하담과 동시대의 유학자 삼죽당 김대유의 위패를 모신 곳으로, 본디 매전면 쪽에 있던 사당을 1577년 이곳으로 옮기고 선암서원이라 이름지었다. 선암서원은 대문채와 안채, 사랑채, 행랑채가 ㄱ자형을 이루고 있으며, 뒤편에는 선암서원 현판이 걸린 강당 건물인 소요당이 자리하고 있다. 소요당 뒤편 장판각에는 보물로 지정된 배자예부운략판목(排字禮部韻略板木)과 지방문화재인 해동속소학판목(海東續小學板木), 14의사록판목(義士錄板木) 등이 보관되어 있었으나, 한때 도난당해 일본으로 팔려가기 직전 되찾아 현재는 안동 국학진흥원에 보관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사랑채인 득월정이 전통고택 숙박체험관으로 말끔히 단장되면서 일반인들도 이 곳에 머물며 전통 한옥의 분위기와 아늑함을 즐길 수 있다.

그러나 가던 날이 장날이었던가, 현재 선암서원을 관리하고 있는 후손들이 마침 자리를 비우면서 서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소요대가 바라다보이는 서원 앞에서 해설사의 설명으로 아쉬움을 달래야 했다.

선암서원을 떠나 두 번째로 도착한 곳은 여든여덟간의 아름다운 고택인 운강고택 부속 정자인 만화정. 박하담 선생의 12대손 운강 박시묵 선생이 교육을 위해 1856년 건립한 만화정은 학생들이 학비와 숙식료 부담없이 오직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정자이다. 정자를 중심으로 한 ㄱ자형 평면으로 온돌방과 마루, 누마루로 구성되어 조선후기 정자의 특징을 따르고 있으며, 주변에는 오랜 역사를 증명하듯 수백 년 된 떡버들 나무와 수려한 소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어 정취를 더해준다. 만화정에 이어 예정되어 있던 임당고택은 복원공사로 방문이 힘들어 천년고찰 대비사로 발길을 돌렸다. 신라 진평왕 때 운문사에서 수도하던 한 신승(神僧)이 창건한 대작갑사, 가슬갑사, 천문갑사, 소작갑사, 소보갑사 등 다섯 개의 갑사 중 한 곳으로, 원래는 소작갑사였으나 대비갑사로 바뀐 뒤 대비사가 됐다고 전해진다. 대비사 경내에는 대웅전과 향로전, 요사채가 자리하고 있으며 산내 암자로 도솔암과 옥련암이 있다. 이 중 보물 제834호로 지정된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 맞배지붕 건물로, 대들보와 천장에 용, 꽃무늬 등이 화려하게 단청되어 있다.

테마가 있는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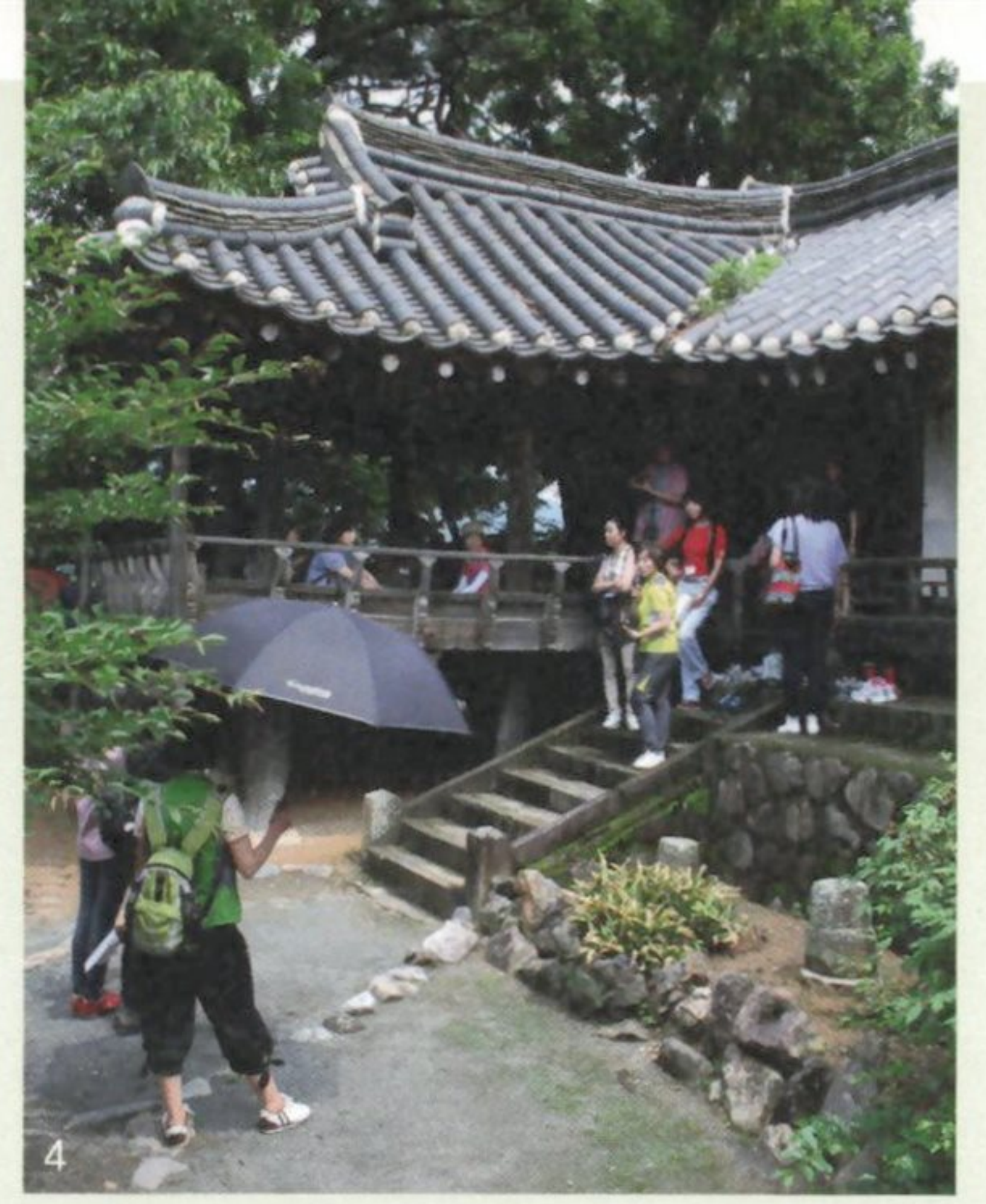
절 입구에서 계곡 건너 동쪽 산기슭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2004년 조성된 부도전을 만날 수 있다. 태능, 학린 등 고승대덕의 사리를 모신 부도 16기와 비 6기 등이 한자리에 모여 천년고찰 대비사의 오랜 역사를 기리고 있다. 부도전 뒤편 바위에는 최근 조성된 석가모니 불상이 자리해 부도전을 내려다보고 있다.

지난밤 폭우로 세찬 물줄기를 흘러보내고 있는 대비사 계곡 물소리를 뒤로 하고 맛있는 점심식사가 준비되어 있는 농촌체험관인 '농부와닷کم'으로 자리를 옮겼다. 폐교를 새롭게 정비해 농촌체험관으로 꾸민 '농부와닷کم'은 과일수확, 염색체험 등 다양한 농촌체험으로 도시인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

장작불로 지은 가마솥 밥에 디저트로 준비된 상큼한 자두까지 점심식사를 마친 정기회원 가족들은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김달의, 김정하 씨가 준비한 미니콘서트 무대를 관람하기 위해 체험관 건물 2층에 자리한 강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깜찍한 울동까지 곁들인 김달의 씨의 뮤지컬 '맘미아' 모음곡에 이어 김정하 씨의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주제곡 '지금 이순간', 그리고 듀엣곡으로 팝송 'You raise me up', 가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 '사랑으로' 등 아름다운 화음이 강당 내에 울려 퍼지자 회원가족들의 많은 박수가 쏟아졌다.

오후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던 자두따기 체험은 전날 내린 폭우로 취소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자두따기 체험이 취소되면서 원래 예정에 없었던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에 들렀다.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인 신도리에 자리한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은 새마을운동 과정과 변천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전시해놓고 있다.

테마여행 일정이 끝나고 버스에 올라타자 기다렸다는 듯 하늘이 다시 어두컴컴해진다. 장마 속 한줄기 햇빛처럼 7월 테마여행 역시 일상 속 행복한 하루로 정기회원 가족들의 가슴에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4. 윤강 박시목선생이 교육을 위해 건립한 정자 '만화정'
5. 새마을운동 발상지인 신도리에 자리한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
6. 신라 진평왕때 건립된 천년고찰 대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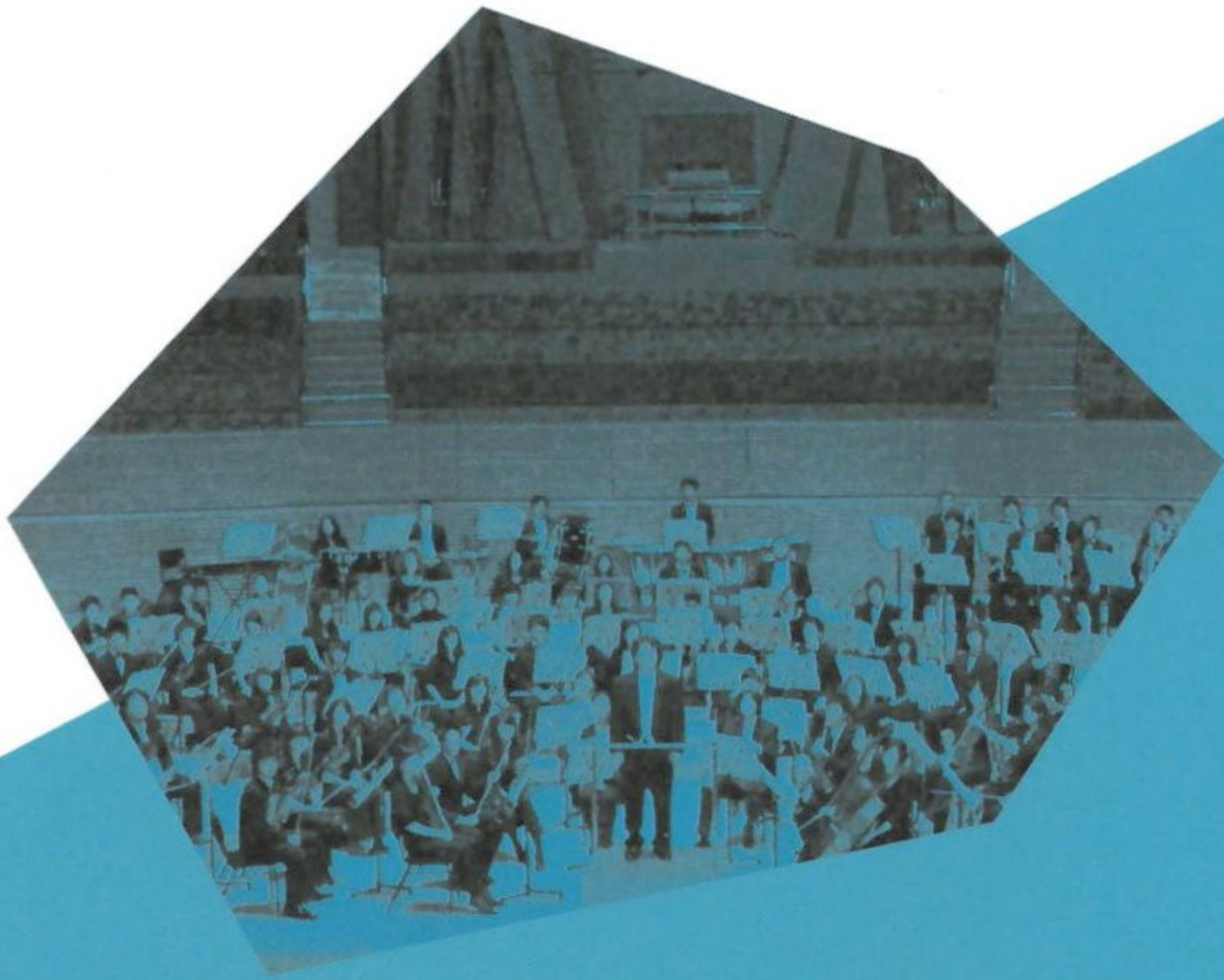
9월에는 **영천**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 또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당첨되신 분은 정기회원 본인을 포함해 2인이 부산시립예술포럼과 여행을 떠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엽서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
마 감 8월 15일
문 의 부산시립예술포럼 홍보마케팅부
(607-3103~4)

8월 테마여행 당첨자

| 엽서당첨자 | 신규가입자 |
|----------------|---------------|
| 고원준(금정구 사직동) | 김지연(북구 화명3동) |
| 김경애(서구 서대신동3가) | 남봉순(남구 대연동) |
| 김말선(사상구 덕포2동) | 박숙희(수영구 남천동) |
| 김미나(서구 초장동) | 박홍일(해운대구 좌동) |
| 김정묵(양산시 물금읍) | 배종만(서구 동대신동) |
| 김정화(사하구 하단1동) | 손순현(해운대구 좌동) |
| 박청숙(연제구 거제2동) | 오종아(금정구 장전동) |
| 손한경(서구 토성동) | 이성희(동래구 명륜동) |
| 송말남(연제구 거제1동) | 이영래(수영구 남천2동) |
| 윤예림(연제구 거제3동) | 이행욱(해운대구 우1동) |
| 이애지(해운대구 좌동) | 임영혜(남구 대연6동) |
| 이준엽(금정구 부곡동) | 전기웅(해운대구 중동) |
| 정익주(사상구 감정동) | 차용상(금정구 장전3동) |
| 정혜정(연제구 연산5동) | 최창선(남구 대연2동) |
| 천길순(수영구 광안1동) | 허지호(동래구 사직2동) |



Culture Life

부산시주요공연장안내

-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 금정문화회관 | 519-5651
- 동래문화회관 | 550-6611
-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 부산시민회관 | 630-5200
- 부산예술회관 | 612-1372
-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 영화의전당 | 780-6000
- 울숙도문화회관 | 220-5812~3
-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 AN아트홀 | 758-9035
-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 BS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 KBS부산홀 | 620-7181)
-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 SM아트홀 | 1600-1602
- 가마골소극장 | 1588-9155
- 가온아트홀 | 1600-1602
- 공간소극장 | 611-8518
- 글로벌아트홀 | 505-5995
- 디코소극장 | 464-1996
- 미리내소극장 | 504-2544
-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 숨사탕아트홀 | 922-4545
-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 아트카페 움 | 557-3369
- 액터스소극장 | 611-6616
- 에저또소극장 | 852-9161
- 용천지랄소극장 | 612-4312
- 일터소극장 | 635-5370
-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 초콜릿팩토리 | 621-4005

- 38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 44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 54 NEW MUSIC
- 55 NEW BOOK
- 56 SPECIAL MOVIE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재미 한인 청소년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8월 14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KAMF Seoul(010-9735-6364)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에 본부를 둔 재미 음악 문화재단(KAMF 회장 이숙현)이 재미교포 2, 3세들을 중심으로 창단한 재미 한인 청소년오케스트라 부산연주회. 지난 2008년에 이어 두 번째 고국방문연주회를 갖는 재미 한인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예술적 재능을 가진 교포 청소년들에게 오케스트라를 통해 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창단, 한인 교포 사회의 문화를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설립 당시부터 함께해온 김승주(지휘자, 바이올리니스트)의 지도아래 매년 수차례의 정기연주회를 가지며 꿈을 키워온 재미 한인 청소년오케스트라는 2009년부터는 LA 한인사회의 가장 큰 행사의 하나인 KYCC Benefit Concert를 맡아 연주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로 성장해가고 있다.

프로그램

- 오펜바흐/ '천국과 지옥' 서곡
- 베리오/바이올린 협주곡 제9번 가장조 작품 104
- 랄로/스페인 교향곡 작품 21
- 멘델스존/피아노 협주곡 제1번 작품 25 사단조
- 드볼작/교향곡 제 9번 작품 95 마단조
- 지휘/김승주(상임지휘자)
- 바이올린/장시은(울하초등학교 6년), 장민서(울하초등학교 4년)
- 피아노/김성현

어린이 영어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The Sound of Music)'

8월 15일-16일 수-목요일 오후 4:00,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꿈꾸는 아이(010-7503-6564)

영어뮤지컬 공연을 통해 예술적 감각과 창의력, 자신감을 키우고, 상황별 실용영어를 배울 수 있는 극단 꿈꾸는 아이의 영어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The Sound of Music)'.

- 연출/김성경 · 음악감독/서정아
- 출연/황서진, 차민재, 김연정, 현예준, 강혜린, 김성진, 차승민, 박세은, 박민지, 현예찬, 성지에 외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아크로스후쿠오카

ACROS String Ensemble 초청공연

8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 S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학생 5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607-6058)



2009년부터 부산문화회관과 꾸준히 문화교류 사업을 진행해온 일본 아크로스후쿠오카가 자랑하는 '아크로스 스트링 앙상블' 초청공연.

친밀하면서도 정교한 스트링 앙상블을 구사하는 아크로스 스트링 앙상블은 2004년 도쿄음악대학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카게야마 세이지를 중심으로 창단, 야마모토 모시게(바이올린), 타나카마 사히로(첼로), 요시다슈(콘트라베이스) 등 일본 내 유명한 연주가와 큐슈시포니 단원 등 재능있는 젊은 바이올리니스트들이 모여 후쿠오카 심포니홀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부산공연에서는 부산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문주연이 협연 및 객원단원으로 출연, 양국의 우호 증진 및 자매도시간의 문화교류의 장을 펼친다.

프로그램

- 로시니/현을 위한 6개의 소나타 6번
- 바흐/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BWV 1043
- 비발디/4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RV 553
- 그리그/두개의 슬픈 멜로디 작품 34
- 수크/현을 위한 세레나데 등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8월 17일 금요일 오전 11:00, 오후 4:0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방학을 맞은 청소년과 학부모들을 위한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금난새와 함께 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대표적인 간판 프로그램인 금난새와 함께 하는 '클래식은 내친구'는 음악계의 스타 지휘자 금난새를 초청, 특유의 재치있고 해박한 해설로 청소년들이 클래식 음악을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한 인기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마림비스트 황세미와 촉망받는 클래식 기타리스트 조정태의 협연으로 교과서에서만 만나던 클래식 명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 주페/ '경기병' 서곡
- 비발디/ '사계' 중 '겨울'
- 로드리고/아랑훼즈 협주곡 중 제2악장 등
- 지휘 및 해설/금난새(유라시안 필하모닉 CEO, 인천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 협연/황세미(마림바, 독일 Staatliche Hochschule für Musik Und Darstellende Kunst Stuttgart 재학), 조정태(클래식기타, 서울예고 3학년)

제14회 원로음악회

8월 17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원로음악가회(010-2705-0366)

부산음악계를 이끌어온 원로 음악인들과 후배 음악인들이 함께 하는 부산원로음악가회 제14회 원로음악회.



소프라노 김문희, 작곡가 김종태, 전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김태윤, 홍용신 등이 후배 음악인들과 호흡을 맞춘다.

프로그램

이수인/내맘의 강물
베르티/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애 그이인가'

김종태/무심한 자연이 그리워서
포퍼/헝가리안 랍소디
가야금병창/홍보가 중 '제비노정기' 등 수곡
출연
김문희(소프라노), 김종태(작곡), 김태윤(바순), 홍용신(클라리넷), 고정화(피아노), 유영욱(피아노), 양욱진(첼로), 손욱(베이스) 외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Vol.29 '페퍼톤스'

8월 17일 금요일 오후 8:0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 부산문화회관(607-6058)



하늘아래 그 콘서트 3주년을 맞아 청중들에게 가장 큰 인기를 모았던 '페퍼톤스'가 하늘아래 그 콘서트 29번째 주인공으로 부산을 찾는다.
2003년 KAIST 전산과 동기 신재평과 이장원이 '우울증을 위한 뉴테라피 2인조 밴드'라는 슬로건으로 결성한 페퍼톤스는 2004년 3월, 카바레사운드에서 첫 번째 EP 'A Preview'를 발매한 것을 시작으로 2005년 4월 디지털 싱글 'April Funk', 2005년 12월 첫 번째 정규앨범 'Colorful Express'를 발매했다.
2008년 3월 두 번째 정규앨범 'New Standard', 2009년 12월 세 번째 정규앨범 'Sounds Good!', 2012년 4월 네 번째 정규앨범 'Beginner's Luck'을 발매한 페퍼

톤스는 앨범 발매기념 콘서트를 비롯해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등에 출연하며 꾸준히 인기몰이를 해왔다.
페퍼톤스는 제4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댄스 일렉트로닉 싱글부문상(2007), 뷰티풀 민트 라이프 최고의 공연상(2012)을 수상한 바 있다.

부산의치대관현악단 제40회 정기연주회

8월 18일 토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의치대관현악단(010-4710-2899)



부산대학교 의과대학과 치의과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구성된 부산의치대관현악단의 제40회 정기연주회. 1973년 9월 열정적인 의대생들이 모여서 '부산챔버오케스트라'로 출발, 40년의 역사를 이어온 부산의치대관현악단은 힘든 학업과 음악을 병행하면서 단순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에서 탈피해 동료 선후배들 간의 교류의 장, 대중과의 소통의 창구로 음악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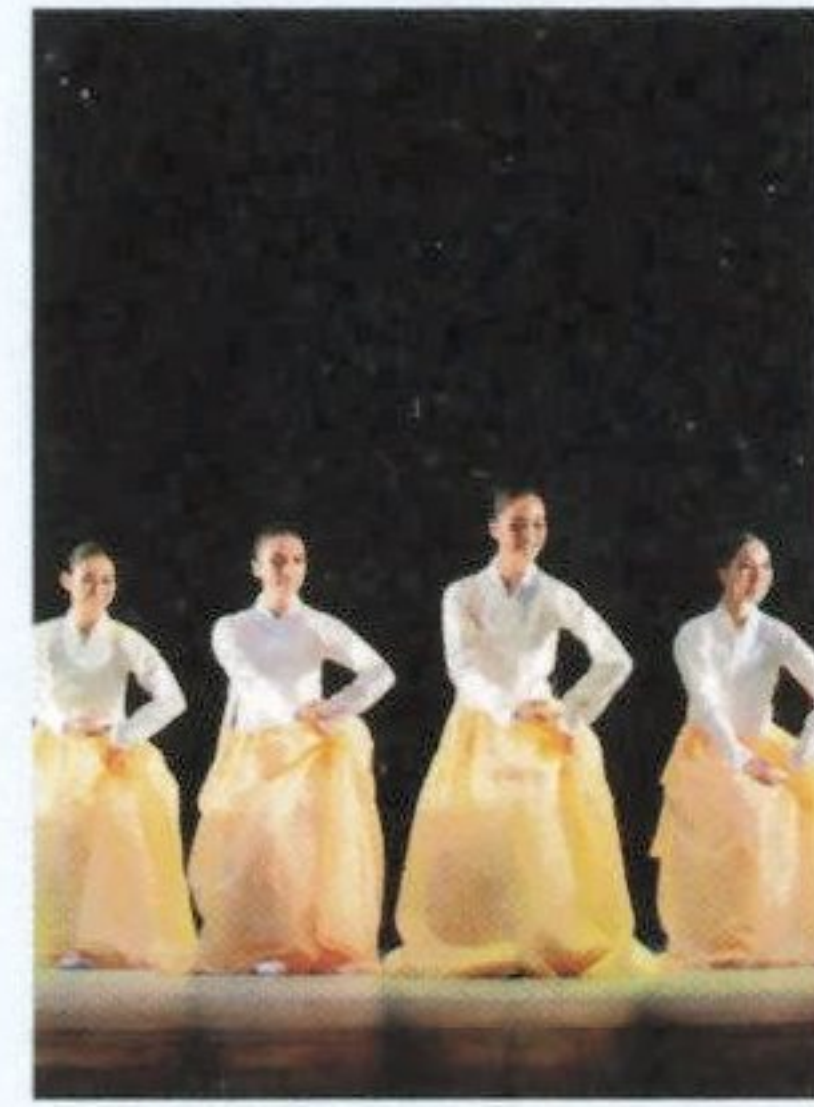
프로그램

- 베토벤/에그몬트 서곡 작품 84
- 베토벤/피아노 협주곡 제1번 다장조 작품 15
- 베토벤/교향곡 제7번 가장조 작품 92
- 지휘/조희영(관현악단 OB단원), 박진(울산시립교향악단 단원, 부산의치대관현악단 지휘자)
- 협연/김규리(부산의치대관현악단 38기 단원)
- 단장/김태우(38기 단원) · 악장/이정민(38기 단원)

2012 브니엘예술고등학교 무용발표회

8월 21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박주현(010-3575-2989)

브니엘예술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무용부 학생들이 그동안의 수업을 되돌아보며 마련하는 열정의 무대.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장르별 고전, 창작무대를 선보인다.

프로그램

한국무용 '숲의 대화' '풍경' '쟁강춤' '삼고루'
현대무용 '로사스(Rosas)' '부메랑(boomerang)'

발레 '파키타(Paquita)'
· 총연출 및 지도/현임숙
· 현대무용 안무, 지도/박주현
· 발레 재안무, 지도/손선경
출연
강지윤, 김필정, 박송규, 박체빈, 성소진, 신소정, 심정미, 양채원, 이소현, 이연진, 이현아, 정미소 외

부산시립무용단 2012 한여름 밤의 춤 작품전 -마음을 이야기하다-

8월 21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www.koreanfolkdance.com)



부산시립무용단의 두 명의 젊은 안무자들이 자신만의 춤 언어와 몸짓을 통해 빚어낸 신작을 선보이는 '한여름밤의 춤 작품전'.
올해는 가장 소외된 각설이를 통해 인간들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속악한 현실에 대한 한과 울분을 현대적으로 각색한 김진영의 '춤방귀', 인간의 내적 갈등을 'Black Dress'로 담아낸 안주희가 그동안 부산시립무용단 정기공연에서 선보이지 못한 개성넘치는 춤사위로 무용애호가들과 만난다.
김진영과 안주희는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이수자, 승무전수자로 우리춤의 맥을 잇고 있다.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작품

춤방귀(대본, 안무/김진영 · 연출/이성원 · 출연/정진희, 김경미, 김도은, 김시현, 황동하, 장영진, 박미나, 김진영 · 특별출연/타악 퍼포먼스 공연집단 the, 부산시립극단 단원 정행심)

Black Dress(대본, 안무/안주희 · 연출/김미란 · 출연/안주희 · 특별출연/김주연, 강모세, 이상민)

· 예술감독/홍기태(수석안무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8월 23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A석 2만원 · B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4)



김철호

양우석

김범룡

매년 여름, 한여름 밤의 무대위를 흥겨운 국악선율로 씻어주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국악의 한계를 벗어나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즐거움을 선사하는 2012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는 수석지휘자 김철호 지휘, TBN 교통방송 아나운서 김지현의 사회로 창작국악관현악 '거울나라', 시원한 여름 노래와 관현악, 창작판소리 '흥부가' 중 '박타령', 대중가요와 국악관현악, 흥겨운 민요 등으로 특별한 여름을 선사한다.

프로그램

이경섭/국악관현악 '거울나라'

박선영(편곡)/시원한 여름노래와 관현악-여행을 떠나요, 해변의 여인, 해변으로 가요, One Summer Night, Surfin U.S.A.

이경섭/창작판소리 '흥부가' 중 '박타령'

백규진(편곡)/대중가요와 국악관현악-바람 바람 바람, 현아, 친구야

이지영/성악창작곡 '시연가'

백규진(편곡)/흥겨운 민요 한강수타령, 몽금포타령, 천안삼거리, 강원도아리랑,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너영나영, 뱃노래, 자진뱃노래

· 지휘/김철호(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 사회/김지현(TBN 교통방송 아나운서)

· 협연/양우석(노래), 신영미(노래), 정선희(소리), 박성희(소리), 김범룡(노래), 최윤영, 김세윤, 이은혜(이상 민요)

· 객원출연/윤혁성(드럼), 정우진(베이스기타), 김한나(신디사이저), 박현준(첼로)

부산예술아카데미연구회 제5회 정기연주회

8월 23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3천원

문의 | 노은주(010-2565-9780),

이혜경(010-2881-5921)

부산대학교 최정순 명예교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창단된 부산예술아카데미연구회가 들려주는 제5회 정기연주회 '청소년음악회'.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해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여러 분야의 음악가들이 클래식 뿐만 아니라 귀에 익은 다양한 음악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시마노프스키/바이올린 소나타 9번

구노/보석의 노래

라라/그라나다

드보르작/슬라브닉 댄스, 피아노트리오 '똥키'

영화음악 모음곡/오버 더 레인보우 등 수곡

출연

이은경(소프라노), 윤희원(바리톤), 김은희, 주은정, 성민주, 이혜경(이상 피아노), 박경리(리코더), 고충진(기타), 김선영(플룻), 박경희, 이민지(바이올린), 전명희(첼로) 외

김선영(플룻), 박경희, 이민지(바이올린), 전명희(첼로) 외

부산시립극단 제44회 정기공연

고도를 기다리며

8월 23일-25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0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부산시립극단(607-3151~2)



8월 예술감독 체제로 새롭게 출발한 부산시립극단의 제 44회 정기공연 '고도를 기다리며'.

'현대의 고전'으로 세계 연극사에 큰 영향을 준 '고도를 기다리며'는 '고도'라고 불리는 인물을 기다리는 두 부랑자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의 대화로 이루어진 작품으로 세계연극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고도를 기다리며'의 등장인물들은 시간과 환경 밖에 있는 인물, 사회적 운명과 개인의 구별을 떠나 지상에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무대에 놓여진 인물이다.

부두연극단, 액터스 소극장 대표로 있는 S. 베케트 극 전 문연출가 이성규가 1998년 이후 오랜만에 부산시립극단과 호흡을 맞추는 이번 무대는 연출가 이성규가 네 번째로 '고도를 기다리며' 연출에 도전, 기존 작품과 다른 해석으로 관객과 만날 계획이다.

· 원작/S.베케트 · 번역/서정철

· 연출/이성규

출연

이혁우(에스트라공), 황창기(블라디미르), 윤준기(뽀쵸),

김정원(럭키), 전지은(소년)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부·울·경 3개 시·도 교류음악회

'한여름 밤에 듣는 꿈의 남성합창'

8월 24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8월 21일 화요일 오후 8:00 울산문화예술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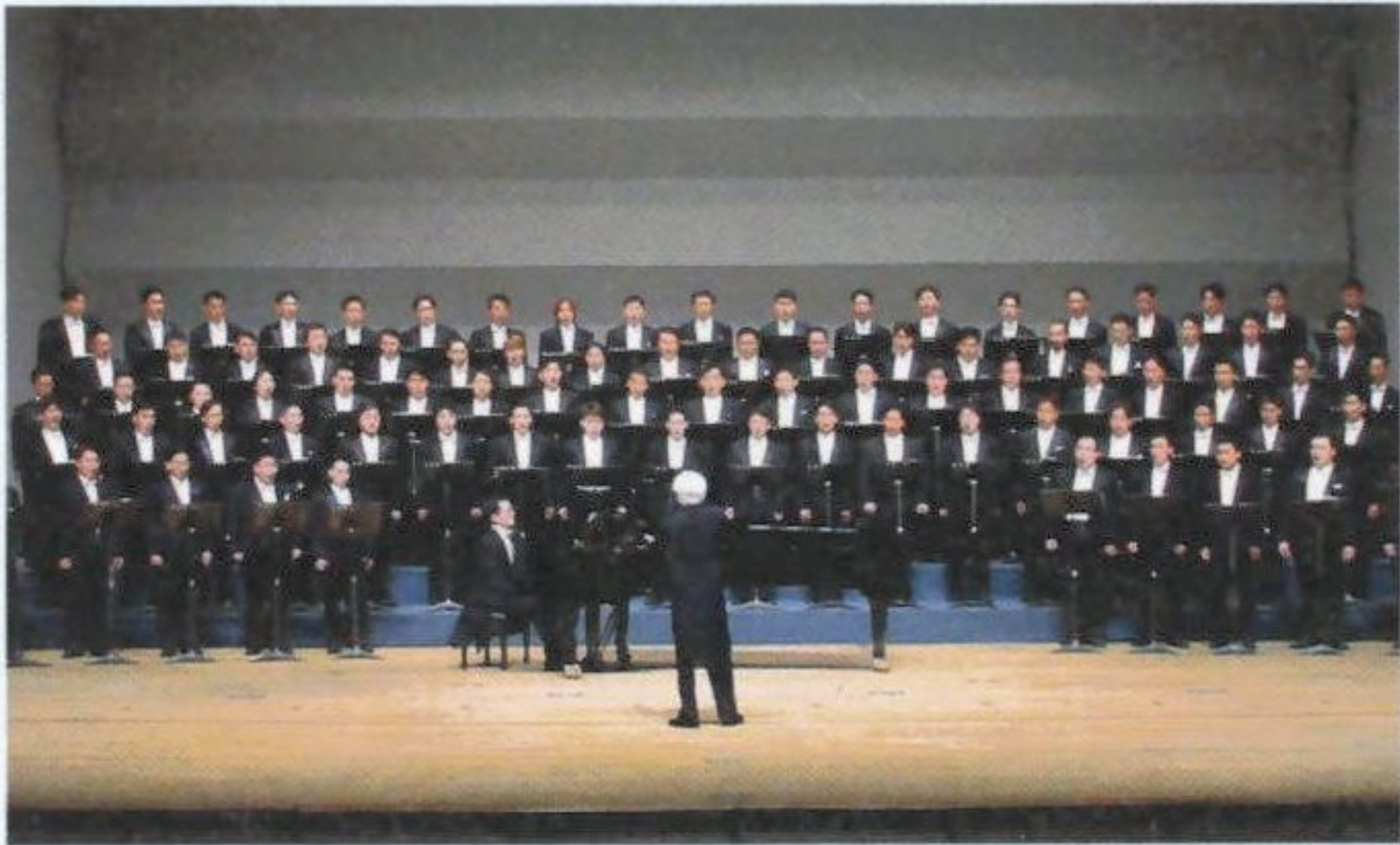
8월 22일 수요일 오후 7:30 마산 3·15아트센터)

입장료 | 균일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청소년 3,000원)

문의 |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부산·울산·경남의 문화 예술 교류를 위해 2001년부터 매년 여름 즐거움을 선사해온 3개 시·도 교류음악회 '한여름 밤에 듣는 꿈의 남성합창' 2012년 무대. 올해는 2012년 울산시립합창단 지휘봉을 잡은 상임지휘



자 구천의 지휘로 부산, 경남의 음악애호가들에게 중후한 남성합창의 매력을 전한다.

서울예고와 베를린 음대를 졸업하고 유럽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경남팝스오케스트라 단원 일렉 첼리스트 주린, 울산시립합창단의 여성합창단이 특별게스트로 무대에 오른다.

프로그램

브람스/Gaudeamus Igitur

베토벤/Ich liebe dich

김희갑/향수

우덕상/눈 내리는 정자바다, 그대 눈 속의 바다

정덕기/북어, 와인과 매너

김준범/산 낙지를 위하여

이선택/희망은 아름답다, 목련꽃

POP합창/Yesterday Once more 등 수곡

· 지휘/구천(울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 특별출연/일렉 첼리스트 주린(경남팝스오케스트라 단원), 울산시립합창단 여성합창단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관현악단 제21회 정기연주회

8월 24일 금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장은정(010-2385-3852)

동아대학교 의과대학생들로 결성된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관현악단(D.M.C:Dong-A Medical Chamber Orchestra)의 제21회 정기연주회.

힘든 학업 중에도 음악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음악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프로그램

브람스/대학축전 서곡

드볼작/교향곡 8번

멘델스존/바이올린 협주곡

· 지휘/김하균

· 회장/장은정

· 악장/고지연

부산원음합창단

'한국국악관현악단 초청 함께하는 국악여행'

8월 26일 일요일 오후 2:3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원불교 부산교구(245-0717)

국악의 대중화, 국악의 콘텐츠화, 국악의 세계화를 목적으로 창단된 이래 실내악, 관현악, 성악 등 다양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국악관현악단을 초청, 부산원음합창단과 함께 들려주는 '함께하는 국악여행'.

프로그램

초청의 서곡 봄바람에 달이뜨면(부산원음합창단)

국악관현악 '신벚놀이' '방황'

해금협주곡 '추상'

거문고 중주 '출강'

창과 관현악 '쑥대머리' '배 띄워라'

국악가요 '인연' '짚레꽃' '아름다운나라'

전자바이올린 협연 '고구려의 혼'

합창과 관현악 '발원' '일상수행요법'

· 지휘/이정규(상임지휘자)

고신의대관현악단 제17회 정기연주회

8월 27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고신의대관현악단(010-2872-8905)



1993년 고신의대 재학생으로 결성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고신의대관현악단의 제17회 정기연주회.

고신의대관현악단은 매년 정기연주회를 가지면서 음악을 단순한 취미생활이 아닌 환우들과 삭막한 의료계와 공유하며 부산 음악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프로그램

오펜바흐/ '천국과 지옥' 서곡

베토벤/교향곡 제7번

차이코프스키/백조의 호수 모음곡-1곡 정경, 2곡 왈츠, 3곡 작은 백조들의 춤, 8곡 마주르카

· 지휘/황장수

부산예술고등학교 무용 정기공연

8월 29일 수요일 오후 7:00 **대극장**

문의 | 부산예술고등학교(011-9147-2733, 514-1230)



부산예술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무용학도들의 꿈과 열정을 담은 무용 정기공연 무대.

부산예술고등학교 무용교육부장 성은지의 총 안무, 연출로 창작무 '태양을 입다'를 선보인다.

· 총 안무 및 연출/성은지

출연

김옥진, 송수현, 양병현, 여지민, 이다솔, 이정희, 정지우,

조은채, 권오준, 김보은, 노태형, 선희규, 송새미, 송주원,

이선진, 이정연, 장승연, 조단비, 최지훈 외

부산 MBC 제1136회 목요일음악회

International Players of Busan 창단연주회

8월 30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미정)

문의 | IPB(010-9182-4930)



부산과 부산 인근 도시의 실력있는 현악기 연주자들로 구성된 실내악단 IPB(International Players of Busan)의 창단연주회.

'한국에 또 하나의 실력을 갖춘 실내악단의 탄생'을 목표로 의욕적으로 결성된

IPB는 교향악단에서의 풍부한 연주경험을 바탕으로 한 중견 연주자와 음악 본고장에서 유학을 통하여 실력을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쌓은 연주자 14명으로 창단되었다. IPB는 지휘자와 악장은 두지 않고 초청악장제도를 도입, 악장이 중심이 되어 프로그램 구성과 연습, 연주를 진행한다.

창단연주회에서는 London Symphony Orchestra의 악장 토모 켈러가 객원악장으로 참가한다.

프로그램

바흐/브란덴부르크협주곡 제3번 사장조 BWV 1048

오세일/스트링오케스트라와 피아노를 위한 'A Family' 사라사테/지고이네르바이젠 작품 29

· 객원악장/토모 켈러(런던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

· 연주/이리나, 이기중, 이광식, 방효준, 강선혜, 박민경, 장은아(이상 바이올린), 김기영, 임정은, 정희경(이상 비올라), 양옥진, 김기도(이상 첼로), 박희철(베이스), 정성흡(피아노)

2012 부산국제차어울림문화제

8월 31일-9월 2일 **중극장, 소극장, 대** · 중전시실
 입장료 | 대·중전시실 1만원, 중·소극장 무료
 문 의 | (사)부산차문화진흥원(809-15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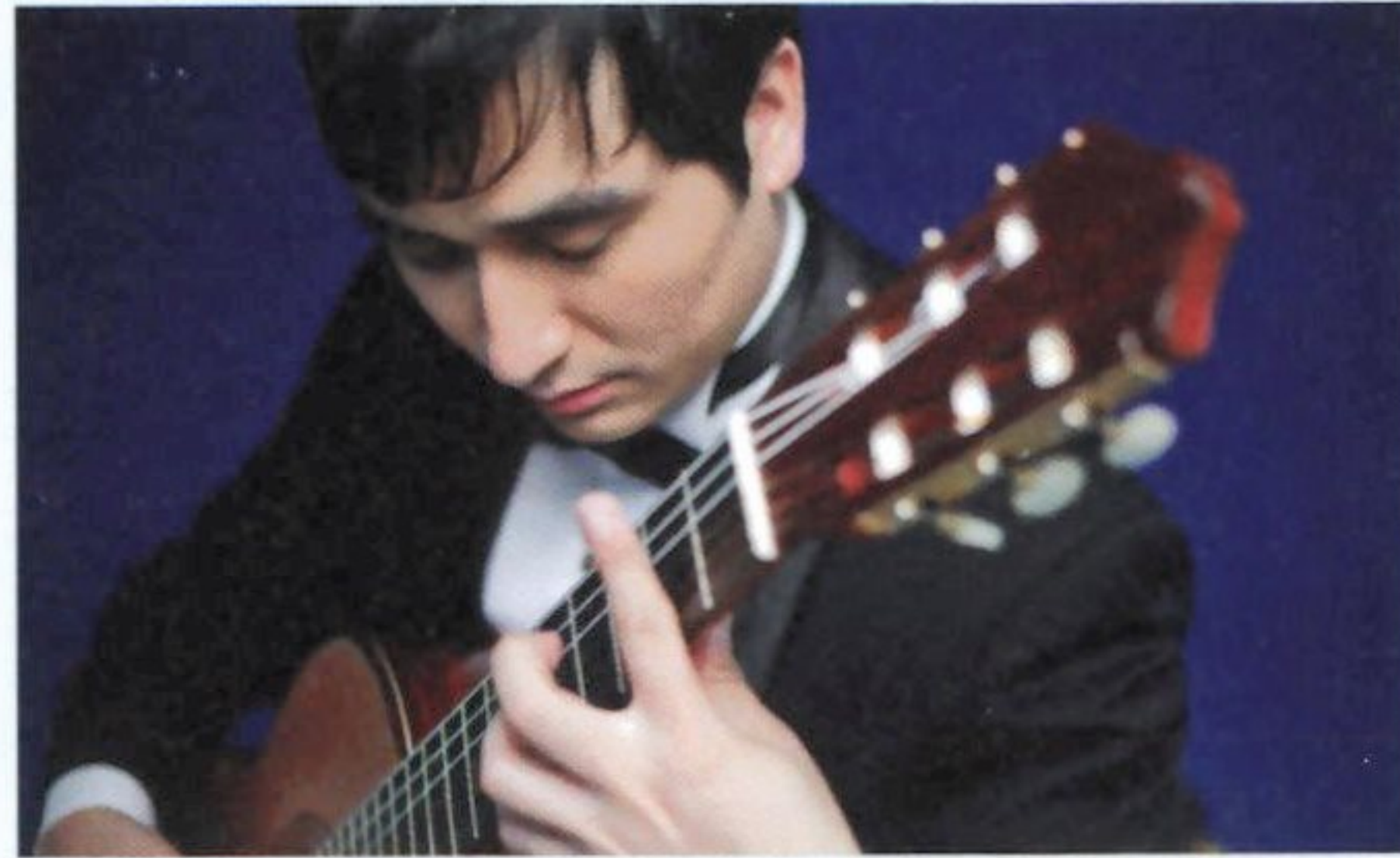


갈수록 다양해져 가는 차 문화를 올바르게 전파하고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 개최되는 '부산국제차어울림문화제' 2012년 행사.

올해는 '생활 속의 차 문화'를 주제로 '동양유물전', '대만차' '일본차(만복사, 대덕사중심으로)' '한일 양국의 차살꾸미기', 선고차인에 대한 조명, 채원화의 효당 최범술 선생의 생활 차살림에 대한 강연, 박근형 전남대학교수의 '차잎 및 차의 성분 그리고 차의 종류와 효능', 차시백일장, 차시시화전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전장수 클래식기타 독주회

8월 31일 **금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WE MUSIC(031-321-8958)



서울고등음악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일대학교 음악대학원, 프라이너음악원, 비엔나 국립음악원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클래식 기타리스트 전장수 부산 독주회.

전장수는 뉴욕 카네기홀 독주회를 비롯해 KT오케스트라, 청주시립오케스트라, W 오케스트라, 뉴 함부르크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무대를 가진 바 있다.

프로그램

다울런드/판타지 작품 7

소르/그랜드 솔로 작품 14

바흐/사콘느 BWV 1004

박용실/우락(羽樂)

전장수/독도의 사계 중 여름(한국 초연) 등 수곡

BN그룹 · 대선주조와 함께하는 제5회 대한민국 기업사랑 음악회

9월 1일 **토요일** 오후 3:30, 7:3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10만원 · R석 7만원 · S석 5만원
 문 의 | KNN(1577-7600)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음악으로 보답해온 BN그룹 · 대선주조의 대한민국 기업사랑 음악회. 유려한 음악적 카리스마로 각광받고 있는 오충근이 지



지휘 오충근



바이올린 클라라 주미 강

휘하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는 얼짱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이 부산음악애호가들과 첫 만남을 갖는다.

1987년 독일 만하임에서 태어난 클라라 주미 강은 네 살에 최연소 나이로 만하임 국립음대 예비학교에 입학해 발레리 그라도프를 사사했다. 다섯 살에는 함부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데뷔연주를 가졌고 일곱 살에는 줄리어드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해 이착 펠만과 나이젤 케네디, 사라 장을 길러낸 도로시 딜레이를 사사하였다.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국립음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을 거쳐 현재 뮌헨 음대에서 최고연주자 과정을 밟고 있는 클라라 주미 강은 2010년 9월, 세계 3대 바이올린 콩쿠르로 불리는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우승을 시작으로 일본 센다이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우승, 2009년 제5회 서울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우승 등 참가하는 콩쿠르 마다 1위 자리를 놓치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프로그램

파가니니/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작품 8

스트라우스/교향시 돈주앙 작품 20 등 수곡

- 지휘/마에스트로 오충근
-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 협연/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



YAMAHA · KAWAI · STEINWAY
 PIANO DIRECT IMPORT
 TUNNING & REPAIRING

PIANO TECHNICIAN
CHO, HYUN SEOK R.P.T.
 INTERNATIONAL REGISTERED PIANO TECHNICIAN
 (국제자격 피아노조율사)
 NATIONAL FIRST LEVEL PIANO TECHNICIAN
 (국자자격 1급 조율사)
 THE DEPARTMENT OF MUSIC COLLEGE OF ARTS,
 PUSAN NATIONAL UNIVERSITY
 (부산대학교 전속 조율사)
 STEINWAY PIANO 기술연수 수료

Tel. 051-553-4277
 051-753-8963
 H.P. 010-9003-8963



부산시립무용단 처용무



부산시립무용단 설장고춤



예현전통예술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토요상설무대

토요일 오후 4:00 중극장, 소극장

입장료 | 무료(선착순, 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문의 | 부산문화회관(607-6056)

8월 18일 소극장 부산시립무용단 공연

처용무(춤/이정식)

태평무(춤/황선희 · 수석단원)

동래학춤(춤/장래훈)

흥타령(춤/허태성)

사랑가(춤/권봉정 · 부수석단원, 류권홍)

성주허튼춤(춤/이현숙)

설장고춤(춤/김공주, 김윤희)

8월 25일 중극장 예현전통예술단 공연 '열사가'

도살풀이(춤/정연임)

이준의사 열사가(소리/정선희 · 고수/신호수)

안중근의사 열사가(소리/정선희 · 고수/신호수 · 아쟁/정효선 · 거문고/전현진)

'훈' (피아노/김경민 · 베이스/김유성 · 드럼/윤혁성)

윤봉길의사 열사가(소리/정선희 · 고수/신호수 · Jazz Bridge)

9월 1일 소극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수제천(집박/채수만 · 대금/엄익준, 강은주, 강영진 · 소금/조은경 · 피리/박춘석, 강영현, 권미

정 · 해금/김민정, 정수경, 최유리 · 아쟁/권혜정, 박일 · 장구/이장우 · 좌고/박재현)

피리산조 '서용석 류' (피리/최요셉 · 장구/송강수)

김용실/거문고 중주 '출강' (거문고/전혜정, 한정임, 이유진, 전현진)

흥겨운 민요(민요/박성희, 정선희 · 대금/한영길 · 피리/김경수 · 해금/방병원 · 아쟁/최영훈 ·

가야금/정미자 · 거문고/오상훈 · 장구/송강수)

사물놀이(팽과리/이주현 · 장구/전학수 · 징/최오성 · 북/김명진)

· 지휘/김철호

· 해설/전현진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Music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519-5651)

▶1일 고경숙, 김지민 피아노 듀오의 밤



고경숙 김지민
 피아니스트 고경숙과 김지민이 마련하는 피아노 듀오의 밤.
 · 해설/김윤선

▶8일 부산우드윈드앙상블

‘내 악기를 소개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각기 다른 특성의 악기를 상세한 해설과 연주로 들려주는 부산우드윈드앙상블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내 악기를 소개합니다’ 여섯 번째 무대.

프로그램

스트라우스/안넨폴카
 쇼스타코비치/모음곡 중 ‘왈츠’
 멘시니/아기코끼리 걸음 등 수곡
 · 찬조출연/박경렬(트럼펫), 이용우(트롬본), 송태진(튜바)
 · 해설/박은아

▶22일 바리톤 고봉수와 좋은 친구들

바리톤 고봉수와 부산지역 성악가들이 함께하는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무대.
 우리 귀에 친숙한 국내외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를 상세한 해설과 함께 들려준다.
 · 출연/소프라노 신정순, 엄남이, 김수진, 강태경, 메조소프라노 이민정, 바리톤 고봉수, 해운대 노이여성합창단
 · 피아노/이경미, 김신정
 · 해설/오동주

▶29일 길명훈 플루트 리사이틀

헝가리 부다페스트 Liszt Ferenc Zeneművészeti Egyetem를 졸업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플루티스트 길명훈 초청무대.

프로그램

플라티/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마단조
 이베르/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도플러/헝가리 전원환상곡 작품 26 등
 · 피아노/이승윤 · 오보에/사타 메이코
 · 해설/박은아

아트카페 움 목요일음악회

매주 목요일 오후 8:00 아트카페 움
 입장료 | 무료
 문 의 | 아트카페 움(557-3369)

▶2일 퓨전밴드 파이브 플라워의 CCM과 퓨전의 여름밤

2006년 대한민국 게임영상음악제 대상, 2007년 통영국제음악제 프린지 개막공연 라이징 스타상을 수상한 퓨전밴드 파이브 플라워의 퓨전 크로스오버 콘서트.

▶9일 베이스 문동환, 테너 최현규 TWO 보컬리스트 콘서트

현재 부산시립합창단, 보이싱싱어즈 남성앙상블 단원으로 활동중인 베이스 문동환과 Wiener Volksoper 단원, 비엔나 콘서바토리움 교수로 있는 테너 최현규의 무대.

▶16일 테너 최현규 독창회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오스트리아 그라츠 국립음대, 비엔나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비엔나 콘서바토리움 교수로 있는 테너 최현규 독창회.

▶23일 강나래 플루트 연주회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립음대와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수석으로 활동 중인 플루티스트 강나래 독주회.
 · 피아노/석유경

▶25일 팝페라 가수 테너 강신주 콘서트

한양대학교 성악과와 미국 메네스음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서울종합예술학교 실용음악학부 전임교수로 있는 팝페라가수 강신주의 팝페라 콘서트.

▶30일 베이스 박기범, 소프라노 노미숙 2인 독창회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동문이자 부산성악아카데미 회원으로 활동중인 베이스 박기범, 소프라노 노미숙의 무대.

2012 세계민속악기박물관과 함께하는 제4회 세계악기 여름페스티벌

8월 3일 금요일 오후 7:00 용두산공원 야외무대
 입장료 | 무료
 문 의 | 세계민속악기박물관(245-5025)

세계 각국의 다양한 민속악기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세계악기 여름페스티벌.

· 출연/라메르오케스트라, 국악그룹 뮤직팩토리 ‘라라’,
 · 박은진, 소리연, 아쿠아스틱월드, DO dream,
 컨디션 난조, 콤바야, 김익현(사회)

국립부산국악원 토요일신명무대 우리소리 우리춤

매주 토요일 오후 4: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균일 6천원
 문 의 |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4일 프로그램

대취타, 산조춤, 남도민요 ‘신벚노래, 동해바다’, 부채춤, 가사 ‘수양산가’, 좌수영어방놀이, 판국

11일 프로그램

삼고무, 수롱음, 동래학춤, 경기민요 ‘구아리랑, 양산도, 울산아가씨’, 밀양백중놀이 중 ‘오복춤, 범부춤’ 등

18일 프로그램

가인전목단, 판소리 ‘수궁가’ 중 ‘고고천변’, 살풀이춤, 가야금병창 ‘녹음방초’, 불모산 영산재 ‘바라춤, 나비춤’, 산조합주, 꽃나부풍장놀이

27일 바닥소리 ‘닭들의 꿈, 날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나 서로 아픔을 보듬고 극복하는 이야기를 판소리로 들려준다.

**뉴프라이미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8월 7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의 | 뉴프라이미오케스트라(010-6293-3983)



임준오

2006년 창단된 후 젊은 오케스트라다운 패기와 열정, 힘이 넘치는 웅장하고 화려한 사운드로 부산, 경남 지역에서 폭 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 뉴프라이미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프로그램

엘가/위풍당당 행진곡
비제/카르멘 모음곡
베르디/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 등 수곡
· 지휘/임준오 · 협연/테너 장진규, 소프라노 정혜리

**영화의전당 여름축제
Dureräum Summer 2012**

8월 12일(일)-24일(금)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 S석 2만원 · A석 1만원
(24일 앙상블 디토 공연은 R석 7만원
S석 6만원 · A석 5만원)

문의 | (재)영화의전당
(780-6000, www.dureraum.org)

(재)영화의전당이 마련하는 시원한 여름 음악축제. 서울스트링콰르텟, 그리움 피아노콰르텟, 프라하 브라스 앙상블, 앙상블 콘 두오레, TIMF앙상블, 부산체임버뮤직소사이어티, 앙상블 디토 등 7개 실내악팀이 참가, 실내악의 향연을 펼친다.

▶12일 오후 5:00 서울스트링콰르텟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악장인 바이올리니스트 신아라, 웨인 린과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올라 수석 홍웨이 황,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재직중인 첼리스트 박상민으로 창단한 서울스트링콰르텟의 열정적인 무대.

프로그램

모차르트/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 K.525
스메타나/현악4중주 제1번 마단조 '나의 생애에서' 등

▶13일 오후 8:00 그리움 피아노콰르텟

2011년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피아니스트 손열음과 그의 스승 조재혁 성신여대 교수, 섬세함과 열정의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이는 이형민 단국대 교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최초의 외국인 교수인 아비람 라이케르트 등 정상급 피아니스트 4명으로 구성된 '그리움 피아노콰르텟'의 무대.

프로그램

모차르트/터키행진곡
로시니/4개의 손과 한 대의 피아노를 위한 윌리엄 텔 서곡
라흐마니노프/6개의 손과 한 대의 피아노를 위한 왈츠와 로망스 등

▶16일 오후 8:00 프라하 브라스앙상블



동유럽 최고의 브라스앙상블로, 바로크시대 음악부터 현대음악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나온 체코 프라하 브라스앙상블 무대.

프로그램

샤르팡티에/ '테 데움' 전주곡
바흐/관현악 모음곡 제3번 라장조 제2곡 '아리아'
베르디/오페라 모음곡
드보르작/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 등 수곡

▶19일 오후 5:00 앙상블 콘 쿠오레

국내와 유럽, 미국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연주자들로 결성된 '앙상블 콘 쿠오레'는 클래식에서부터 현대음악, 재즈, 영화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로 관객과 만나고 있다.

프로그램

오기학/현악4중주(세계초연)
바버/현을 위한 아다지오 작품 11 등 수곡
· 지휘/김경훈

▶21일 오후 8:00 TIMF 앙상블

통영국제음악제 홍보대사로 2001년 창단된 TIMF앙상블은 통영을 뛰어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전문연주단체로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과 수준높은 연주로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22일 오후 8:00 부산체임버뮤직소사이어티

부산시립교향악단 악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동욱을 주축으로 부산시립교향악단 젊은 연주자들로 결성된 부산체임버뮤직소사이어티의 무대.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김정권이 협연한다.

▶24일 오후 8:00 앙상블 디토 '백야'



바이올리니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을 중심으로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판 재키, 첼리스트 마이클 니콜라스, 피아니스트 자용 등 클래식계 아이돌로 구성된 앙상블 디토의 6번째 리사이틀. 2011년 그래미상을 수상한

1층
업라이트 피아노 전시장

www.piano123.co.kr

그랜드피아노전문점 부산역가시

대표 강 규 찬 (조율사)
H.P. 017-556-9410

피아노 판매, 조율, 수리, 대어, 수리 전문점

2층
그랜드피아노 전시장

부산악기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25번지

T.758-5450/5445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파커 콰르텟 리더인 바이올리니스트 다니엘 정, 2007년 에이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트 상을 수상한 베이스리스트 다윈 장, 그리고 천재 관악주자로 주목받는 클라리네티스트 김한, 오보이스트 함경이 함께한다.

프로그램

스트라빈스키/ '병사의 노래' 모음곡
프로코피에프/ 5중주 사단조 작품 39
차이코프스키/ 현악4중주 제번 라단조 작품 11 등

(사)아지무스오페라단 청소년 해설음악회 바로크에서 뮤지컬까지

8월 15일 수요일 오후 3:00, 5: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전화예매시 20% 할인)
문의 | (사)아지무스오페라단(0707-522-4649)



바로크시대의 음악에서부터 뮤지컬까지 시대별, 장르별 음악을 해설과 영상을 통해 들려주는 청소년음악회.

출연/김영지, 김정현, 윤현주(소프라노), 조동훈(테너), 조성빈, 박종준(바리톤), 하은아(피아노), 김엘사(바이올린), 송남언(첼로), 손양호(오보에), 유경하(가야금), 김예진(판소리), 고충진(클래식기타)

테너 김화정 제자음악회 꿈꾸는 이들의 노래

8월 15일 수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김화정(010-9028-9752)

테너 김화정의 제자들이 마련하는 무대로, 이태리 가곡 및 독일가곡, 오페라 아리아 등을 들려준다.

출연/이은성, 현승운, 윤상원, 박소현, 김지원, 김주영, 이인경, 최재균, 황정수, 최우석, 김도엽, 이태희, 정다솔, 정세비, 허민지, 도영기, 김윤경, 강종진

오페라를 읽어주는 남자 시리즈 | 카르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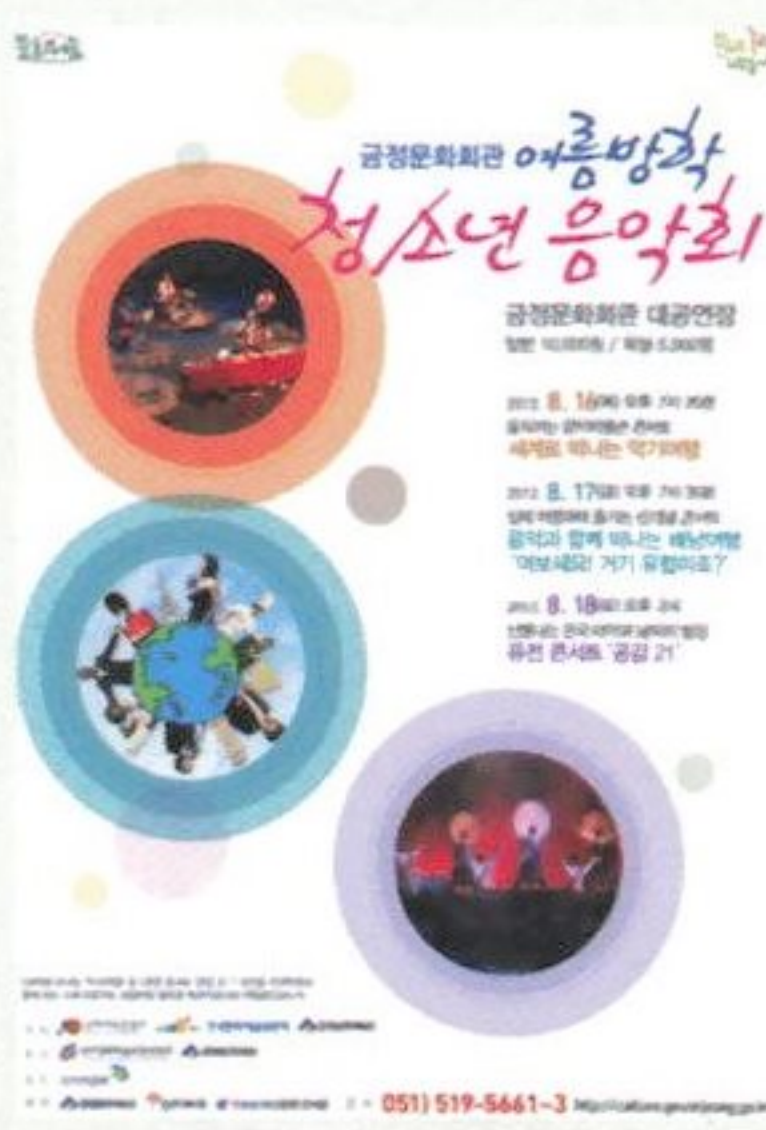
8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부산 메트로폴리탄 팝스오케스트라
(070-7727-0188, www.bmpo.co.kr)



평소 오페라 무대를 잘 접할 수 없는 관객들을 위해 부산 메트로폴리탄 팝스오케스트라가 오페라 '카르멘' 주요 장면과 아리아, 중창곡 등을 해설과 함께 들려준다.
지휘/김병수(상임지휘자)

금정문화회관 여름방학 청소년 음악회

8월 16일-18일 목-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519-5651~3)



금정문화회관이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하는 해설음악회.

▶16일 세계로 떠나는 악기여행

세계 60여개국 악기 100여 점을 직접 보여주고 악기연주를 통해 그 나라의 음악을 들려주는 월드뮤직 콘서트.
출연/김광수(우쿨렐레), 정효진(바이올린), 임희영(건반), 유가영(콘트라베이스), 김창선(아코디언), 전현정(민속악기), 오혜미(트럼펫), 김태훈(드럼)

▶17일 음악과 함께 떠나는 배낭여행 '여보세요! 거기 유럽이죠?'

유럽 주요 5개국의 대표 장르음악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음악과 함께 떠나는 배낭여행'.

출연/김수현(소프라노), 나희영(메조소프라노), 정중순(테너), 권지훈(바리톤), 황다운(피아노), 홍우진, 조현식(배우), 김유미(뮤지컬배우), 정란(상송가수), 아델라현악앙상블

▶18일 퓨전콘서트 '공감21'

신명나는 우리 전통타악과 남미의 열정적인 안데스음악이 만나는 퓨전콘서트 '공감21'.
출연/전통타악연구소 예술단, 페루 남미음악그룹 'YUYARY'

청소년을 위한 여름 음악회 Summer Festival

8월 16일 목요일 오전 11:00,
17일 금요일 오후 5: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5천원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220-5805)

전문예술 법인단체로 그동안 신선한 기획과 폭넓은 레퍼토리, 수준높은 연주로 관객과 만나온 (사)T.I.F 오케스트라가 마련하는 청소년을 위한 여름 음악회.

출연/(사)T.I.F 윈드오케스트라(지휘/손영진), (사)T.I.F 심포니오케스트라(지휘/박성완), 김효정(클라리넷), 원광섭, 이다희(보컬), 박은승(해설)

숙명가야금연주단의 조선왕실 콘서트 '달콤한 하품'

8월 18일 토요일 오후 2:00,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 S석 1만원(청소년 50% 할인)
문의 | 부산시민회관(630-5200)



KBS국악대상, 2010 대한민국 한류문화산업대상을 수상한 숙명가야금연주단이 마련하는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모든 청중이 왕실의 초청을 받은 귀인들이 되어 훈육상공과 초청음악가들의 지도를 받아 노래를 배워보는 시간도 갖는다.

- 예술감독/송혜진(숙명여대 전통문화예술대학원 교수)
- 훈육상공/김희선(KBS 성우)
- 판소리/이상화 · 왕세자비/양희진
- 춤/화동정재예술단

청소년 렉처콘서트 ‘베토벤, 자연으로 돌아가다’

8월 18일 토요일 오전 11:0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울속도문화회관(220-5805)



박성완
청소년들이 클래식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유명 클래식 곡을 상세한 해설과 함께 들려주는 청소년 렉처콘서트. 베토벤 교향곡 시리즈로 마련되는 2012년 다섯 번째 무대로, 교향곡 제6번 ‘전원’과 인제대학교 음악학과에 재학중인 작곡가 김정원의 창작곡 ‘The Time for Orchestra’를 들려준다.

- 지휘/박성완(부산대학교 교수)
- 연주/(사)T.I.F 오케스트라

시노두스 윈드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연주회 여름방학 어린이&청소년과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with Tango, Latin, Dance

8월 19일 일요일 오후 3:00, 6: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균일 7천원(인터넷 예매시 학생 20% 할인)
문의 | 시노두스 윈드오케스트라
(010-8733-7438, 010-9328-9037)

부산, 경남지역의 관악전공자들로 구성된 시노두스 윈드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라틴어로 ‘다함께’라는 뜻을 지닌 시노두스 윈드오케스트라는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2002 부산아시아게임, 자갈치축제, 부산바다축제, 삼천포대교 개통 축하음악회, 울산, 창원 순회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 지휘/정우영(부산시립교향악단 클라리넷 수석)
- 해설, 진행/김윤선
- 색소폰/박종원 · 댄스스포츠/박영석, 장유경

2012 제8회 부산기타페스티벌

8월 19일 일요일 오후 6: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의 | 부산페스티벌기타양상블(010-5198-0074)



부산페스티벌기타양상블

매년 여름 전국의 유명 기타리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여 펼치는 2012 부산기타페스티벌. 올해로 8번째를 맞는 이번 무대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김희정 · 기타리스트 고충진 듀오, 기타듀오 필로스, 플라멩코 기타리스트 이준호, 부산페스티벌기타양상블이 출연, 다양한 색깔의 무대를 선사한다.

제10회 평사국악연구회 정기공연 부산기생던

8월 23일 목요일 오후 7: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의 | 평사국악회(070-8200-2933)



평사제 전통민요연구보존회 이사장, 중요무형문화재 제19호 선소리 산타령 이수자로 있는 김경민이 이끄는 평사국악연구회는 전통과 창작이 어우러지는 이번 무대를 통해 흥겨운 우리 춤과 소리를 선사한다.

제56회 글로벌 행복음악회

8월 26일 일요일 오후 3:0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자율(청소년 장학금 기금)
문의 | 글로벌아트홀(505-5995)



찬양신학의 명문
국제찬양
신학대학원
가을학기
신입생모집

음악목사과정 / 음악전도사과정
사모찬양사과정 / 평신도찬양사과정

자격 및 대상 | 지휘자 반주자 솔리스트 찬양대원 찬양팀 목사사모 선교사사모
학기개강 | 8월27일 원서접수 | 8월10일까지
제출서류 | 입학지원서(소정양식),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기소개서

글로벌아트홀의 첨단 시스템과
국내외 최고의 석학들의 교수진으로 강의를 이루어집니다.
강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세미나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질 높은 맞춤형 강의로 이루어집니다.

국제찬양신학대학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 48번길 162(온천3동1243-21) 3호선 4호선 미남역1번출구
에서 도보 5분 http://www.glovil.org ipseminary@naver.com T.051-505-5995 F. 051-505-5935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글로벌아트홀이 지역민과 부산시민들의 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마련하는 행복음악회.

이현우 바이올린 리사이틀

8월 28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독일 칼스루에 국립음대, 하노버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이태리 Euterpe 국제콩쿠르 현악부문에서 1위 입상한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우 독주회.

프로그램

프랑크/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가장조

사라사테/찌고이네르바이젠 작품 20 등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정열, 오페라 '카르멘' 갈라

8월 30일 목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519-5661~3)



성악가들의 진솔하면서도 정열적인 노래와 연기로 풀어내는 오페라 '카르멘' 갈라무대.

· 피아노/황대운

동래문화회관 목요국악콘서트

8월 30일 목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 일반 2천원 · 학생 1천원
 문 의 | 동래문화회관(550-6611)

젊은 국악연주자들로 구성된 '음악대륙 가ैया'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신명나는 무대를 펼치는 동래문화회관 목요국악콘서트.

두비두비 코앤코 음악회

8월 31일 금요일 오전 10:40, 12: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 2천원
 문 의 | (주)코앤코교육(010-2554-6154)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는 7세 이하 어린이들을 위한 연주회로 즐거운 동요와 재미있는 동화를 통해 클래식과 친숙해지는 두비두비 코앤코 음악회.

프로그램

라데츠키행진곡, 군대행진곡, 동요 '뽕뽕뽕 뽕뽕', 동화 '피터와 늑대'와 함께하는 악기탐구, 축배의 노래, 동요 '솜사탕' 등 수곡

Play

2012 뮤지컬 코미디 '넌센스2'

1월 1일(일)-OPEN RUN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 서면
 입장료 | R석 4만 5천원 · S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주)WSM(1566-5490)

못말리는 다섯 수녀들의 화끈한 춤과 노래, 코믹한 연기가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내는 뮤지컬 코미디 '넌센스2'.

감동 로맨틱 코미디극 '작전! 임이랑지우기'

5월 12일(토)-9월 9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문 의 | SM기획(1600-1602)



시간여행이 가능해진 2027년을 배경으로, 자신을 낳아 죽은 엄마 때문에 아빠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주인공 임이랑이 자신의 운명을 지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그린 감동 로맨틱 코미디극.

호러연극 '두여자'

6월 5일(화)-9월 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문 의 | SM기획(1600-1602)

서늘한 반전이 있는 탄탄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기존의 호러극에서 느껴보지 못한 색다른 공포를 선사하는 호러연극 '두여자'.

감동 로맨틱 연극 '러브 액츄얼리'

6월 26일(화)-9월 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SM아트홀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문 의 | SM기획(1600-1602)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랑의 감정은 어떻게 변하는 것일까에 대한 해답을 찾기위해 100일 커플, 1000일 커플, 10년 커플을 통해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해가는 연인들의 모습을 그린 로맨틱극 '러브 액츄얼리'.

언제는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나요

6월 26일(화)-9월 2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2:00
 6:00(8/15일은 오후 3:00, 월요일 공연없음)
 SM아트홀 3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문 의 | SM기획(1600-1602)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해 주는 두 쌍의 연인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콘서트 뮤지컬.

2012 청춘나비 기획공연 두번째 살고싶다, 그림처럼, 시처럼

7월 6일(금)-8월 5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5:00, 일요일 오후 3:00
 (월요일 공연없음) 청춘나비아트홀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
 문 의 | 청춘나비아트홀(070-8241-25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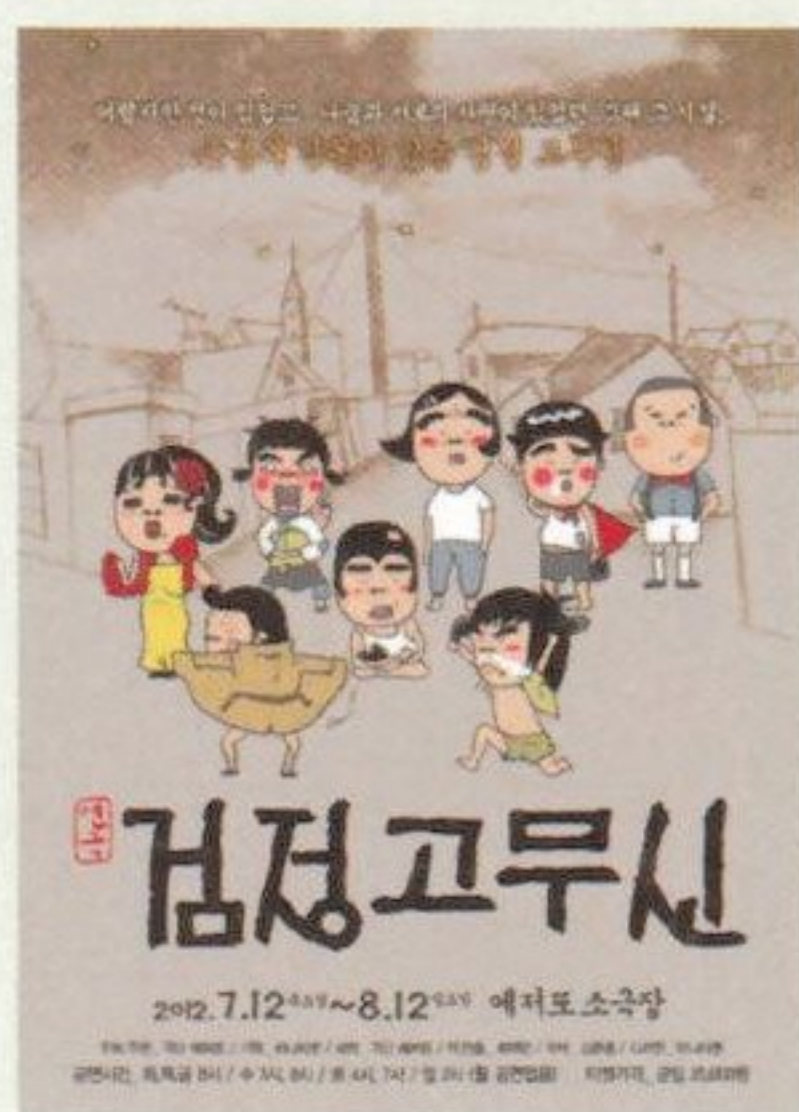


계엄 선포와 민주화 항쟁, 유신 정권 이후 정치적 암흑기인 1980년대를 배경으로 시장 상인들의 삶과 애환을 그린 풍경극 '살고싶다, 그림처럼, 시처럼'.

· 작, 연출/양지웅
· 출연/김륜호, 팽지인, 정원혁, 이정형, 소정섭, 김이현, 강동석, 이다예, 이아름 외

연극 '검정고무신'

7월 12일(목)-8월 12일(일) 화요일 오후 8:00
수요일 오후 3:00, 8:00, 목-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월요일 공연없음) 에저또 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
문 의 | 미니티켓(1600-17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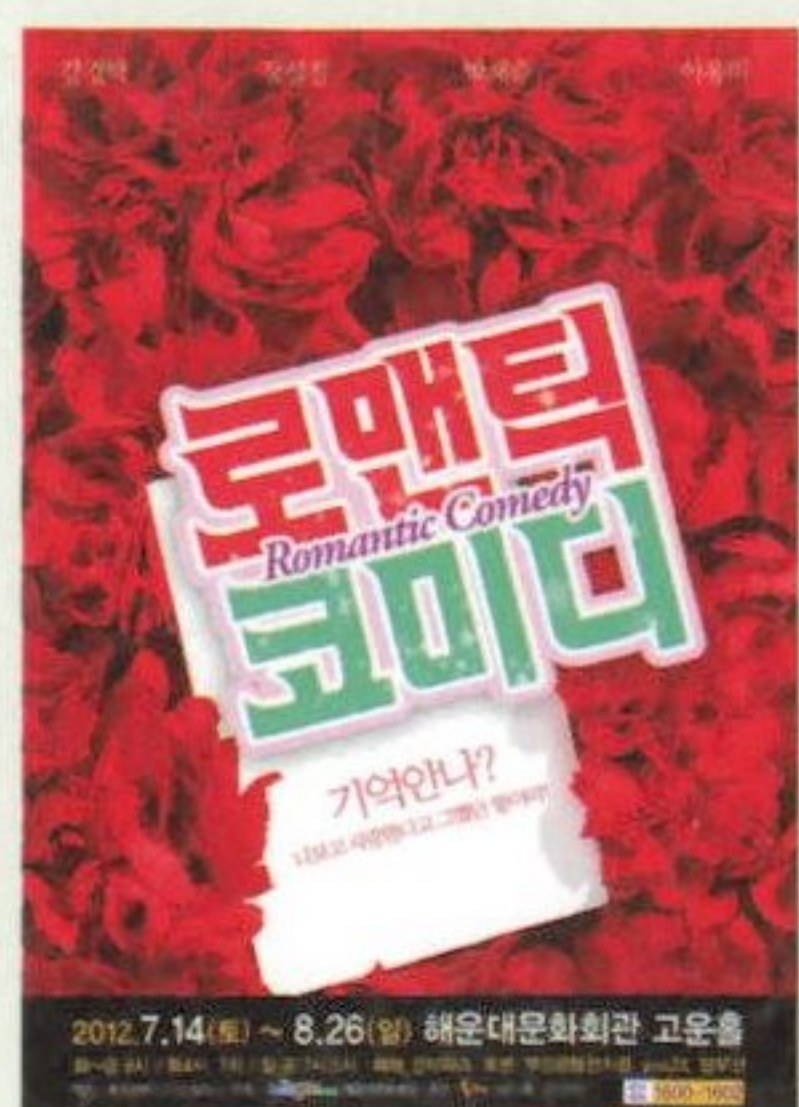


2007년 초연된 후 부산과 수도권지역을 눈물과 웃음 바다로 만든 연극 '육남매'를 더욱 탄탄해진 스토리와 감동으로 새롭게 무대에 올리는 연극 '검정고무신'.

1960~70년대를 배경으로, 힘든 시기를 참고 이겨내는 육남매의 사랑과 우애를 웃음과 감동으로 그려낸다.

연극 '로맨틱 코미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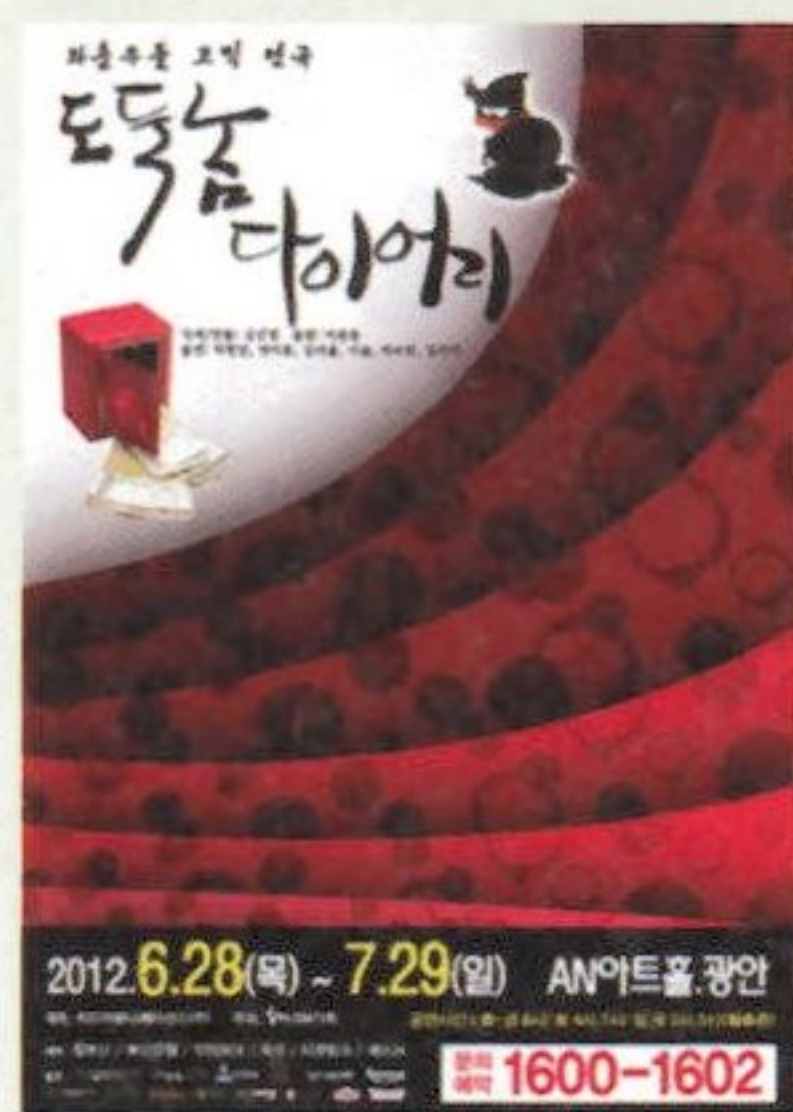
7월 14일(토)-8월 26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문 의 | SM기획(1600-1602)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은 환자 인호와 간호사 시은의 러브스토리를 그린 연극 '로맨틱 코미디'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여자와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남자의 감동적인 사랑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연극 '도둑놈 다이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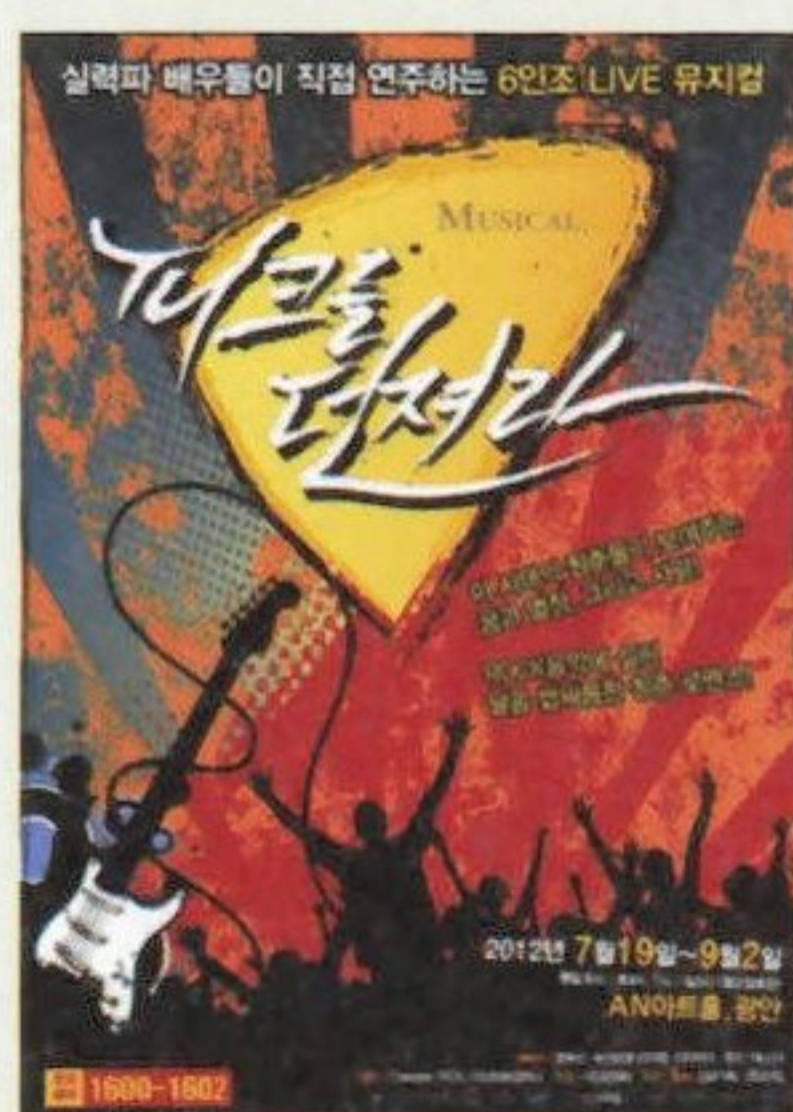
7월 19일(목)-8월 19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엑터스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문 의 | SM기획(1600-1602)



고위관직자를 대상으로 도둑질을 하는 의좋은 형제가 사랑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벌어지는 헤프닝을 통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아가는 좌충우돌 러브 버라이어티 코믹극 '도둑놈 다이어리'.

콘서트뮤지컬 '피크를 던져라'

7월 19일(목)-9월 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공휴일 오후 3:00
(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광안
입장료 | 균일 3만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문 의 | SM기획(1600-1602)



연극적 드라마와 락밴드의 라이브 콘서트가 어우러지는 색다른 콘서트 뮤지컬 '피크를 던져라'.

젊은 무명밴드 구성원들의 꿈과 좌절, 사랑과 우정이 폭발적인 라이브 연주와 함께 펼쳐진다.

뮤지컬 '광화문연가' 부산공연

7월 20일(금)-8월 5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30, 일요일 오후 2:00, 6:30
(월요일 공연없음) 센텀시티 소향아트센터
입장료 | VIP석 12만원·R석 10만원
S석 8만원·A석 6만원
문 의 | 인터파크(1544-1555)



한국 팝 발라드 장르를 개척한 작곡가故 이영훈의 아름다운 명곡을 통해 세 남녀의 가슴 시린 사랑이야기를 그린 '광화문연가'.

· 각색, 연출/이지나
· 출연/윤도현, 조성모, 송창의, 리사, 박호산 외

연극 '그남자 그여자'

2012년 7월 20일(금)-2013년 1월 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초콜릿 팩토리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
문 의 | (주)가을엔터테인먼트(1577-5878)



수줍은 사내 커플과 풋풋한 대학생 커플의 두근거리는 첫 만남에서부터 달콤한 사랑, 그리고 쓰라린 이별과 아련한 추억까지 사랑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그린 대학로 최고의 커플 연극 '그남자 그여자' 부산공연.

www.wendl-lung.co.kr

1910년부터 100여년간 제작된 최상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음악의본고장 오스트리아 벤들·룽 피아노

The early years

1주! 벤들·룽 피아노 코리아
부산시 남구 대연4동 965-8, 문화회관 옆 TEL : 051-441-7474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공간소극장 '청년 그 열정 속으로'

7월 28일(토)-8월 12일(일), 8월 18일(토),
8월 31일(금), 9월 1일(토)-2일(일) 공간소극장
입장료 | 무료(7/28일-8/12일 '복순이 할배' 공연은
균일 2만원)
문의 | 공간소극장(611-8518)



공간소극장이 부산의 젊은 연극인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한 특별한 무대 '청년 그 열정 속으로'.

▶7/28일-8/12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6:00

아트 레볼루션 '복순이 할배'

괴짜 독거노인 복순이 할아버지와 순진한 복지학과 실습생 태수가 펼치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 '복순이 할배'.
· 연출/윤성호
· 출연/김슬비, 박정우, 박준성, 이연진

▶8/18일 오후 2:00, 4:00

부산대학교 의대 · 간호대 연합 극예술연구회 '그 여자들, 다시 통닭을 먹다'

매일밤 통닭집에서 삶의 피곤함을 달래는 세 여자를 통해 지금 이 곳을 살아가는 서민들의 궁핍한 삶을 수다와 웃음으로 풀어낸 '그 여자들 다시 통닭을 먹다'.
· 연출/신민호
· 출연/김가훈, 박가은, 성유나, 이서림, 한정혁, 황혁진

▶8/31일 오후 8:00, 9/1일-2일 오후 6:00

공간아트컴퍼니 'ART'

2억 8천만원짜리 그림을 앞에 두고 벌어지는 세 친구의 자존심 대결이 유쾌한 수다와 함께 펼쳐지는 연극 '아트'.
· 지도/김만중 · 출연/김민지, 박현실, 이영봉

리얼 코믹 연극 '기막힌 꿈수'

8월 3일(금)-9월 2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 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복잡해지는 상황 속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터지는 위트넘치는 대사가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내는 코미극 '기막힌 꿈수'.

· 작, 연출/이재원
· 출연/장재승, 김원홍, 김두현, 김현정, 박태경, 정대용, 석경환, 김미미, 이희인

어린이 뮤지컬 '모해? 모해!'

8월 7일(화)-12일(일) 평일 오후 3:00,
주말 오후 2:00, 4:00 청춘나비아트홀
8월 21일(화)-26일(일) 평일 오후 3:00,
주말 오후 2:00, 4: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일반 1만 5천원 · 학생 1만원
문의 | 끼리프로젝트
(759-7112, 010-4784-7721)



핸드폰게임에 빠져있는 푸름이가 전화기도 컴퓨터도 없는 모해마을에 가게되면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한바탕 소동이 추억 속 전통놀이와 함께 펼쳐지는 어린이 뮤지컬 '모해? 모해!'.

· 작, 연출/홍선주

가마골소극장 26주년 기념공연 1 창작뮤지컬 '샘'

8월 8일(수)-1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3:00
가마골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 5천원 · 대학생 2만원
중고생 1만 5천원
문의 | 가마골소극장(868-5955)

새로운 음악극 신선한 뮤지컬을 찾는 연희단거리패의 두번째 창작뮤지컬 '샘'.



뉴욕 미술계를 뒤집어놓은 다다이즘 예술가 마르셀 뒤샹의 '샘'에서 영감을 받은 창작뮤지컬 '샘'은 정신적으로 무너져가는 현대인의 신경증적인 불안증세를 신화적 이미지와 오페레타식의 아리아로 풀어낸다.

· 작, 연출/이재경 · 작곡/폴 캐슬즈
· 출연/박인화-강국희-조영근, 경제미-배보람-오동석
(더블캐스트)

코미디극 '코미디 넘버원'

8월 10일(금)-9월 9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훈남인 강력계 열혈 형사 기남과 그의 전 부인 이지, 아름답고 매력적인 기남의 첫사랑 도희, 의처증에 다혈질인 이지의 애인 춘배 등 개성있는 캐릭터가 등장해 웃음을 선사하는 창작코미디극 '코미디 넘버원'.

· 작, 연출/정세혁
· 출연/김태형, 박진성, 황수연, 황아영, 박소라, 전전광, 김한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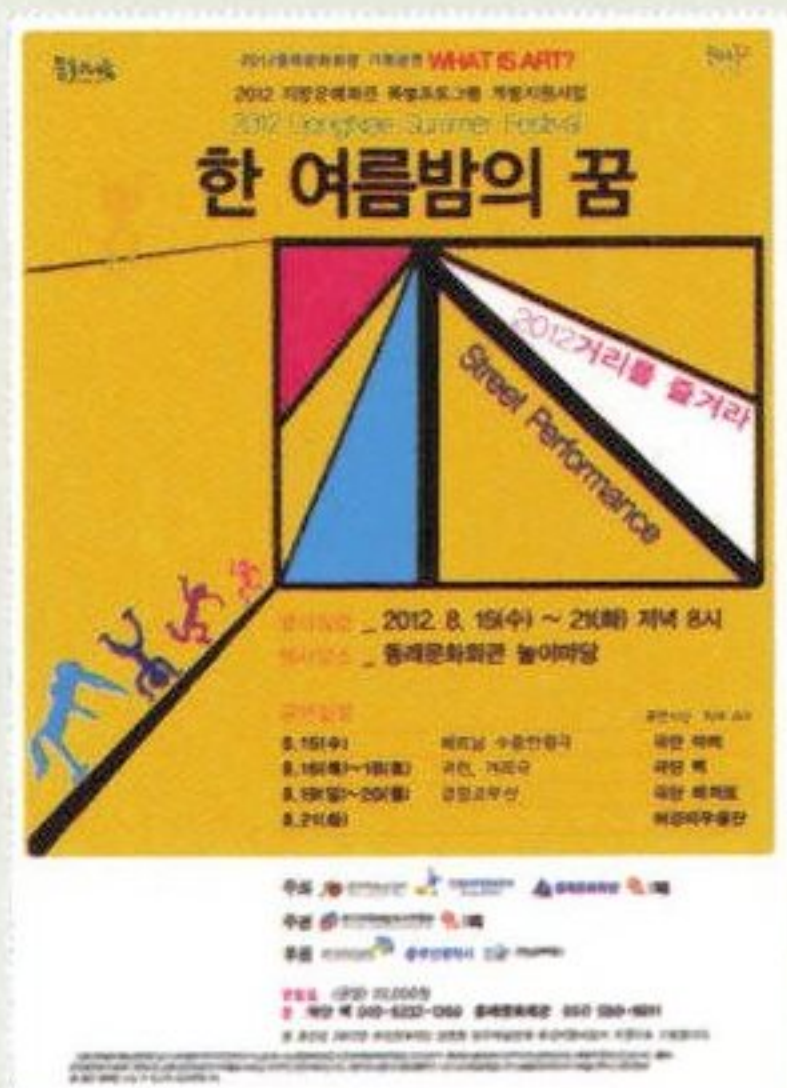
초록마술사의 재미있는 마술여행

8월 11일(토)-12일(일), 25일(토)-26일(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1:00, 일요일 오전 11:00
가은아트홀 1관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문의 | SM기획(1600-1602)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신기한 마술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환경보호 매지컬로, 초록별을 지키기 위한 초록마술사 코코의 좌충우돌 마술이야기가 펼쳐진다.

2012 동래문화회관 기획공연 What is Art? 한 여름밤의 꿈

8월 15일(수)-21일(화) 동래문화회관 놀이마당,
야외 일대
입장료 | 균일 1만원(극단 맥 '귀천'은 무료)
문의 | 동래문화회관(550-6611),
극단 맥(010-5232-1350)



거리예술이라는 새로운 공연예술의 접근을 통해 관객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동래문화회관 기획공연 '한 여름밤의 꿈'.

▶15일 오후 8:00
놀이마당

극단 아미 '베트남 수중인형극'

천년의 역사를 지닌 베트남 전통인형극으로, 인형 연희자들이 무대 뒤 물속에서 기다란 막대기를 이용해 나무로 만든 인형들을 조정하는 수중인형극이다.

▶16일-18일 오후 8:00 야외일대 극단 맥 '귀천'
전통 거리극인 장터극과 야외극 공연을 병행해 시각예술과 거리무용, 풍물굿 등을 선보이는 극단 맥 '귀천'.

▶16일-18일 오후 9:00 놀이마당 극단 맥 '거리극'
이탈리아 인스타블리 바간띠와의 워크샵 진행을 통해 구성한 작품으로, 우리의 전통 리듬과 소리, 몸짓을 토대로 인간의 삶을 표현한 신체극.

▶19일-20일 오후 8:00 놀이마당
극단 에저도 '검정고무신'
1960~70년대 부산을 배경으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끈기있게 살아가는 오남매를 통해 웃음과 감동을 전해 주는 창작극.

▶21일 오후 8:00 놀이마당
허경미무용단 Red-Step '한 여름밤의 춤꾼'
2011년 부산무용제 대상을 수상한 허경미무용단 레드스텝(Red-Step)이 펼치는 창작춤.
작품
꽃(출연/박광호, 이용진, 신윤경, 허경미)
진도북춤(출연/왕정희, 강경희, 이연정) 등

창작뮤지컬 '춘향 YO'

8월 15일(수)-26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4:00
청춘나비아트홀
입장료 | 일반 2만 5천원 · 학생 2만원
문의 | 끼리프로젝트
(759-7112, 010-4784-7721)



'춘향이 못생겼다면 몽룡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하는 색다른 해석에서 출발한 창작 뮤지컬로, 외모지상주의라는 굴레 속에서 상처받는 우리의 모습을 그려낸 작품이다.

- 작/홍선주
- 연출/변진호
- 안무/서승현
- 작곡/강중환
- 출연/홍선주, 서승현, 안수빈, 이형은, 박범진, 이사라, 조은별, 오세윤, 안병율, 고지웅

유세운, 장동민, 유상무의 2012 웅달샘쇼

8월 18일 토요일 오후 3:00, 7:00 KBS부산홀
입장료 | R석 6만 6천원 · S석 5만 5천원
A석 4만 4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주)WSM(1566-5490 www.wsmi.co.kr)



개그맨 유세운, 장동민, 유상무가 뭉친 개그 그룹 '웅달샘'이 동물 변장의 최고봉 '기막힌 서커스'와 신상털기 개그의 진수 '앗! 귀신이다'. 대한민국 최강의 바보를 뽑는 '코리아 갓 바보' 등 그들만의 개그를 선보인다.

어린이 창작뮤지컬 '깃털피리'

8월 22일 수요일 오후 5:00, 7: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동화가 꽃피는 나무(02-905-2224)

2011년 김천전국가족연극제 금상, 최우수연기상 수상,
2011년 국립극장 명작무대 어린이우수공연축제 초청작



으로 선정된 어린이 창작뮤지컬 '깃털피리'. 하늘새의 깃털을 가지면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다는 말에 모험을 떠나는 음치 너구치와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즐거운 노래와 흥겨운 율동 속에 펼쳐진다.

송승환의 난타-부산

9월 1일 토요일 오후 3:00, 6:00,
2일 일요일 오후 2:00, 5:00 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 S석 4만원 · A석 3만원
문의 | 시민회관(630-5200)

전통가락인 사물놀이 리듬을 소재로, 주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코믹하게 그린 난버벌 뮤지컬의 신화 '난타'.

Dance

을숙도문화회관 '수요일은 춤'

8월 15일 수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220-5812~3)

을숙도문화회관이 매월 셋째주 수요일 마련하는 신진무용가들의 새로운 도전무대 '수요일은 춤'. 8월에는 동아대학교 장정윤 교수의 제자들이 열정넘치는 무대를 선사한다.

서지영무용단의 우리춤 창작 레파토리 II

울림- 신비의 춤
8월 26일 일요일 오후 8: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서지영(010-3429-7588)

지난 20년간 부산시립무용단 단원으로 있다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승무 이수자, 살풀이춤 전수자, 부산무용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춤꾼 서지영이 이끄는 서지영무용단의 우리춤 창작 레파토리 두 번째 무대.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우리춤 창작개발에 관심을 가져온 서지영 무용단은 이번 무대에서 어느 누구나 쉽게 어울릴 수 있는 우리춤의 신명을 주제로 한 창작춤을 선보인다.

· 안무/서지영

· 출연/김경옥, 윤정미, 남선주, 이다경, 강수나, 서은숙 외

Concert

도시락 콘서트 '일단은 버스킹'

8월 6일(월)-10일(금) 오후 12:20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재)영화의전당

(780-6000, www.dureraum.org)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을 이용해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펼쳐지는 라이브 콘서트.

용두산공원, 스카웨이커스, 달콤쌉쓸한, 언제인드, 나라라자크루 등 각 요일별로 인디밴드들이 출연, 개성넘치는 무대를 선사한다.

열린바다 열린음악회

8월 9일 수요일 오후 7:30 광안리해수욕장 특설무대

입장료 | 무료

문의 | 국제신문(500-5222)



박해미



조성모

제17회 부산바다축제 폐막을 장식하는 하이라이트 무대 '열린바다 열린음악회'.

뮤지컬 배우 박해미, 김호영, 한지상, 가수 조성모, 뮤지컬팀 뮤즈가 출연, 열정넘치는 무대로 한여름밤 무더위를 잊게 해준다.

도시락 콘서트 '소소한 라이브'

8월 11일 오후 4:00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입장료 | 균일 3만 5천원(예매시 5천원 할인)

문의 | (재)영화의전당

(780-6000, www.dureraum.org)

브로콜리 너마저, 로맨틱 펀치, 장미여관, 와이낫 등 인디밴드들이 펼치는 야외 라이브 콘서트.

재즈 와인에 빠지다 40th concert

8월 17일 금요일 오후 8: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1층 3만 5천원 · 2층 2만 5천원

문의 | 문화기획단 무대공감

(623-0678, www.mudae.kr)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부산예술대학 최창근 교수가 부산, 경남권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재즈뮤지션들과 뜻을 모아 창단한 빅밴드 'Art Ensemble of Busan' 무대로 마련되는 '재즈 와인에 빠지다'.

Event

부산근대역사관 2012년 어린이 체험특별전 시간여행, 100년전 근대도시 부산으로!

7월 4일(수)-9월 9일(일) 부산근대역사관

문의 | 부산근대역사관

1876년부터 1912년까지 개항 이후 조선의 주요 항구도시로 날이 변화해온 부산의 모습을 다양한 체험교구와 근대유물을 통해 어린이들이 근대기 부산의 역사를 재미있게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어린이 체험특별전.

제17회 부산바다축제

8월 1일(수)-9일(목) 해운대해수욕장 외 부산시내 주요 해수욕장, 요트경기장

문의 | (사)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888-3395~6, www.seafestival.co.kr)



여름을 맞아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제17회 부산바다축제.

8월 1일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부산국제록페스티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부산국제힙합페스티벌 등 3대 국제행

사와 공연, 체험, 해양스포츠 행사 등이 펼쳐진다.

2012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8월 2일(목)-5일(일)

해운대해수욕장 야외특설무대, 영화의전당

문의 |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조직위원회

(626-7002, www.hibimf.org)

국내외 유명 매지션과 함께하는 국내 유일 세계 최대 규모의 매직페스티벌 2012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부산 사운드웨이브 페스티벌

8월 18일(토)-19일(일) 광안리해변 일대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 청년문화수도 집행위원회

(070-7530-4675, www.busanfesta.com)



푸른 바다와 뜨거운 태양, 빛나는 광안리의 야경 속에 실험적인 정신과 열기로 무장한 국내외 청년예술가들이 펼치는 열정의 무대 부산 사운드웨이브 페스티벌. 부산의 젊은 예술가들과 국내외 개성 넘치는 인디밴드, 디제이, 힙합 그룹과 공연단체들이 참여한다.

**감동이 있는 시낭송회
제66회 알바트로스 시낭송회**

8월 18일 토요일 오후 5:00
영광도서 4층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의 | 알바트로스 시낭송문학회 회장 김옥균
(010-6367-0149)

- 초대시인/성종화, 홍종철, 유병근 외
- 초청연주/바이올리니스트 김성현, 테너 김명재
- 사회/손계정 · 연출/김옥균

청년문화아카데미

8월 28일(화)-12월 9일(일)
매주 화, 목요일 오후 7:00 금정예술공연지원센터
수강료 | 60만원
문의 | 부산청년문화수도 집행위원회
(070-7530-4675, www.busanfesta.com)

부산청년문화수도가 부산 문화예술의 미래인 문화기획자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한 청년문화아카데미. 한국의 문화기획자 1세대인 강준혁 성공회대 문화대학원장을 비롯해 추미경 문화다움 상임이사, 이왕주 부산대학교 교수, 부산노리단 안석희 대표, 김해문화의전당 이영준 전시팀장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전문가들이 강사로 참가한다.

Gallery

**부산사진의 재발견 연계기획
배동준, 근대적 풍경의 탐구**

6월 16일(토)-9월 2일(일) 고은사진미술관 본관
문의 | 고은사진미술관(744-3924)

생활과 풍경을 결합하여 자신만의 풍경으로 완성시킨 작가 배동준 사진전

한애규 '꽃을 든 여인'

7월 13일(금)-9월 20일(금) 두원아트센터
문의 | 두원아트센터(757-7999)

국내 미술계에서 드물게 테라코타로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해온 중견조각가 한애규 작품전

강종열展 햇살 정원-동백(Cammellia)

7월 13일(금)-8월 13일(월) 갤러리 나무
문의 | 갤러리 나무(242-5123)



혼으로 이이온 맥

7월 17일(화)-8월 26일(일) 부산박물관 기증전시실
문의 | 부산시립박물관(610-7141)

맥화랑 10만원대 행복한 그림展

7월 17일(화)-8월 5일(일),
8월 7일(화)-8월 26일(일) 맥화랑
문의 | 맥화랑(722-2201)

이인미展 'FRAME, 재현의 위치'

7월 19일(목)-9월 3일(월) 토요타 포토 스페이스
문의 | 토요타 포토 스페이스(731-6200)

북천박물관 '고구려, 한반도를 품다'

7월 24일(화)-9월 9일(일) 북천박물관 기획전시실
문의 | 북천박물관(554-4263~4)

실낙원 Paradise Lost

고향의 실종과 군소도시의 탄생

7월 28(토)-9월 16일(일) 고은사진미술관 신관
문의 | 고은사진미술관(746-0055)

마음에 비치는 그림展-이영주, 이순행, 조민협

8월 1일(수)-8월 31일(금) 아트카페 움
문의 | 아트카페 움(557-3369)



조민협 작

독특한 작가의 시선이 담긴 풍경과 개인적 심상이라는 테마를 회화(이영주), 사진(이순행), 일러스트(조민협)를 통해 담아낸 3인전.

**제1회 대청갤러리 청년작가 작품 및 기획
공모 당선-기획부문
옥경래, 권금영 '파헤치기(Excavate)'**

8월 3일(금)-8월 16일(목) 대청갤러리
문의 | 대청갤러리(462-1870~1)



권금영 작

대청갤러리가 개관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시각으로 작업하는 열정적인 작가와 기획자를 선발하기 위해 마련한 청년작가 작품 및 기획공모전 당선작전

반쪽이의 상상력 박물관展

8월 4일(토)-8월 29일(수) 부산시민회관 한슬갤러리
입장료 | 균일 5천원(20인 이상 단체 4천원)
문의 | 부산시민회관(630-5200)

사진전 '스쳐 지나가다'展

8월 10일(금)-8월 16일(목) BS부산은행 갤러리
문의 | BS부산은행 갤러리(246-8975)

미술관 옆 동물원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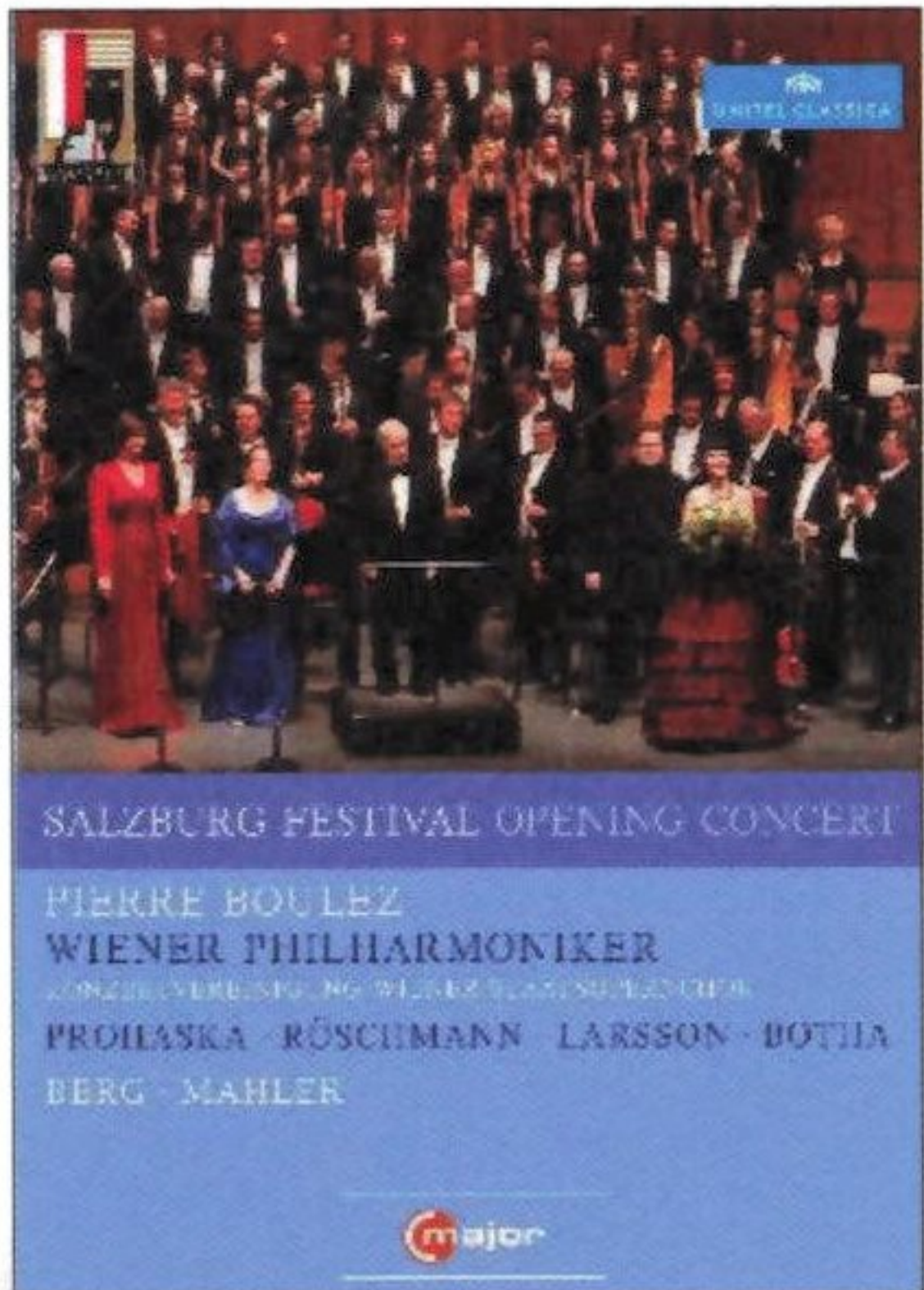
8월 17일(금)-9월 12일(수) 롯데갤러리 부산본점
문의 | 롯데갤러리 부산본점(810-2328)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상상력을 끌어내는 미술관 옆 동물원展

고운서회展

8월 18일(토)-8월 22일(수) BS부산은행 갤러리
문의 | BS부산은행 갤러리(246-8975)

윤봉길 의사 의거 8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으로, 매한 윤봉길 의사의 애국 혼이 잘 드러나 있는 의사의 시문을 서예로 작품화한 50여점 작품 전시.



2011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개막 콘서트

안나 프로하스카(sop)/ 도로테아 뢰슈만(sop)/ 안나 라르손(alt)/ 요한 보타(te)/ 빈 슈타츠오페 합창단/
빈 필하모니커(지휘/피에르 볼레즈)

볼레즈가 지휘한 청년기 말러의 대편성 칸타타 '탄식의 노래'

2011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성대한 시작을 알렸던 개막 콘서트가 영상물로 출시되었다. 2008년에 이어서 피에르 볼레즈가 다시 이 개막 콘서트의 지휘봉을 잡았는데, 자신의 장기라고 할 수 있는 작곡가들인 베르크와 말러의 작품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베르크의 걸작 오페라 '룰루'에서 발췌한 다섯 곡들로 구성된 연주회용 모음곡에서는 최근 각광 받고 있는 소프라노 안나 프로하스카가 독창을 맡았고, 샤를르 보들레르의 의인체 시에 곡을 붙인 관현악반주의 가곡 '포도주 (Der Wein)'에서는 이 시대 최고의 모차르트 히로인 소프라노 도로테아 뢰슈만의 신선한 변신을 경험할 수 있다. 콘서트의 후반을 장식하는 작품은 청년 시절 말러가 완성했던 대편성의 칸타타 '탄식의 노래(Das klangen Lied)'다. 이 작품은 1880년 완성 당시에는 3개의 파트(숲의 전설, 음유시인, 결혼식)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1889년 개정작업을 통해 '숲의 전설'이 생략되고 나머지 두 파트만으로 작품이 재편되었다. 본 연주회에서는 개정버전을 연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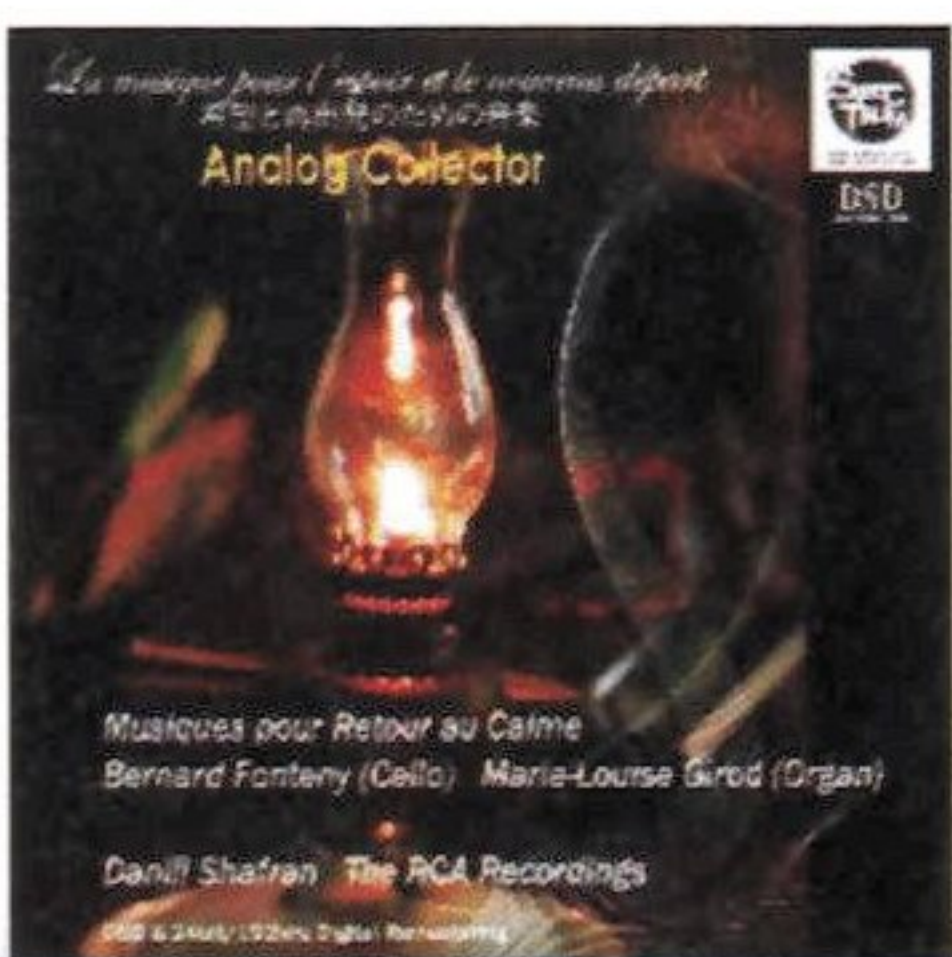


베네치아 라 페니체 극장 2012년 신년음악회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5번, 이탈리아 오페라 합창과 아리아들

제시카 프라트(sop)/ 발터 프라카로(te)/ 알렉스 에스포시토(bass)/
라 페니체 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지휘/디에고 마테우스)

'엘 시스템아'의 또 다른 열매 '디에고 마테우스'의 2012 라 페니체 신년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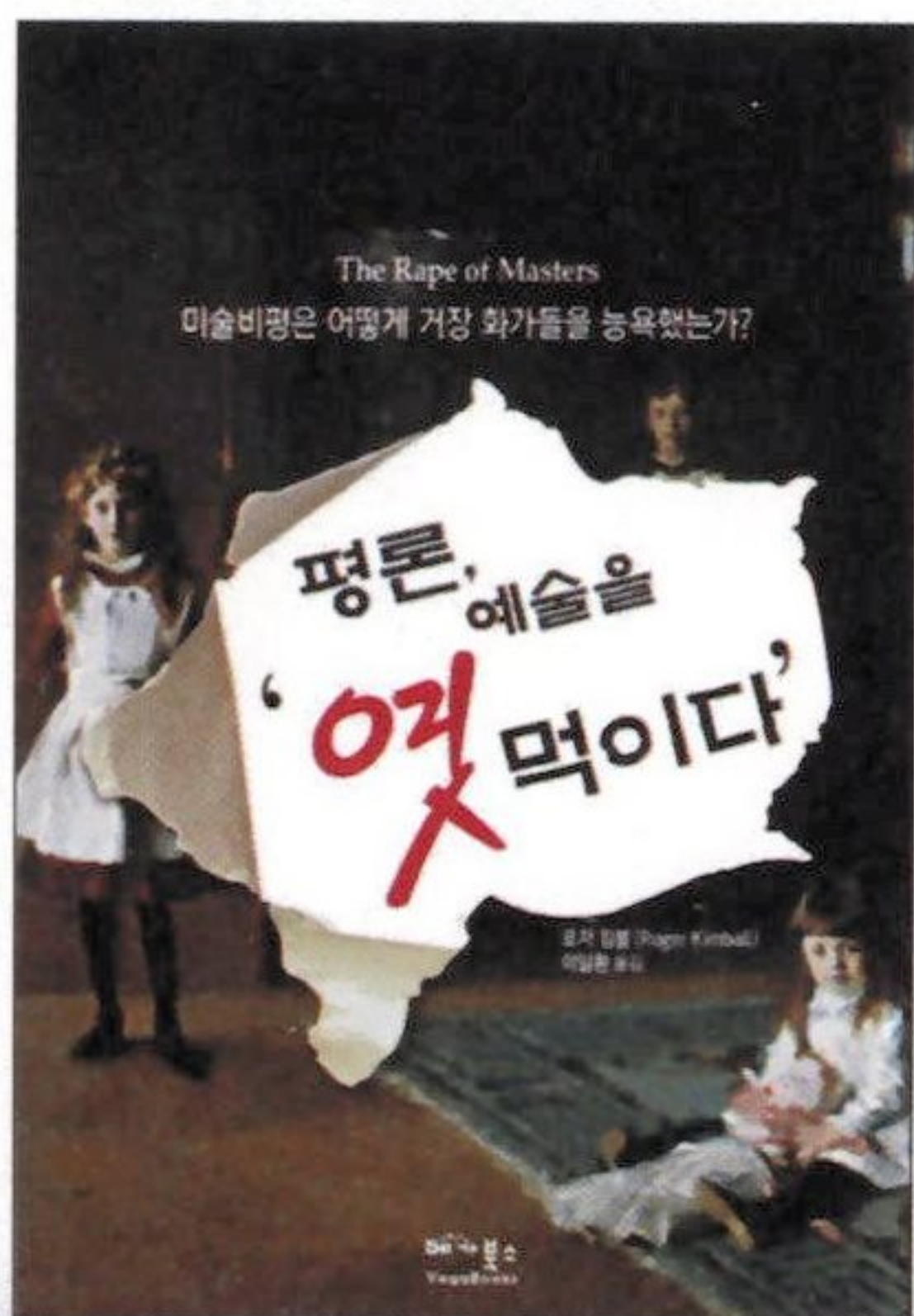
수상도시 베네치아에는 도시의 상징과도 같은 오페라극장 라 페니체가 있다. 1792년에 건설된 이 아름다운 극장은 1836년과 1996년 두 차례나 화재로 잿더미가 되었지만, 불사조(Fenice)라는 이름 그대로 다시 부활하였다. 두 번째 재개관 이후 이 극장에서는 매년 초하루마다 화려한 신년음악회가 펼쳐진다. 본 콘서트에서는 오페라의 본고장답게 여러 오페라 작곡가들의 유명 아리아와 합창 등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2012년의 신년음악회는 이 극장의 새로운 수장으로 임명된 베네수엘라의 젊은 지휘자 디에고 마테우스(1984년생)가 지휘봉을 잡았다. 두다멜에 이어 '엘 시스템아'를 통한 또 다른 쾌거로 화제를 모은 이 지휘자는 콘서트의 전반부를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5번 전곡으로 채우는 모험적인 선곡으로 화제를 모았고, 후반부는 콘서트의 전통 그대로 베르디, 푸치니 등의 유명 아리아와 합창으로 채웠다. 영국의 신성 제시카 프라트와 이탈리아의 일급 남성가수들인 발터 프라카로, 알렉스 에스포시토가 콘서트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장식하였다.



평온으로 돌아가는 음악(Musiques pour Retour au Calme)

아날로그 LP의 보물들로 가득한, 1950~60년대의 프랑스 마이너 레이블들 중 DEVA에서 발매된 '첼로와 오르간을 위한 음악(베르나 폰테니, 마리-루이 지로 연주)' 스펙트럼사운드에서 CD로 발매 예정인 Julius Bachi의 스위스 EMI 로컬 녹음(ZPX 10006 LP), 앙드레 나바라, Maurice Duruflé의 프랑스 Vogue CLVLX-361와 더불어 '첼로와 오르간'에 대한 아날로그 녹음들 중 명연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앙드레 레비와 더불어 당시 프랑스 파리음악원 교수였던 베르나 폰테니의 품격과 고즈넉한 아름다움이 녹음 속에 담겨있다.(1961년 파리, 모노 녹음, 세계최초 CD화)
보너스 트랙으로는 다닐 샤프란의 1960년 미국 RCA 레코딩 음원들인 슈베르트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쇼스타코비치 첼로 소나타(영국 RCA 스테레오 초반 복각) 녹음들이 수록되어 있다.





평론, 예술을 엮먹이다

미술비평은 어떻게 거장 화가들을 능욕했는가

로저 김볼 지음, 이일환 옮김
베가북스 / 148p / 1만3천원

여기 한 장의 그림이 있다. 당신이 이 그림을 처음 보았을 때 마침 기분이 우울했는데, 그림의 화려한 색감에 점차 마음이 풀어졌다고 가정하자. 그 그림을 눈으로 보았을 때, 가슴으로 느꼈을 때, 마지막에 머리로 생각했을 때도 "이 그림은 보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구나"였다. 그런데, 어떤 저명한 평론가가 이 그림을 두고 "물질 문명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내면에 잠재된 욕망을 표현했다"고 말한다면 동의할 수 있겠는가. 어쩌면 우리는 평론가의 저명함에 기가 눌려 "내가 그림을 잘못 봤구나, 역시 예술은 어렵다"며 고개를 흔들지도 모르겠다. 정말 당신의 느낌이 잘못된 것이고, 평론가의 해설이 맞을까. 이 책의 저자 로저 김볼은 학구적인 예술사의 본질이 어떤 식으로 변질되어 가는지를 보여준다. 페미니즘, 후기식민주의 연구, 마르크시즘, 포스트모더니즘, 정신분석 등 여러 가지 탈을 쓴 채 예술가들의 작품을 모독하고 오독하는 평론들이 있다는 것이다. 루벤스, 고흐, 고갱 등 일곱 명의 거장 화가들과 그들의 걸작들이 오늘날 몇몇 예술비평가와 철학자들에 의해서 터무니없이 재해석되고 그들의 진보적 이념의 환상에 끼워 맞추어지는 역겨운 모습이 저자의 재기발랄한 문체로 여지없이 폭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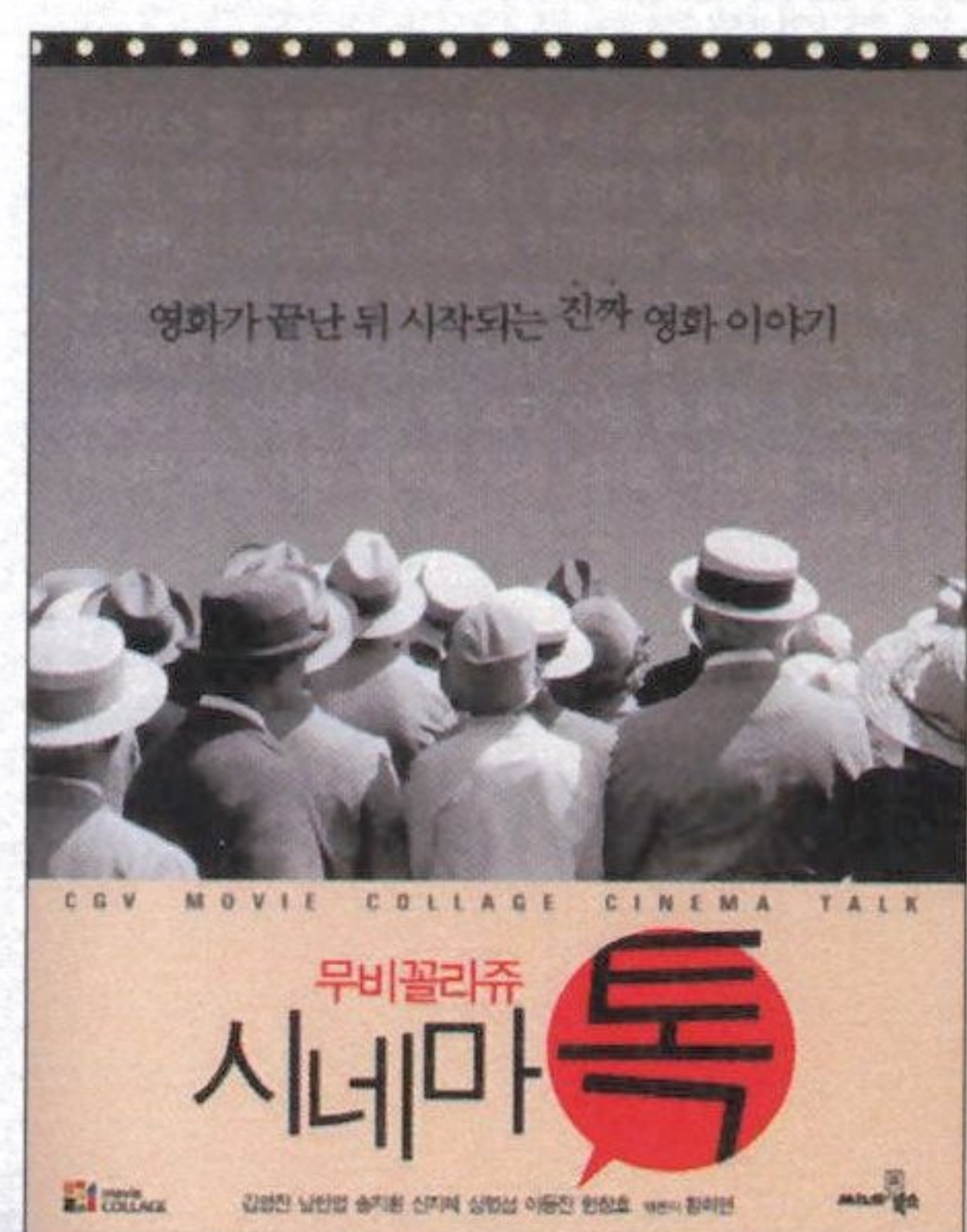


자화상전

거장들의 자화상으로 미술사를 산책하다

천빈 지음, 정유희 옮김 / 어바웃어북 / 435p / 2만원

자화상을 즐겨 그리지 않은 화가로 알려진 다빈치는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은밀한 방법으로 그림 속에 자신을 그려 넣었다. 1986년 영국의 컴퓨터 그래픽 전문가 릴리안 F. 슈바르츠는 기상천외한 실험을 했다. 컴퓨터를 이용해 <모나리자>와 다빈치의 소묘 <자화상>을 오버랩해 본 것이다. 그 결과 두 인물의 눈과 이마, 머리카락의 경계선, 코 등의 윤곽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슈바르츠는 <모나리자>가 다빈치의 자화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인물을 그리는 초상화(portrait)는 'portray'의 어원인 라틴어 'protrahere'에서 유래했다. 자화상(self-portrait)은 '발견하다'라는 의미가 담긴 protrahere 앞에 '자신'을 뜻하는 'self'를 붙여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그리는 그림'을 말한다. 화가가 자기 자신을 모델로 그리는 초상화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해 붓을 들게 한 그림이라는 의미다. 자화상은 외모만을 그리는 게 아니라 내면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자기성찰을 위한 그림이다. 미술사를 대표하는 거장들의 삶과 예술이 고스란히 담긴 자화상은 그 자체가 하나의 역사를 이룬다. 이 책은 거장들의 자화상을 한데 모아 시대별로 감상하며 미술사의 흐름을 꿰뚫어 본다.



무비 콜라주 시네마 토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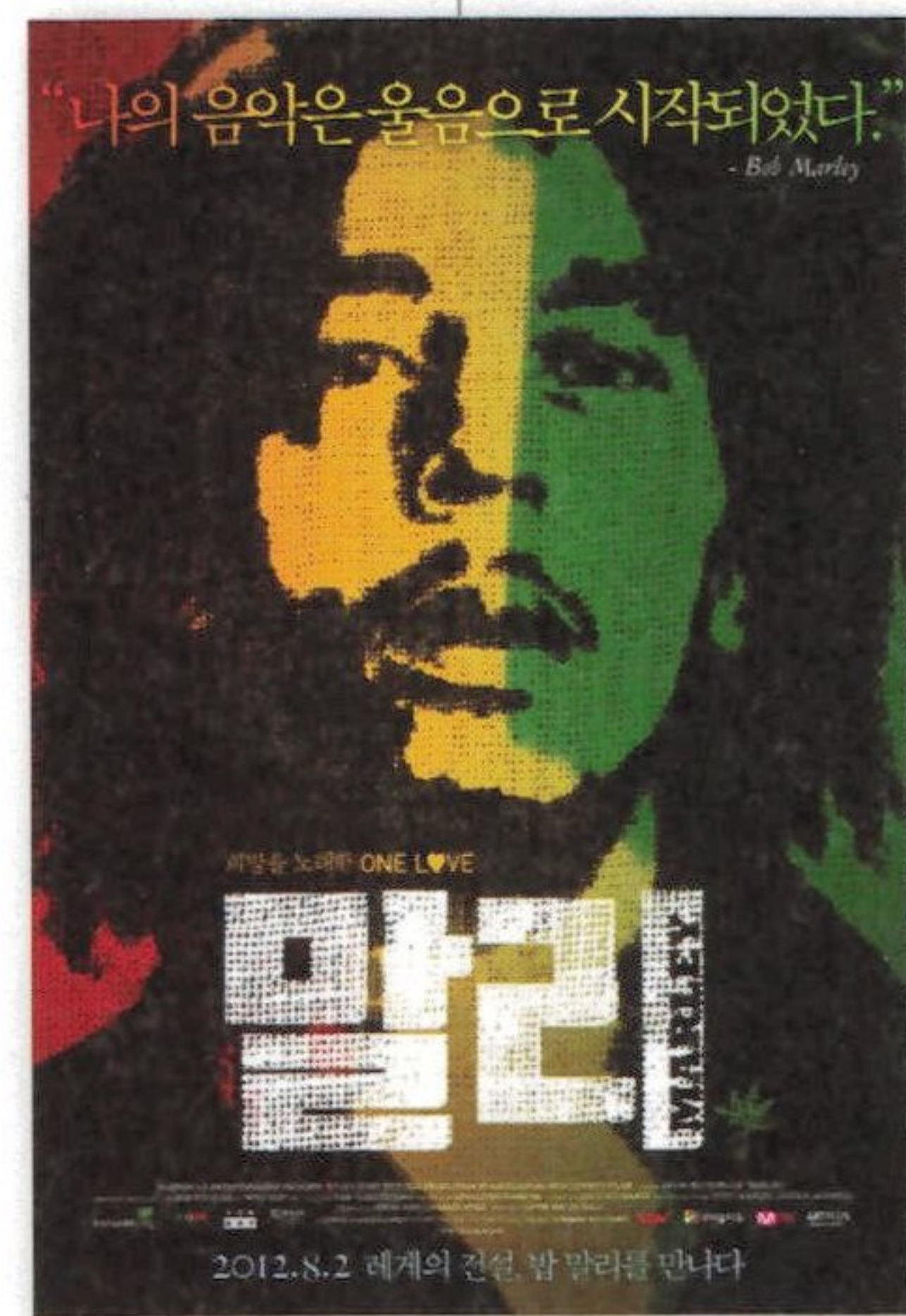
영화가 끝난 뒤 시작되는 진짜 영화 이야기

김영진 외 지음 / 씨네21북스 / 148p / 2만2천원

영화가 끝나고 극장 안에 불이 켜지면 쏟아져 나오는 말들. "배경이 너무 근사해" "음악이 끝내줬어" "주인공 말은 배우가 지난번 영화보다 연기실력이 못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 영화는 뭘 말하고 싶은 거냐구" 등등. 그것이 바로 관객들의 가장 생생한 영화비평, 시네마톡이다. 감독은 이 장면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영화에 숨겨진 특별한 이야기는 없을까, 촬영에 얽힌 에피소드는 무엇일까. 영화에 매혹되면 될수록, 영화에 관한 궁금증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감동의 진폭이 크다면 관객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하기도 한다. 이 책은 우리 시대 새로운 고전이 될 만한 영화를 보고 난 후 평론가와 게스트, 관객이 함께 나누는 영화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다. 현장의 생생한 감동, 미처 짐작하지 못했던 깊이 있는 인생이야기까지 오직 '톡(TALK)'이었기에 가능한 여러 층위의 영화이야기가 펼쳐진다. 사소한 뒷담화에서부터 어렵고 힘들었던 고민들과 평론가의 하소연도 담겼다. 영화 전문가의 촌철살인 코멘트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사사로운 질문들을 함께 담아 더 생생하고 진솔한 영화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SPECIAL MOVIE



두레라움 서머 2012 'Romantic Summer'

7월 25일(수)-8월 22일(수)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부산

(재)영화의전당이 여름 특집으로 마련한 특별상영전 '로맨틱 Summer-2012 여름이야기'에서는 총 25편의 영화가 3가지 주제로 나뉘어 상영된다. 우선 영국 특유의 사회적 규범과 열정적 사랑이 충돌하는 순간을 그린 작품들을 상영하는 1부 '영국인의 사랑'에서는 영국을 배경으로 한 시대극을 세련되고 단아하게 만들어냈던 영화 '전망 좋은 방'의 감독 제임스 아이보리의 대표작 등 8편이 소개된다. 영화사의 명배우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2부 '여인의 향기 혹은 반란'에서는 무성영화시대의 전설적 여신 릴리언 기쉬의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바람'에서부터 잉그리드 버그만의 '엘레나와 남자들', 바네사 레드그레이브의 카리스마가 넘치는 '줄리아' 등 9편의 작품이 상영된다. 세월에 따라 변화한 혹은 변하고 있는 시대상을 예민하게 포착한 작품들을 소개하는 3부 '21세기의 연인들'에서는 잃어버린 소통과 빛나간 사랑의 관계를 섬세하게 그린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클로저', 현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중견감독 중 하나인 제임스 그레이의 '투 러버스' 등 8편이 상영된다.

비키 바다상영 '엘리노의 비밀' '소중한 날의 꿈'

8월 4일-5일 토-일요일 오후 7:00
광안리해수욕장 야외무대

2012 부산바다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열리는 비키 바다 상영회가 8월 4일과 5일 이틀간 광안리해수욕장 야외무대에서 펼쳐진다. 시원한 밤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번 상영회에서는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출품작으로 사랑받았던 '엘리노의 비밀' '소중한 날의 꿈' 등 두편의 애니메이션이 상영된다. 우선 8월 4일에는 2012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장편초청작으로 선보였던 프랑스 감독 도미니크 몬페리 감독의 애니메이션 '엘리노의 비밀'이 상영된다. 2006년 프랑스에서 가장 주목받는 삽화가상을 수상하며 국내에도 두터운 팬 층을 확보하고 있는 레베카 도트르메르의 작품을 원작으로, 동화 속 친구들을 구하기 위한 주인공 나다니엘의 모험을 그린 작품이다. 8월 5일에는 2011년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폐막작으로 소개됐던 안재훈, 한혜진 감독의 국내 애니메이션 '소중한 날의 꿈'을 상영한다. '소중한 날의 꿈'은 김일의 박치기에 환호하고, 달나라에 간 우주인을 신기해 하던 1970년대를 배경으로 '첫사랑'과 '추억'이란 소재를 유쾌한 웃음과 몽클한 감동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기획에서부터 개봉까지 1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작품으로, 총 10만장의 작화 작업을 거쳐 유려하고 사실감 넘치는 비주얼을 선사하는 한편 CG작업을 최소화한 수작업으로 할리우드 3D 애니메이션과는 차별화된 영상을 선보인다.

다큐멘터리 '말리'

8월 상영, CGV서면 무비콜라주

1945년 자메이카 출신인 '밥 말리'는 레게음악의 전설이자 대표적인 싱어 송 라이터이다. 케빈 맥도널드 감독이 연출한 다큐멘터리 '말리'는 자메이카 나아가 핏박 받고 있던 아프리카 민중의 권리를 위해 노래를 부른 밥 말리의 생애를 그린 작품이다. 민중을 핏박하는 사회현실을 비판한 두 번째 앨범 '내티 드레드(Natty Dread)'를 발표하면서 시대의 아이콘이 된 밥 말리는 1976년 자메이카 총선을 앞두고 인민국가당을 지지하는 콘서트를 준비하던 중 자메이카 정부로부터 총기테러를 당한다. 그 사건으로 2년 동안 그는 영국에서 망명 생활을 보낸다. 1978년 내전 상태에 돌입하려는 자메이카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온 말리는 앙숙이던 두 정치 지도자인 인민국가당의 마이클 만리와 자메이카 노동당의 에드워드 시가의 화해를 주선한다. 대립 중이던 두 지도자의 손을 맞잡은 밥 말리의 사진은 아직도 유명하다. 이렇듯 다큐멘터리 속에 등장하는 그의 생전 인터뷰 영상과 유족, 동료들의 인터뷰를 따라가다 보면 저항의 아이콘으로서의 '밥 말리'와 마주할 수 있다. '말리'는 올해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인 후, 지난 5월 제13회 전주국제영화제 '불면의 밤'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팬들에게 처음 소개돼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비 오는 날의 아다지오

조영석_필하모니 대표



공자는 '논어'에서 선비가 갖추어야 할 여섯 가지 덕목을 말하면서 첫째는 예의가 발라야 하며 두 번째로는 음악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과 지식은 다섯 번째로 올려놓았다. 지식과 학벌이 으뜸인 요즘 사회를 되돌아보게 하는 금언이다.

공자가 글보다 음악을 중요시한 것은 자칫 이기적이고 형식적으로만 흐를지 모를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풀어놓는데 있어 음악만한 것이 없다는 뜻이 담겨 있는 듯하다. 재주 많고 머리가 뛰어나도 따뜻한 가슴만큼 소중하지는 않다. 또한 형식적인 예의보다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예의가 더 중요하다는 가르침으로 새겨진다. 하지만 요즘 세태는 음악마저도 지식화되어가는 추세이다 보니 공자님의 가르침이 무색하다.

가끔씩 여름 소나기가 내리는 날이면 지난날 학창 시절에 즐겨 들었던 음악 한 곡이 생각난다. 1975년 이 때쯤이었다고 기억된다. 갑자기 쏟아져 내리는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청계천 평화시장의 어느 헌 책방에 들어갔고 그 때 그 헌 책방 구석 선반에 얹혀있던 조그만 AR스피커에서 울려오던 아름다운 선율에 끌려 한동안 났 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서 있었다.

그 때 첫 인연을 맺은 토마소 알비노니의 '현과 오르간을 위한 아다지오'는 그 후 나의 클래식 앨범의 주요 레파토리로 자리잡았다. 그 당시 들었던 연주는 카라얀이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니카였고 지금도 이 연주를 즐겨 듣는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오디오와 디스크로 듣지만 그 때의 가슴 뭉클했던 감동은 어딜 가고 희미한 기억 속의 한 장면만 떠오르는 것일까. 살면서 세파에 너무 많이 시달려서일까, 가슴이 메말라져 가기 때문인가. 요즘도 알비노니의 아다지오를 들을 때마다 당시의 감동을 떠올려 보지만 그때 만큼 가슴에 와닿질 않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지나간 시절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만 더 쌓일 뿐...

토마소 알비노니의 아다지오는 오르간과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선율을 원한다면 카라얀이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니카의 연주가 좋으며 현과 하프시코드의 단아함을 듣고 싶다면 클라우디오 시모네가 지휘하는 이 솔리스트 베네티의 연주를 추천하고 싶다. 그러나 이 또한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것이고 자신이 처음 듣고 감명을 받았다면 그 연주가 명 연주고 또한 명반이 아닐까?

Adagio

NEWS



8월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공연장을 자주 찾을 수 없는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 찾아가는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이 8월에도 부산전역에서 펼쳐진다. 8월에는 화명도서관과 재송어린이도서관에서 꿈나무 소망심기공연, 부산노인전문제2병원에서 환우를 위한 공연이 펼쳐진다.

| | | | |
|-----------|-------|------------|---------------------------|
| 8월 11일(토) | 15:00 | 화명도서관 | 꿈나무 소망심기공연 (출연/국악관현악단) |
| 8월 22일(수) | 15:00 | 부산노인전문제2병원 |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출연/소년소녀합창단) |
| 8월 23일(목) | 15:00 | 재송어린이도서관 | 꿈나무 소망심기공연 (출연/교향악단) |

문의_ 부산문화회관(607-6046)



2012년 제25회 부산합창제 참가단체 모집

부산시립합창단에서는 2012년 제25회 부산합창제에 참가할 부산지역의 합창단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및 전형내용

| 행사명 | 모집부문 | 비고 |
|------------|---------------------------------|------------|
| 제25회 부산합창제 | 부산지역을 연고로 한 합창단 (혼성, 남성, 여성) | 신청서 및 악보제출 |

2. 행사일 2012년 10월 25일(목) ~ 2012년 10월 26일(금) 19:30

3. 참가신청 및 심의 발표

- 참가신청 접수 : 2012년 8월 6일(월)~8월 24일(금)
- 참가단체 심의 : 2012년 8월 27일(월)
- 참가단체 통보 : 2012년 8월 29일(수)(개별통지 및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게시)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기 간 : 2012년 8월 6일(월)~2012년 8월 24일(금)(토, 일 제외)
- 구비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합창단 프로필 사진, 연혁(8줄 기준)
지휘자 및 반주자, 단장 사진 제출, 악보 제출
※ 대표자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합창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은 jpg 파일로 dongjooh@naver.com으로 전송)

※ 접수 및 문의 : 부산시립합창단 사무실(607-3141~4)

제6기 문화대학 수강생 모집

부산 문화의 메카인 부산문화회관이 문화·예술 교육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계발과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코자
고품격 강좌를 개설합니다. 한국문화예술계 최고의 리더들과 함께하는 제 6기 문화대학 강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운영기간 2012. **9.5** ~ **10.31** / 기간 중 총 8회 실시
- 시 간 매주 수요일 14:00 ~ 16:00 ※각 회별 수업시간 변경될 수 있음
- 장 소 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장)
- 모집인원 100명 (일반인) ▷ 선착순 접수
- 신청기간 2012. **8.20** (월) ~ **8.31** (금)
- 신청방법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방문접수 or 팩스(607-6049) 접수
 - 문화대학 수강자 최종 명단은 2012. 9.3 (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
 - 수강료 납부 순서로 선착순 모집 마감하며, 접수명단은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 게시
 - 신청서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
- 교육강사 국내문화예술계 저명인사
- 수 강 료 30,000원(교재비 포함) ※정기회원 10%할인
- 운영단체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051) 607-6044, 6057 문화대학 담당자
- 강좌일정



1주 (9/5)

강헌 문화평론가

- K-pop시대의 '나는 가수다'의 의의와 한계



5주 (10/10)

김용택 시인

- 자연이 말해주는 말을 받아쓰다



2주 (9/12)

이원국 발레리노

- 발레리노 이원국의 발레 인생



6주 (10/17)

김정아 한국교통방송 아나운서

- 매력적인 목소리를 디자인 하라



3주 (9/19)

박현정 성악가

- 가을에 불러보는 가곡



7주 (10/24)

권오숙 영문학자

- 로미오와 줄리엣 그들의 사랑 <셰익스피어>



4주 (9/26)

배선주 아담 우리색 연구소 소장

- 생활속에서 색으로 즐기는 삶



8주 (10/31)

이동신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 현대음악의 이해





막심 트라비차 부산공연

한 달 내내 막심 트라비차를 기다리며 무척 행복했다. 우리나라에 몇차례 왔었다는데 왜 부산공연이 처음이었는지, 그것도 부산문화회관의 갑작스러운 공사로 이번에도 부산에서 공연을 보지 못하나 조마조마 마음을 즐였다. 오래 기다린 만큼 막심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동영상으로만 만나던 막심의 연주. 음악으로 힘든 전쟁을 이겨낸 막심의 열정, 예술혼이 보는 내내 나를 행복하게 했다.

김정화(연제구 거제4동)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한번쯤 꼭 보고 싶었던 발레의 고전 '백조의 호수' 를 드디어 보게 되었다. 공연장이 변경되어 걱정이 많았지만 공연이 시작되고 나서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백조들의 모습에 눈을 땔 수 없었다. 역시 나의 생각이 기우였다. 차이코프스키의 음악, 24명의 발레리나들이 펼치는 환상적인 군무, 한명이 소화해 낸 완벽한 오데뜨와 오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박민숙(사하구 괴정동)

부산시립교향악단 악기가족 이야기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아이들과 함께 부산시립교향악단 '악기가족 이야기' 를 관람하기 위해 부산 문화회관을 찾았다. 여기저기 엄마와 함께 온 아이들로 공연장이 북적였다. 전문연주자들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연주한다는 데 부모로서 정말 고마웠다. 지루하지 않게 연극적 내용을 가미한 것도 좋았다. 오정민(남구 용당동)

부산시립무용단 여름마당출판 '방귀쟁이 며느리'

작은아이 때문에 공연장을 쉽게 갈 수 없는 우리가족들. 여름마당출판 덕택에 1년에 한 번 아이에게 웃음을 선물한다. 올해는 아이가 특히나 좋아하는 뽕뽕이가 등장해 두 시간이라는 기나긴 시간, 놀라운 집중력으로 마당출판을 보는 모습이 대견했다. 방귀한방으로 나도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리고 왔어요. 김희찬(부산진구 당감동)

제7회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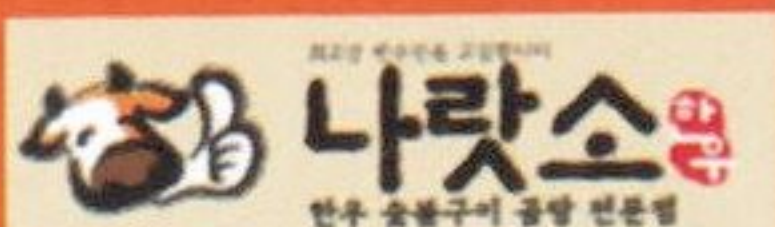
기다리고 기다렸던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올해는 한 달 앞서 7월 아이 방학과 함께 만났다. 매년 개막식을 놓쳤는데 올해는 영화제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 개막식 예매부터 아이와 법석을 떨었다. 민주공원에서 영화의전당으로 옮겨와 더 편하게 만날 수 있어 올해 영화제가 정말 기대됐다. 오늘 개막영화 '위대한 꿈' 을 만났는데 벌써 폐막영화 '미운 오리 새끼' 가 기다려진다. 김보경(해운대구 좌동)

공연후기 '100자 토크' 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 는 예술에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100자 토크' 공연후기를 보내주시신분을 선정하여 **나랏소 식사권(10,000원)**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보내실곳 bsculture@naver.com

마 감 수시모집 [원고를 보내실 때는 주소와 연락처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3~4)



TEL 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지 / 난 / 호 / 정 / 답

| | | | | | | | | | |
|---|---|---|---|---|---|---|---|---|---|
| 백 | 조 | 의 | 호 | 수 | | | 어 | 라 | 연 |
| | 선 | | 날 | | 어 | | 플 | | 가 |
| 마 | 왕 | | 두 | 물 | 머 | 리 | | 파 | 시 |
| | 조 | 조 | | | 니 | | 비 | 파 | |
| | 실 | | 오 | 름 | | 검 | | 라 | 벨 |
| 설 | 록 | 흙 | 즈 | | 이 | 무 | 지 | 치 | |
| | | | 의 | 태 | 어 | | 아 | | 도 |
| 절 | 차 | 탁 | 마 | | 령 | | 이 | | 가 |
| 권 | | | 법 | | | 돈 | 조 | 반 | 니 |
| 도 | 교 | | 사 | 신 | 도 | | | | 달 |

7월 퍼즐 당첨자

공간소극장 김은진(금정구 남산동)
초대권 설은진(남구 우암1동)
 윤금주(부산진구 가야2동)
 윤미숙(동래구 온천3동)
 황정애(수영구 광안4동)

나랏소 고미숙(남구 문현동)
식사권 문영미(해운대구 우동)
 박준석(기장군 기장읍)
 서동철(부산진구 양정동)
 황민주(남구 대연2동)

조은극장 김은주(서구 아미동)
초대권 박선희(영도구 동삼동)
 이금주(동래구 명장동)
 최수희(수영구 남천동)
 하윤숙(연제구 연산6동)

큰집 박선자(사상구 주례2동)
식사권 배수진(해운대구 반송동)
 윤순애(동래구 온천2동)
 윤지현(서구 초장동)
 이하나(사하구 구평동)

공간소극장 | 051-611-8518
 나랏소 | 051-628-8814
 조은극장 | 1588-2757
 큰집 | 051-245-3320



정답을 보내주세요!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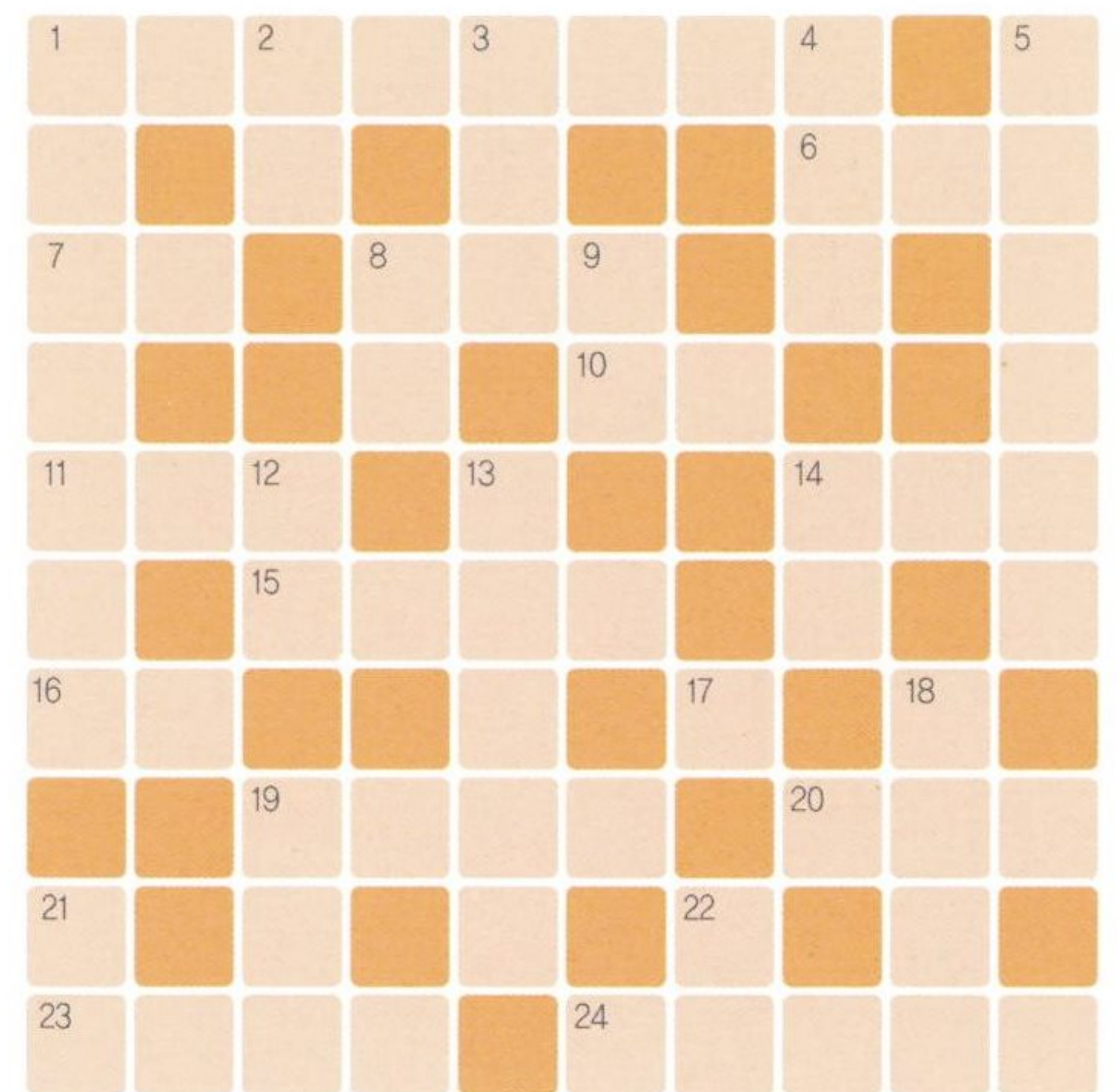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12년 8월 15일까지 보내주십시오

[가로열쇠]

- 1 일본 후쿠오카현이 아시아 문화교류를 위해 만든 복합문화시설. 유명한 해체주의 건축가인 에밀리오 암바즈가 설계한 자연 친화적 건축물로, 심포니홀, 국제회의장, 각종 정보센터, 쇼핑몰 등이 들어서 있다. 이 곳 상주단체인 아크로스 스트링앙상블이 8월 1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초청공연을 갖는다.
- 2 프랑스 파리에 있는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소장된 미술품의 규모는 세계 최대이다.
- 3 차이코프스키의 마지막 교향곡 제6번. 절망적이고 비통한 감정이 강하게 표현된 곡으로, 초연이 있던 후 며칠 뒤 병으로 숨을 거두면서 사람들은 마치 그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것으로 생각했다.
- 4 함경남도 일원에서 길러지던 우리나라 고유의 사냥견으로, 북한의 천연기념물 368호로 지정되어 있다.
- 5 식물, 특히 나무를 세는 단위.
- 6 '강나루 건너서 밀밭 길을~'로 시작되는 박목월의 시. 조지훈, 박두진과 함께 낸 시집 '청록집(靑鹿集)'에 수록된 시로, 조지훈의 시 '완화삼(玩花衫)'에 화답한 시다.
- 7 천체의 운행과 그 위치를 측정해 천문시계의 구실을 했던 기구로, 삼국시대 후기에서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로열쇠]

- 1 6세기경 페르시아에서 전해지는 천일 동안의 이야기를 아랍어로 기술된 설화. 천일야화.
- 2 프랑스의 조각가로 근대조각의 시조, 대표작으로 청동시대, 지옥의 문, 생각하는 사람 등이 있다.
- 3 일본 최고봉으로,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원뿔형의 성층화산. 781년부터 1707년까지 10여 차례 화산활동 기록이 있으며, 예로부터 일본 제일의 명산으로 신앙의 대상이 되어 왔다.
- 4 이탈리아의 테너 가수. 벨칸토창법의 모범으로 인정받았으며 20세기 초의 오페라 황금시대를 구축하였다.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노래로 유명한 '○○○'는 바로 이 가수의 생을 노래한 곡이다.
- 5 현대 젊은이들의 냉철한 허무감이 깔려있는 정통적인 연애소설로 출판 당시 베스트셀러가 되어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무라카미 하루키의 장편소설. 우리나라에서는 '상실의 시대'로 번역되어 출판됐다.
- 6 폐달을 밟아서 바람을 넣어 소리를 내는 건반악기. 리드오르간.
- 7 연극, 영화, 텔레비전 등에서 관객을 웃기기 위하여 끼워 넣는 즉흥적인 대사나 우스갯짓.



- 8 이탈리아의 작곡가 레온카발로의 2막 오페라. 마스카니의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와 함께 베리스모 오페라를 대표하는 걸작으로, 오늘날 이 두 오페라는 일반적으로 짝을 이루어 동시에 상연한다.
- 9 각종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보통 촬영기술로는 불가능한 화면을 제작하는 영화촬영기법.
- 10 민속음악에 쓰는 타악기의 하나. 낫쇠로 전이 없는 대야같이 만들어, 채로 쳐서 소리를 낸다. 음색이 부드럽고 장중하다.
- 11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피렌체의 부호 프란체스코 델 조콘다를 위해 그의 부인을 그린 초상화. 그림 속 주인공의 미소는 보는 사람에게 신비로움을 느끼게 하여 많은 풍설이 전해진다.
- 12 오페라, 오라토리오 등에서 기악 반주가 있는 서정적인 가락의 독창곡.
- 13 적나라한 성 묘사와 노골적인 음담이 전면에 깔려 있는 한국고전에 드문 성 문학으로, 신재효가 서민적인 냄새가 짙은 판소리로 개작했다. 변강쇠타령.
- 14 인류와 기계간의 전쟁을 그린 제임스 카메론 감독, 아놀드 슈왈제너거 주연의 영화. 지금까지 모두 4편의 시리즈가 만들어졌으며 3편까지 출연했던 주인공 아놀드 슈왈제너거가 10년만에 5편 영화에 출연할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 15 중국과 인도 사이인 히말라야 산맥 중앙부의 남쪽 반을 차지하는 내륙국가. 수도는 카트만두. 세계 10대 최고봉 가운데 8개를 보유한 국가로 지형이 험악하기로 유명한 산악국가이다.
- 16 이탈리아의 시성(詩聖) 단테의 생애를 통해 사랑과 시혼(詩魂)의 원천이 되었던 여성.
- 17 1930년대 전라북도 남원의 몰락해 가는 양반가의 며느리 3대(代) 이야기를 다룬 최명희의 대하소설. 호남지방의 세시풍속, 관혼상제, 노래, 음식 등을 생생한 우리 언어로 복원해내 '우리 풍속의 보고(寶庫), 모국어의 보고'라는 평가를 받았다.
- 18 영화 '홀리데이' '인정사정 볼 것 없다'에 수록된 록밴드 비지스의 대표곡.
- 19 '놀이나 잔치 또는 그 밖의 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일'을 뜻하는 순우리말. MT 대신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 20 조선 말기 평민들이 지어 부르던 노래로, 속요(俗謠)라는 뜻에서 ○○라 부르게 되었다.
- 21 사랑과 반역, 생존을 위한 투쟁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기상천외한 개미의 세계를 개미의 시각으로 흥미있게 그린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스테디셀러 장편소설.

관객 여러분께 깊은 사과드립니다

지난 7월 3일 화요일, 부산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를 2시간 여 앞두고, 대극장 천장 누수사고로 인하여 공연을 돌연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날 발길을 돌려야 했던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사과드립니다.

사고 이후 공연 예매 분에 관한 취소 및 환불 처리 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만 환불에 따른 물질적·정신적 피해는 물론이고 부산문화의 본당인 우리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의 문화시설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피해 시설은 8월 공연에 차질 없이 꼼꼼하게 복구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본 공연 취소에 따른 재공연은 지휘자와 협연자의 연주일정을 조정하여 2013년 초 특별음악회로 준비 중에 있으니 공연을 기다리신 시민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부산문화회관은 부족한 점을 점검, 보완하여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산문화회관장 최 동 환



August 2012 Program Guide

2012
August 8



● Grand theater ▼ Medium theater ● Small theater ○ Outdoor Amphitheater
 B.P.O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 B.M.T.O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
 B.M.D.C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 B.M.C Busan Metropolitan Chorus
 B.M.T Busan Metropolitan Theater / B.M.Y.C Busan Metropolitan Youth Chorus

| sun | mon | tue | wed | thu | fri | sat |
|--|-----|-----|-----|-----|-----------------------|-----|
| 전시일정 The Membership Exhibition of Busan Viewingstone Federation - Main Exhibition Hall 8.16(Thu)-8.19(Sun) Kim Sun-rak(010-840-0808) Son Seong-gun(010-9932-2489) The 12th Korea Literary painting Competition Winning Works Exhibition - Main & Middle Exhibition Hall 8.22(Wed)-8.25(Sat) Choi Yeon-seong(011-864-3698) | | | 01 | 02 | ACROS String Ensemble | |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26 | 27 | 28 | 29 | 30 | 31 | 9/1 |

2012년 8월 공연일정

2012 August 8

대극장 중극장 소극장 야외공연장



*7월 1일~8월 14일 기간 중 소극장 시설공사로 인하여 토요일무대 공연이 없습니다.

| sun | mon | tue | wed | thu | fri | sat |
|--|---|--|--|--|---|--|
| <p>전시일정</p> <p>부산광역시 수석연립회 회원전-대전시실 8월 16일(목)-8월 19일(일) 김선락(010-840-0808) 손성근(010-8932-2499)</p> <p>제12회 한국문화대전 입상작 전시-대, 중전시실 8월 22일(수)-8월 25일(토) *8월 25일(토) 14:00 시상식-국제회의장 최연성(011-864-3698)</p> | <p>미술동인 협 청림 50주년 기념전-대전시실 8월 26일(일)-8월 30일(목) 손성일(010-3832-8727)</p> <p>부산서예협회 회원전-중전시실 8월 26일(일)-8월 30일(목) 이정근(010-7599-6044)</p> | <p>제7회 부산국제차어올림문화제-대·중전시실 8월 31일(금)-9월 2일(일) 균일 1만원/부산차문화진흥원(809-1551)</p> | 01 | 02 | <p>아크로스 스트링 앙상블</p> | |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 | <p>재미 한인 청소년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19:30 무료/KAMF Seoul(010-9735-6364)</p> | <p>어린이 영어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16:00, 19:30 균일 2만원/꿈꾸는 아이(010-7503-6564)</p> | <p>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아크로스후쿠오카 '아크로스 스트링 앙상블 초청공연' 19:30 2만원 · 1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8)</p> <p>어린이 영어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16:00, 19:30 균일 2만원/꿈꾸는 아이(010-7503-6564)</p> | <p>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금년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11:00, 16:00 균일 1만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제14회 원로음악회 19:30 초대/부산원로음악기획(010-2705-0366)</p> <p>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 29 '페퍼톤스' 20:00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8)</p> | <p>부산의치대관현악단 제40회 정기연주회 19:00 무료/부산의치대관현악단(010-4710-2899)</p> <p>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무용단 16:00 무료(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p> |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 | <p>2012 브니엘예술고등학교 무용 발표회 19:30 무료/박주현(010-3575-2989)</p> <p>부산시립무용단 2012 한여름 밤의 춤 작품전 -마음을 이야기하다- 19:30 균일 5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2)</p> | | <p>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팔경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19:30 2만원 · 1만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4)</p> <p>부산예술아카데미연구회 제5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3천원/노은주(010-2565-9780)</p> <p>부산시립극단 제44회 정기공연 '고도를 기다리며' 19:3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51)</p> | <p>부산시립합창단 3개 시도 교류음악회 '한여름밤에 듣는 꿈의 낭성합창' 19:30 균일 5천원/부산시립합창단(607-3141~2)</p> <p>동아대학교 의과대학 관현악단 제24회 정기공연 19:00 무료/장은정(010-2385-3852)</p> <p>부산시립극단 제44회 정기공연 '고도를 기다리며' 19:3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51)</p> | <p>토요상설무대-예현전통예술단 16:00 무료(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p> <p>부산시립극단 제44회 정기공연 '고도를 기다리며' 15:00, 19:0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51)</p> |
| 26 | 27 | 28 | 29 | 30 | 31 | 9/1 |
| <p>부산원음합창단 한국국악관현악단 초청 함께하는 국악여행' 14:30 초대/원불교 부산교구(245-0717)</p> | <p>고신대의관현악단 제17회 정기연주회 19:30 무료/고신대의 관현악단(010-2872-8905)</p> | | <p>2012 부산예고 무용 정기공연 19:00 무료/부산예술고등학교(011-9147-2733)</p> | <p>부산MBC 제1136회 목요음악회 International Players of Busan 창단연주회 19:30 1만원 · 5천원/(사)문화도시네트워크(760-1494)</p> | <p>전장수 클래식기타 독주회 19:30 균일 2만원/WE MUSIC(031-321-8958)</p> | <p>제5회 대한민국 기업사랑 음악회 15:30, 19:30 10만원 · 7만원 · 5만원/KNM(1577-7600)</p> <p>제7회 부산국제 차어올림 문화제 13:00 무료/(사)부산차문화진흥원(809-1551)</p> <p>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국악관현단 16:00 무료(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p> |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 교류음악회

한 배를 밤에 듣는

꿈의 남성 합창

2012. 8. 24 | 금 |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 휘|
구 천
(울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특별출연|
주 린
(Elec Cello)

출/연/진



부산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



창원시립합창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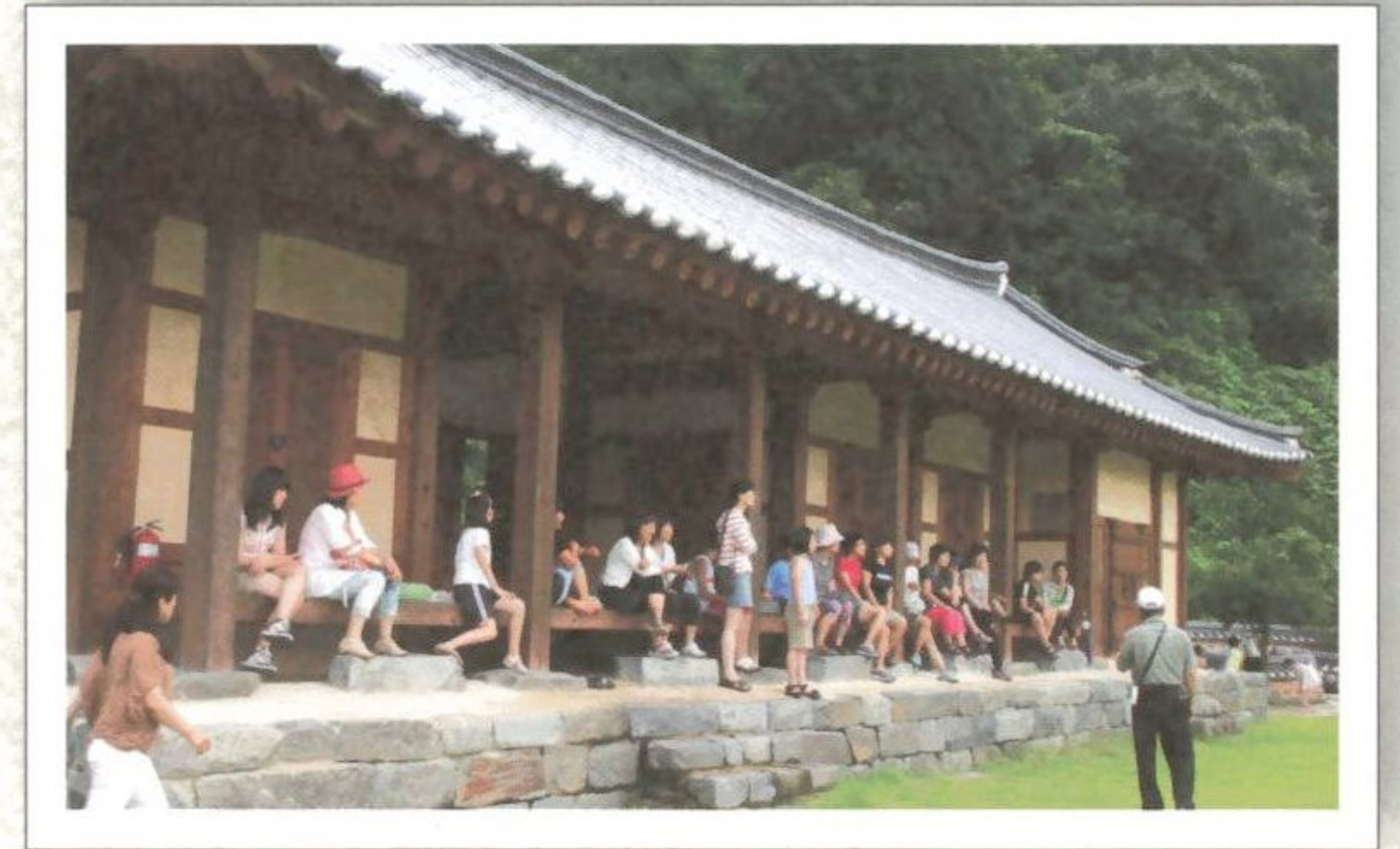
입장료. 균일 5,000원

주 최. 부산광역시 주 관. 부산시립합창단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607-3100 / 부산시립합창단 607-3141~4

☐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 대연지하철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 월~금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영천

2012년 9월 14일(금)

영천의 상징 포도와 함께 하는 오감 여행을 시작으로 영천의 정신적 지주 정몽주의 충절을 기리는 임고서원, 문화유산과 자연풍광, 주민의 일상을 예술작품과 연계하여 새롭게 조성한 영천 별별 미술마을에서 특별한 하루를 즐긴다.

-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10:00 영천 도착, 포도따기 및 와이너리 체험
- 12:30 중식
- 13:00 임고서원 탐방
- 14:00 영천 별별 미술마을 탐방,
'신 몽유도원-다섯 갈래 행복길' 걷기
- 16: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7:00 부산으로 출발

의령

2012년 10월 12일(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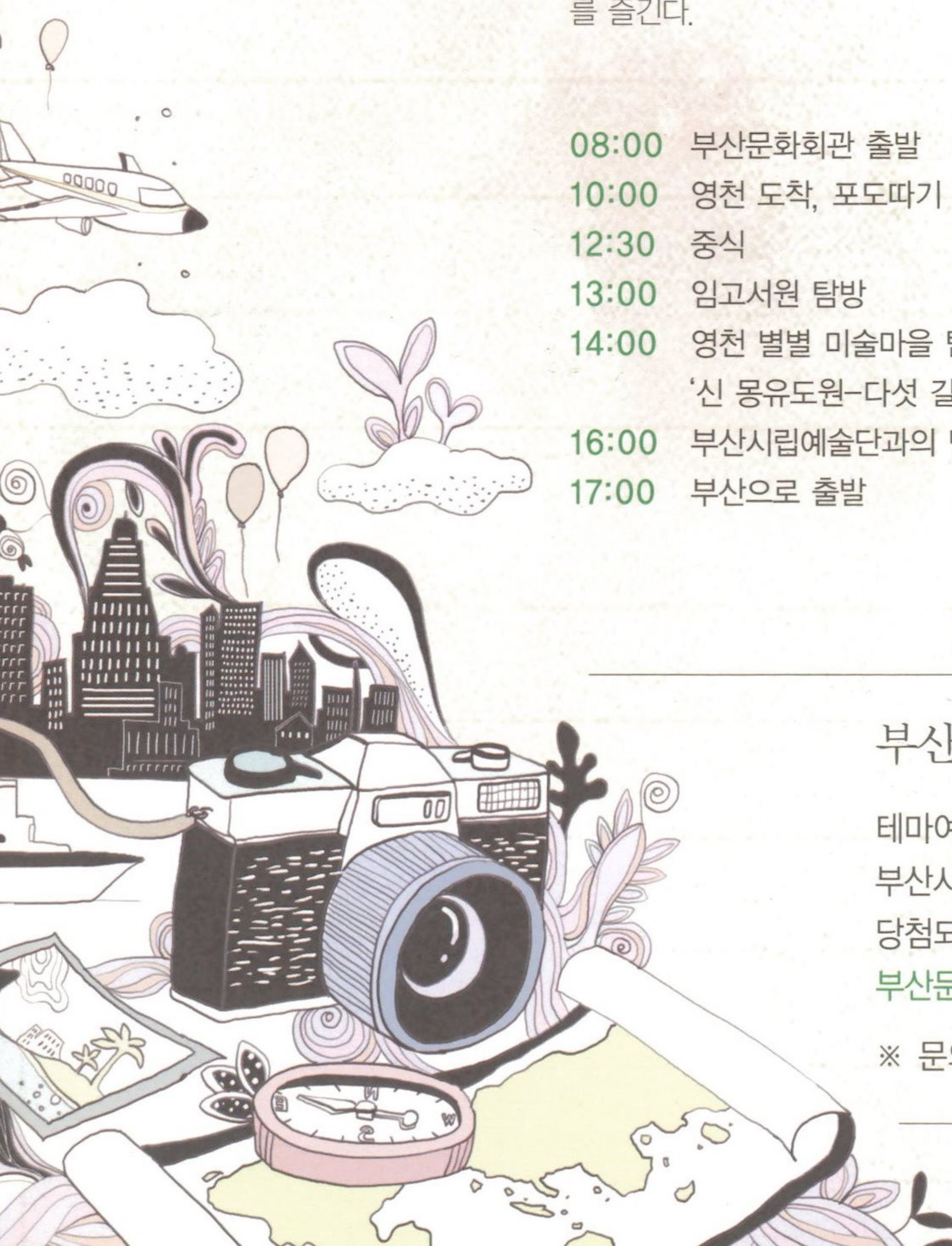
한가로운 농촌의 소박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의병의 고장 의령으로 떠나는 늦여름 여행. 의령의 3대 인물인 망우당 곽재우 장군, 백산 안희제 선생, 호암 이병철 선생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생가, 유적지를 둘러본다.

-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09:30 의령도착, 이병철 생가, 곽재우 생가,
안희제 생가
- 12:30 중식
- 13:3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4:00 의령한과 체험
- 16:00 총익사
- 17:00 부산으로 출발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예술의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culture.busan.go.kr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2. August Vol.248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 4.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154호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의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예술의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 4.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154호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의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예술의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센텀점

Today
Restaurant
Since 1985

20%
Discou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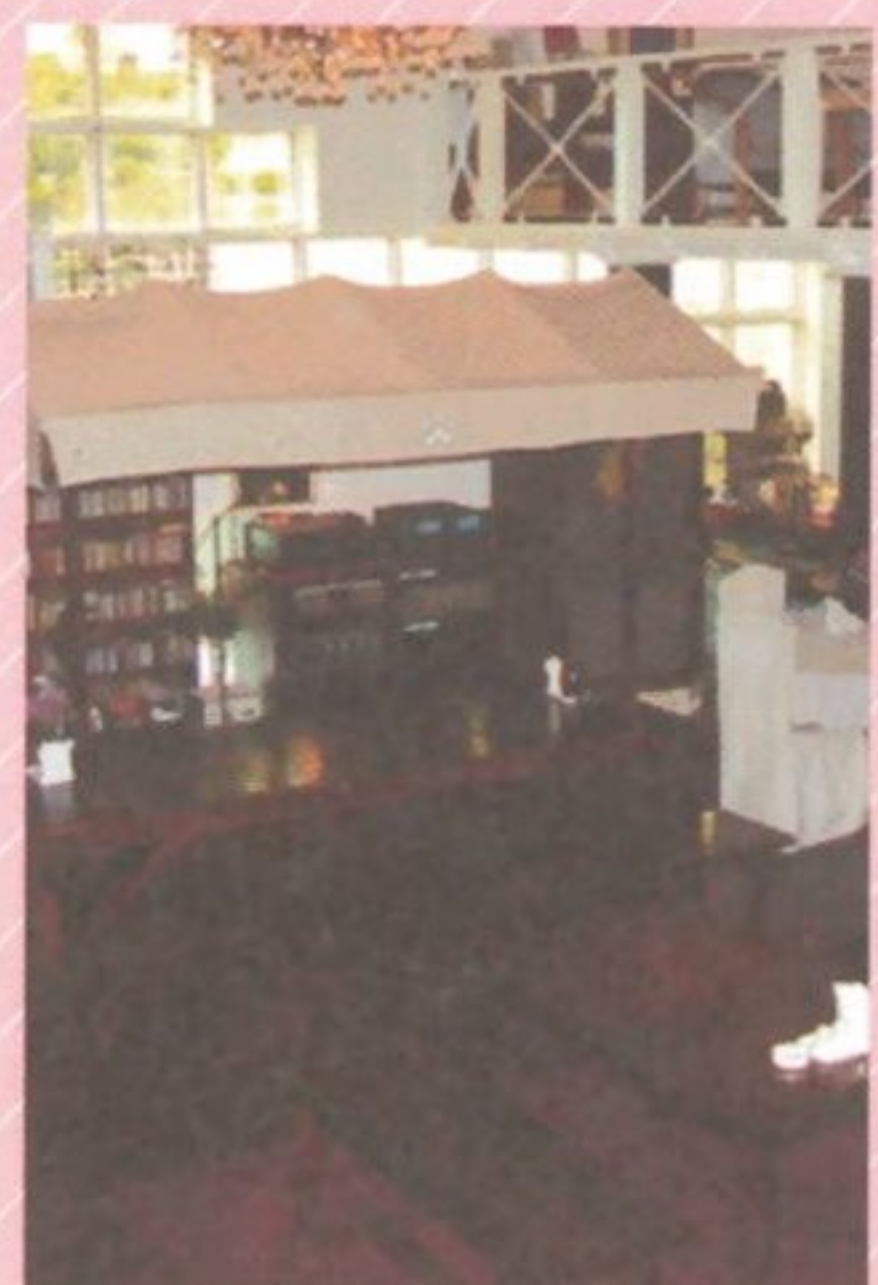
MOZART

10%
Discount



센텀점
힘이동기스

10%
Discount



Since 1981
philharmony

10%
Discount



리얼코믹극
기막힌 꼼수

20%
Discount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Part 2 - Yesterday

유익종 콘서트

2012.9.14(금) 오후 8: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 공연과(607-6057)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청년 그 열정속으로
아트 레볼루션
'복순이 할배'

20%
Discount

토다이 센터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20% 할인
(평일 점심제외)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 임페리얼 타워 5층
예약 : 051)731-700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행사는 토다이 센터점에 한합니다.

모차르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음료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1층
051)626-1456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돈까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점심특선 제외)

센텀SH밸리 210호
051)747-8244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하모니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051)626-2592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리얼코믹연극 '기막힌 꿈수'

2012.8.3(금)-9.2(일) 평일 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후 3시, 6시
(월요일 공연 없음)
입장권 : 균일 3만원 장소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문의 및 예매 : 1588-2757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청년 그 열정속으로

아트 레볼루션 '복선이 할배'

2012.7.28(토)-8.12(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6시
입장권 : 균일 2만원 장소 : 공간소극장
문의 및 예매 : 611-8518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2012년 9월 응모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 회원명

• 연락처 [자택]

[휴대폰]

• e-mail

• 동행자 인적 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 가보고 싶은 여행지나 참여하고 싶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십시오.

독자 의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 퍼즐정답

1 이번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 | | | | | | | | |
|----|--|----|---|----|----|----|--|----|
| 1 | | 2 | | 3 | | 4 | | 5 |
| | | | | | | 6 | | |
| 7 | | | 8 | | 9 | | | |
| | | | | | 10 | | | |
| 11 | | 12 | | 13 | | 14 | | |
| | | 15 | | | | | | |
| 16 | | | | | | 17 | | 18 |
| | | 19 | | | | 20 | | |
| 21 | | | | | | 22 | | |
| 23 | | | | | 24 | | | |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말 한마디에
천냥 빛 갚는다
?!

광고하나로 천냥 빛 갚는다!!

효과있는 광고로 당신의 근심, 걱정을 날려 보내 드립니다

제작 / 각종 프로모션, 홍보부스, 영상물, 사인물 등
광고 / 지하철, 신문, TV, 라디오 등
디자인 / 편집디자인, CI, BI 등

원칙에 충실한 광고회사 ANK
TEL : 051.755.3002 웹하드 : ankokok / ankokok
홈페이지 : www.ank.or.kr

NO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평일 오후 7시30분 / 토요일 오후 3시, 7시

원작 사무엘 베케트 Samuel Barclay Beckett

번역 서정철

연출 이성규

출연 황창기, 이혁우, 윤준기, 김정원, 전지은

2012

8. 23 thu

~ 25 sat

En attendant Godot

고도를 기다리며

waiting for Godot



연극처럼 인생처럼

금난새와 함께하는
금난새의 내친구



지휘·해설
금난새

Program

- 주페 | 「경기병」 서곡
- 비발디 | 「사계」中 “겨울”
- 로드리고 | 아랑훼즈 협주곡 中 제2악장
- 로시니 | 「빌헬름 텔」 서곡



마림바 황세미 기타 조정태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2012. 8. 17 금 오전 11:00 |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문의 607-3111~3(부산시향) 607-3100(홍보마케팅부) 입장권 균일 10,000원 (정기회원 20% 할인)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부산은행 전지점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